

# 서울을 바꾸는 예술 4년간의 질문들

2017-2020 담론집

# 서울을 바꾸는 예술 4년간의 질문들

2017-2020 담론집

이 책은 2017-2020년 4년 동안 운영된 서울문화재단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에서 논의되었던 '예술의 사회적 활동' 관련 주요 담론을 정리, 확장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 목차

담론집	1. 서문 .....	005
	2.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의 흐름 .....	011
	3.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의 주요 논제 : 당사자성·변화·예술적 방법론 .....	015
	4. 서울을 바꾸는 예술 안팎의 질문들 .....	029
포럼	예술의 사회적 활동, 다시 질문하기 .....	107
연혁	사업 연혁 및 연도별 참가자 2016-2020 .....	191

\* '3.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 주요 논제'와 '4. 서울을 바꾸는 예술 안팎의 질문들'은 현장에서의 대화를 바탕으로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이 대화에는 참여 예술가 및 기획자, 외부 전문가, 서울문화재단 담당 실무진 등이 참여하였다.

\* 책을 제작하며 특히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 안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발견하였다. 동시에 이와 관련한 논의가 예술가, 기획자, 기관 관계자, 정책 연구자 등의 입장에서 다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후 '예술의 사회적 활동, 다시 질문하기' 포럼을 기획하여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에서 질문이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살펴보고자 하였다.

## | 일러두기

- 서울을 바꾸는 예술은 ‘서울을 바꾸는 예술’ 혹은 ‘서바예’로 표기한다
- ‘예술의 사회적 활동’ 정의는 아래와 같다
  - 작가 개인의 산출물로 관객이 관람하는 예술이 아니라, 집단과 지역, 사회, 개인 속에 작용하여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변화 유발자로서 예술.
  - 혹은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작가와 대상이 참여하는 공동의 협력의 과정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그 과정 속에서 관람이 아닌 체험과 실천을 통해 공진화하는 예술.

출처: 서울문화재단, 「예술활동의 다변화와 사회적 실천」, 2017
- ‘3.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의 주요 논의 주제’ 발언자 구분을 아래와 같이 한다
  - 예술가, 기획자는 본 지원사업에 선정된 개인 및 단체를 지칭한다.
  - 외부 전문가는 본 지원사업에 전반 과정에 참여한 심사위원, 리뷰위원, 포럼 발제자, 퍼실리테이터, 인터뷰어를 지칭한다.
  - 재단 담당부서는 본 지원사업을 기획 및 담당할 서울문화재단 내 담당부서를 지칭하며, 서울문화재단 공식 입장이 아닌 담당 실무자 개인의 의견을 밝힌다.

01 /

# 서문

최선영 | 유구리최실장



### ‘예술의 사회적 활동’이라는 이름

예술에 여러 이름이 부여되는 것을 반기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예술은 그 자체로서 다양한 형태, 현장, 시간, 관계, 가능성 등을 포함할 수 있고 동시에 몇 가지 특징으로 구분, 정의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책의 전부를 할애해도 부족하다. 그래서 어려움을 잠시 남겨 두고 ‘서울을 바꾸는 예술’(이하 ‘서바예’)이라는 지원사업을 여러 각도로 살펴보았는데 사실상 이 책은 그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예술 중 일부 혹은 전부에 ‘예술의 사회적 활동’이라는 낯선 이름을 잠시 부여하며, 이 이름은 ‘서바예’ 안에서 주로 ‘사회적 예술’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사회적이지 않은 예술이 있을까?’라는 문제의식과 시대적으로 명명된 어떤 장르처럼 예술이 불리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책에서는 2017년 ‘예술활동의 다변화와 사회적 실천’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개념인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이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 예술의 사회적 활동<sup>1)</sup>

작가 개인의 산출물로 관객이 관람하는 예술이 아니라, 집단과 지역 사회, 개인 속에 작용하여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변화 유발자로서의 예술, 혹은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작가와 대상이 참여하는 공동의 협력 과정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그 과정 속에서 관람이 아닌 체험과 실천을 통해 공진화하는 예술

실제로 ‘서바예’는 이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설계, 운영되었다. 그래서 위의 정의가 이 책을 서술하는 데에 최소한의 근거이자 배경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한 관점의 한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것은 결국 정책적 언어나 지원사업의 사례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장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렇기에 이 책은 ‘예술의 사회적 활동’으로 개념화된 영역(심지어 정책 및 연구를 통해 그 영역 안에 있다고 분류된 주체가 그 개념을 동의하지 않더라도)으로부터 시작된 논의의 기록이며 그 영역을 벗어나기 위한 질문 설계의 과정이다.

1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팀에서 2017년 <사회적 예술활동의 지원>결과물로 발간한 연구보고서. (책임 연구원 : 라도삼)



## 함께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이에 따라 우선 ‘서바예’에 등장했던 질문들을 세 가지 입장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세 가지 입장 중 첫 번째는 ‘실행주체’로 사업에 참여했거나 관련 행사(포럼, 라운드테이블 등)에 참여한 현장의 예술가 및 기획자이고, 두 번째는 ‘리뷰위원’으로 사업의 심사 및 리뷰, 모니터링 등에 참여했던 전문가이며, 세 번째는 ‘행정주체’로 사업 전반을 설계하고 행정적 운영을 담당한 서울문화재단의 실무진이다. 물론 실행주체와 리뷰위원의 입장이 겹치기도 했고 행정주체가 사업 운영을 떠나 활동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기도 했다. 그러나 각자가 사업과 관계 맺는 맥락으로 인해 갖게 되는 입장들이 있었고 그것은 다양한 질문의 범위를 만들었기에 이 책에서는 그 질문을 더욱 쪼개어 흐름을 만들고자 했다. 이에 따라 리뷰위원 및 행정주체가 함께 ‘서바예’ 관련 2016년부터의 논의 및 대화의 기록을 다시 살펴보고 질문을 도출하는 과정을 약 2개월간 진행하였다. 이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화 기록을 중심으로 채워 넣으며 비어 있는 질문이나 답변의 지점을 확인해 나갔다.

## 예술가·기획자는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이러한 과정에서 처음에 집중하게 되었던 것은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 예술가나 기획자는 주로 ‘무엇’에 대해서 말하려 하는지, ‘무엇’과 관계된 활동을 하는지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접근은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주제적 특징을 정리하는 것에 머무를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또한 그것이 다이나미한 현장의 시도나 변화들을 공감하는 접근일지 의문이 들었다. 특히 예술의 사회적 가치나 역할에 대한 담론이 확산되면서 사회적 이슈나 주제를 다루어야만 예술이 동시대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예술의 사회적 활동’이 그러한 양상을 강화해 줄 위험 안에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따라서 이 책을 만드는 과정도 다른 질문, 다른 관점으로 조금씩 움직이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그 고민의 흔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 예술가·기획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이 깊어졌던 건 예술가나 기획자가 어떤 주제를 다루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 삶을 살아가는 주체로 강력하게 느껴졌던 순간 때문이었다. 이것은 ‘서바예’ 안에서 ‘당사자성’이라는 말과 자주 연결되었는데 한편으로는 그렇게만 표현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당신의 당사자성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만 던져 두기에는 포함할 수 있는 답변의 범위가 너무 좁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흔들리는 삶,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자 애쓰는 삶, 혹은 더욱 사방을 흔들며 보려는 삶은 좁은 답변을 비집고 나오거나 흘러넘쳐 버렸다. 혹은 답변하고 싶지 않음, 답변하지 않는 것의 필요성도 예술가나 기획자에게 활동의 태도로서 중요해 보였다. 그래서 질문이 변해야

했다. 예술가나 기획자는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혹은 말할 수 있는가. 심지어 말할 수밖에 없는가. 이것은 때로는 말해야만 하는 당위적 상황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은 결국 예술가나 기획자 이전에 한 사람에 대한 삶의 궤적을 들여다보게 만들었다. 그래서 ‘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기에 지금 저런 활동을 하고 있을까’, ‘그 사람의 삶은 앞으로 또 ‘무엇’을 말하게 만들까’라는 궁금함도 생겼다. 명쾌한 기획서나 유창한 언어를 비집고 누군가 삶의 흔적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길 바라는 순간도 많아졌다.

### 삶에서의 실천, 그 어디쯤에 ‘예술의 사회적 활동’이 있는가

이런 관심과 기대는 결국 예술가나 기획자에게 ‘당신은 이 활동·작업을 왜 하나요?’라는 질문으로 던져졌다. 그리고 이 활동·작업을 삶의 일부이자 실천으로 해오고 있는 사람에게 이 질문은 오히려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난감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당신은 왜 이런 주제의 활동·작업을 선택했나요?’보다는 답변할 의지를 발동시켰을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이 활동·작업을 왜 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다양하고 긴 대화들이 ‘서바이’에서 줄곧 이어졌는데 한편으로는 답변 안에 스스로 감히 지 않으려는 현장의 태도와 고민도 발견할 수 있었다. 조금 비장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어떤 활동·작업이 자신의 삶 자체 혹은 실천일 경우에는 그것을 언어로 모두 설명하는 것의 한계, 설명되지 못하는 순간에 집중하는 것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고민과 실천이 중첩된 활동·작업을 공공지원을 통해 정책화, 사업화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서바이’는 어쨌든 사업화가 가능한 프로젝트성 활동·작업을 지원해왔고 그 사례들을 중심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서바이’가 현장에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되기보다는 다른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테면 ‘예술의 사회적 활동’이든 그런 이름이 붙을 수도 있는 실천적 활동·작업이 어떤 환경 안에서 지속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 등으로 말이다. 물론 ‘서바이’도 이와 같은 질문 안에서 등장했지만 과연 그 의도가 사업을 확장, 다양화하는 것을 넘어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필 필요가 있다.

### 삶을 맴도는 예술의 즉흥성, 추상성, 불확정성 혹은 무엇

이렇게 현장을 지지하려 했던 제도가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 이 모든 활동이 예술과 연결되어 있고 예술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예술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판단, 추진을 하지 않는다. 예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끝장토론도 부족하지만 적어도 어떤 현장이나 움직임이 ‘예술적이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예술가나 기획자는 예술의 즉흥성, 추상성, 불확정성, 모호함, 비언어적인 요소 등을 놓지 않으려 노력하며 ‘서바예’든 ‘예술의 사회적 활동’이든 잠시 부여된 어떤 테두리를 끊임없이 허문다. 그 시도들은 삶에서 실천과 연결되며 당연했던 관점들의 자리를 흔든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질문의 범위와 자리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잠시나마 기록에 기대어 책을 만들어 보는 것이다.

### 그럼에도 예술적인 실천을 상상하기 위해

결국 예술에 대해 말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길게 늘어놓았다. 그럼에도 어려움을 마주해보고자 했던 이유는, ‘예술의 사회적 활동’이 계몽적이거나 일방적이거나 뻔한 사례를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시작된 예술적인 실천을 함께 고민해보기 위해서였다. 아마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다르게 전제하거나 기대하는 ‘예술’, 혹은 ‘예술적인 것’일 것이다. 그렇기에 ‘서바예’에서도 전혀 다른 활동들이 예술로 주장되거나 공감받았다. 혹은 그게 과연 예술일 수 있는지 질문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들이 보다 보편적인 기준이나 특징들로 정리되어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현장에 가장 필요한 일일까. 오히려 정리될 수 없는 낯선 시도들이 지속되어 예술로서 감지되어야 그것을 해석하거나 공감하려는 사회적 욕구도 생성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서바예’라는 사업 안에서 과연 얼마나 울퉁불퉁한 예술적 움직임들이 포착되었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동시에 지원사업이라는 구조가 그 예술적 실천들을 얼마나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을지 함께 질문해 보고 싶다. 이 책의 질문들이 지원사업을 훑어 가면서도 그 안에서만 맴돌지 않기를 바라며 추상적인 예술, 그보다 더 불명확한 삶을 향해 질문의 자리를 옮겨 본다.

### 최선영

세상을 구하려다 오지라퍼가 된 문화+예술+기획자.

유구리의 기운을 받아 오지라퍼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2019, 2020년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에 심의 및 리뷰위원으로 참여하였다.

02/

#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의 흐름

김진환 |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팀 팀장



#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의 흐름

김진환 /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팀 팀장

서울을 바꾸는 예술은 2016년 연말의 포럼부터 2021년 연초의 마무리 포럼까지 4년이 조금 넘는 기간 서울문화재단의 1개 부서(공공예술센터-문화기획팀-지역문화팀)가 지속적으로 총 6명의 담당자와 함께 진행한 사업이다. 서울문화재단의 중심 사업이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 담론집에서 확인할 수 있듯 예술과 사회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해, 사업이 다루는 현장, 사업에서 사람들을 호명하는 방식과 서바예가 호출한 흐름,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구성과 체계 및 방식, 현장과 지원기관의 (함께 진화하는) 관계, 예술과 공공행정의 관계 등에서 다양한 가능성들을 실험해 봤던 사업이라고 자평해 보고자 한다.

2015~2016년, 2017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준비했던 과정에서는 ‘서울을 바꾸는’의 범위를 매우 넓게 잡았다. 각 장르의 내적으로 고도화되는 양식과 제도에서 비껴 나와 사회와의 접점을 넓히려는 다양한 예술활동을 문화기획이나 혁신 영역까지 훑어보고자 했던 측면이 강했다. 그러면서 2017년, 서울시의 예술인 플랜, 그중에서도 청년예술인 지원 정책에 기대어 대규모의 지원사업(서울을 바꾸는 예술 : 청년편 Y)을, 그리고 정책의 연역적 자가발전이 아닌 현장에 있는 다양한 예술활동가와의 대화에서부터 ‘새로운 안경’을 만들어 보고자 했던 연구(예술의 사회적 개입 심층 연구 - 예술활동의 다변화와 사회적 실천)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예술활동을 드러내고 가시화하고 하나의 의미로 수렴되지 않는 다양성 그 자체가 드러나는 의미망이 구성되었으면 했다.

2018년부터 2020년은 사업 자체의 내재적인 고도화 과정이 진행되었다. 2018년에는 예술-사회-공공정책 간의 관계에서, 서울문화재단이 해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실험하는 해였고, 보다 예술 프로젝트로 집중하는 단계로 넘어간 지원사업 외에도, 현장 중심의 모임 운영, 기관이 아닌 현장의 선배가 후배를 만나는 과정으로서 인력 양성, 정책 과제 마련을 위한 라운드테이블까지 다양한 면으로 사업을 펼쳐 놓았다.

2019~2020년에는 지원사업에 집중하여, 별도의 리서치 단계 지원을 신설하거나 프로젝트 지원 이전에 각각의 예술활동가에 집중하는 player 워크숍-지원 구조로 재구성하는 등의 시도를

하였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예술활동 지원사업이 예술인이라는 존재를 창작자와 사회적 변화 유발자라는 두 가지 존재로 갈라 놓지 않을 수 있는 방식에 대해 역시나 사회적 존재로서의 당사자성을 지닌 예술인의 욕망과 실천이 온전한 모습 그대로 이를 재단하지 않고 지원정책이 가닿는 방법을 고민했던 것 같다.

4년여의 실험이 보여 준 흐름 시즌1의 끝에서, 서울문화재단의 예산 한계도 있었지만 그동안 마주쳤던 여러 가능성들에 각각 또 그에 더 맞는 옷이, 다른 방식의 사업이나 정책 구조가 어울릴 수 있겠다는 판단도 있었다. 서울문화재단에 한정해 봐도 리서치나 연구 활동까지 포괄하는 예술지원, 청년예술청이나 예술청과 같이 예술인들의 당사자성이 보다 존중 받을 수 있는 장과 구조가 마련되기도 하고, 장애예술이나 실천으로서 예술 교육 그리고 일상의 변화와 맞닿고자 하는 생활문화와 지역문화 등 다양한 사회적 욕망을 가진 존재로서 예술인을 지원할 수 있는 채널이 더 늘어나고 또 성장하였다.

이 모든 변화에서 ‘서울을 바꾸는 예술’이 실험을 통해 남겼던 좋은 사례들, 살펴보았던 다양한 현장과 사람들, 기록해 놓은 중요한 이야기들, 미완으로 남겨 두었으나 앞으로도 성찰과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이슈들이 보다 많은 예술인들과 관계자들에게 가닿기를 바라며, 이 담론집을 꼼꼼히 읽어 주시고 또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서울을 바꾸는 예술이, 서울문화재단과 서울의 문화정책에서 어떤 맥락에 놓여 있는지, 어떤 실험들을 하였는지, 즉 각 연도의 사업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와 더불어 그 이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책자의 112쪽부터 130쪽에 수록되어 있는, 포럼 발제문 「서울을 바꾸는 예술 ( ) 서울문화재단 : 사업의 추진 배경과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진환

2009년부터 13년째 서울문화재단에서 일하고 있다. 서울을 바꾸는 예술 관련 2016년 포럼과 2017년 연구의 담당자, 2019년~2020년 담당 팀장이었으며,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같은 부서에서 함께하게 되었다.

#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의 주요 논제 : 당사자성·변화·예술적 방법론

여는 글    김정이 | 비커밍컬렉티브 대표 ..... 017

## 서울을 바꾸는 예술 속 논의

① 당사자성 ..... 021

② 변화 ..... 025

③ 예술적 방법론 ..... 027

\* '3.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의 주요 논제'와 '4. 서울을 바꾸는 예술 안팎의 질문들'은 현장에서의 대화를 바탕으로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이 대화에는 지원사업 참여 예술가 및 기획자, 외부 전문가, 서울문화재단 담당 실무진 등이 참여하였다.





# 당사자성, 변화, 예술적 방법론 : 3개의 키워드가 부각된 배경 및 맥락

김정이 / 비커밍컬렉티브 대표

“다양한 유형의 문화예술지원 사업을 (정책이) 생각(구상)한다. 고로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이 존재한다…… 과연?”

문화예술 현장지원은 창작지원과 향유지원으로 구분되지만 문화정책이 문화민주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창작지원과 향유지원 모두 공공적(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예술이 우선적으로 선호된다.<sup>1</sup> 문화정책의 공공적 가치 추구는 지원시스템을 거치며 현장예술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공공적 가치 기반의 창작, 공공적 가치 기반의 문화예술교육, 커뮤니티 아트, 공공미술,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 등 다양한 이름의 문화예술지원 사업이 정책에 의해 생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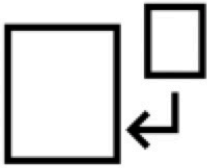
직전의 문화정책이 문화민주화를 채택하여 수월성 예술의 확산과 향유에 주력해오다 어느 순간 문화민주주의로 전환한 것인데 예술현장은 이 변화를 지원사업에서 경험하게 된다. 문화민주화에서 문화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의 변화에 대한 맥락적 이해가 어느 정도 필요하나 이를 충분히 설명하거나 이해시키는 역할은 거의 부재한 상황이다. 이는 정책과 예술현장 간의 격차를 만든다.

정책의지와 예술현장의 반응 사이의 격차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시 첫 문장을 인용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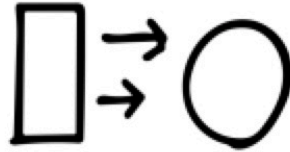
“다양한 유형의 문화예술지원 사업을 정책이 구상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문화예술 사업은 비슷한 형태로 수렴된다. 그것이 예술창작지원이든, 문화예술교육지원이든 간에 상관없이……” 미선정된 지원서들은 대부분 문화복지 서비스 기획을 담고 있다.

1 문재인 정부는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제시한 바 있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 중요성, 필요성의 증대 속에서 발의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은 사회적 가치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에는 공공, 공동체, 공익, 가치 등의 개념이 혼재·함축되어 있어 그 의미가 모호하다. 더군다나 사회적 가치의 정의에 포함된 공공, 공동체, 공익, 가치 등은 추상성이 높고 다의성을 지닌 개념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 (사회적 가치와 공공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19)

‘서울을 바꾸는 예술’ 지원사업은 예술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보다 분명하게 요구한 사업이다. 그간 대부분의 지원 사업은 예술창작과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혹은 커뮤니티 활동 강화의 형태처럼 일종의 예술주체의 행위 강화와 증대를 지원의 중심에 두었다(그림 1)<sup>2</sup>. 그런데 ‘서바예’ 사업은 ‘바꾸는’ 예술 행위주체를 호명한 셈이다(그림 2).



<그림 1> 주체의 행위 강화와 증대



<그림 2> ‘바꾸는’ 예술 행위 주체 호명

다른 지원 사업이 창작과 교육, 생활문화, 콘텐츠 제작, 서비스 기획 등 다양한 행위 주체들을 나누는 방향으로 사업이 설계되어 동일한 집단 내 ‘누구를(Who)’ 지원할 것인가?였다면, ‘서바예’ 사업은 ‘바꾸는’ 예술 행위에 초점을 두고 설계되어 ‘바꾸는’ 기획의 내용이 타당하다면 누구라도 참여가능한 구조로 설계된 셈이다. 누구나 참여가능한 구조라는 사업 설계의 차별점으로 인해 ‘서바예’ 사업은 심사, 운영, 평가 등 전 과정에서 격렬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주된 쟁점이 된 키워드는 첫째, ‘당사자성’, 둘째, ‘바꾸는(변화)’, 셋째, ‘예술적 방법론’이다.

**당사자성.** 심사처럼 평가자의 역할로 지원서를 검토할 경우 ‘바꾸는’ 행위의 공공적(사회적) 가치는 ‘당사자성’의 여부로 드러난다. 예를 들자면 빵을 나눠 줌으로써 배고픈 상황을 멈추게 하려는 ‘바꾸는’ 행위 기획이 있다고 치자. 먼저 내가 제과제빵기술이 있고 주변 배고픈 사람들을 붙잡히 여겨 빵을 나눠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또 다른 경우 빵 혹은 배고픔과 관련된 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께 빵을 만들어 가면서 생성되는 관계를 통해 향후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빵을 나누는 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주체와 객체로 관계는 분리되어 있다. 탈락되는 많은 기획서들 대부분은 이렇하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당사자로서 나와 타인이 마주친다. 나와 타인 사이에는 당사자성이 존재한다. 그것은 배고픔과 관련된 당파성이다.

2 문화예술 교육지원에 있어서도 예술주체의 문화예술 교육 콘텐츠 기획 및 개발 역량 강화에 중심을 둔다.

국어사전에 당사자는 “어떤 일이나 사건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관계한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영어에서 당사자를 뜻하는 단어는 ‘party’이며, 흔히 ‘parties concerned’나 ‘parties involved’와 같이 표현된다.<sup>3</sup> 당사자성은 관계론에 입각한 당파성(partisanship)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가 해당 사안에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함께 연대하고 공공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성질이 되는 것이다.

**변화=바꾸는.** 문화복지와 서비스 제공 차원의 변화는 매우 단기적이다. 빵을 주면 일시적으로 배고픔은 사라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배고픈 상태가 된다. 반면 상호 당사자성을 기반으로 생성된 관계는 변화의 지속가능성을 만들어낸다.

공공적(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기획에서는 변화되기 전과 후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야말로 예술적 상상력의 영역이 될 수 있다. 한마디로 내가 제안하는 것 그 자체가 예술적 상상력인 것이 아니라 제안을 통해 변화하는 그 지점에 예술적 상상력이 쓰여야 한다.

바꾸고자 한 부분이 무엇이고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얼마나 바뀌거나 영향력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 평가를 외부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에서 하고자 한 바대로 변화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술적 방법론.** 당사자성에 기반해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활동은 예술활동이 거의 유일하다. 예술활동이 참조할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예술활동의 고유한 가치가 발생한다. 4차 산업혁명처럼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그 기술들을 활용한다고 해도 기술은 예술의 목적과 표현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진 않는다. 어찌보면 예술적 방법론 그 자체의 독자성이야말로 서울을 바꾸는 예술 지원사업에서 원하는 행위의 목적이기도 하다. 창작이나 교육이나, 기획자나 연구자나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 ‘서울을 바꾸는 예술 지원 사업’은 그 누구라도 예술적 방법론으로 서울을 바꾸고자 한다면 그 자체가 왜 ‘예술’이 아니겠는가, 하는 태도를 취한 셈이다.

‘서울을 바꾸는 예술’ 지원사업은 다양한 유형의 문화예술지원 정책의 구상에도 불구하고 예술현장은 점점 더 예술적 방법론의 다양성을 잃어 가는 상황에서 관 주도의 지원사업에 대한

---

3 출처: 김도현 “당사자와 당파성, 그리고 관계론”. 경향신문, 2020.11.07  
<https://url.kr/9wju5o>

질문 던지기와 무엇이 예술현장의 생동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에 대한 탐구의 여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의 결과로 ‘서울을 바꾸는 예술’ 지원사업이 발견한 지점은 첫째, 예술이 추구해야 할 공공적(사회적) 가치에 있어 당파성으로서의 당사자성의 획득, 둘째, 변화에 대한 예술적 상상력의 필요, 셋째 고유의 예술적 방법론 생성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예술가의 결합으로 요약할 수 있을 듯하다.

## 김정어

손재주 없는 뚱손이다. 어느날 금손들과 친해지면서 뚱손의 불편함이 싹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 뒤 살아가는 이치를 터득한다. 하늘의 보살핌인지 천만다행 다양한 금손들과 친하다.

금손들은 주로 자기 영역의 전문적인 일을 한다. 나는 금손들을 엮어 일한다. 일이 곧 배움이다. 일할 때마다 설레고 신난다.

# 서울을 바꾸는 예술 속 논의

## ① 당사자성

### 예술가·기획자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의 워크숍에서도 당사자성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나눴어요. 하지만 당사자만이 그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고 봐요. 당사자가 아니기에 볼 수 있는 시각들을 담아낼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전에는 객관화를 추구하면서 의도적으로 뺐던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이번에는 좀 더 담아내려 해요. 더 힘이 있는 이야기들이 될 수 있도록 말이예요. 다만 이 작업을 마주하는 누군가에게 다시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2020 선정단체 인터뷰

당사자성을 교육과 좀 더 연관시켜 보자면, 당사자성에 대한 고민도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제가 작가나 연출자, 감독으로서 당사자들, 퍼포머(performer), 배우들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외에 어떤 다른 포지셔닝(positioning)이 가능할지 긴 시간 동안 고민이 있었어요. 지금은 작가나 예술가로서가 아니라, 예술가 대 당사자 같은 구도가 아니라 동료로서 만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각자의 고유성과 내면을 가지고 다가가는, 같은 과정을 밟아 가는 동료로서 만나고 싶다는 게 지금의 생각인 듯합니다.

2020 player 워크숍

‘당사자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몇 가지를 좀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로 저는 ‘당사자성’을 드러내고 활동을 해왔어요. 소수자 정체성을 밝히면서 ‘저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같이 열변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늘 작업을 해 왔는데요. 당사자들을 모을 때마다 당사자 예술에 관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당사자 상황을 가지지 않은 당사자 예술도 당사자 이슈에 대해서 예술을 하는 당사자 예술인데, 그렇다고 당사자가 당사자의 이야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 예술이 아닌가? 즉 당사자와 예술의 관계에 대해 계속 혼자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당사자의 여부에 따라서 재현의 문제라기보다는 당사자 예술에 대한 어떤 범주화? 범주화라기보다는 그냥 당사자 예술이라는 키워드가 던져졌을 때 제 안에도 굉장히 모순 지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으로 가져왔고요. 두 번째로 당사자들을 모을 때 모집 과정에서의 안전의 문제가 있어요. 소수자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을 할 때, 자신의 소수자성, 정체성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고 활동 기간뿐만 아니라 바깥에서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당사자들을 모으는 기획의 과정 혹은 비당사자인

기획자가 당사자 집단의 연대를 요청하는 과정 같은 경우에 당사자의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들어 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2020 player 워크숍

저는 당사자와 관찰자를 구분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인위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모두 다 100퍼센트 당사자이고, 100퍼센트의 당사자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으로 볼 수 있기에 각자가 각자의 퍼센티지(percentage)를 갖는 발화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로 두어야 하는 것 같아요. 발화하고 예술하는 건 자유고 '당사자성'에 대한 것은 해석의 영역으로 미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가 '당사자성'을 몇 퍼센트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냈는지는 해석하고 평론할 때 반영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2020 player 워크숍

지역에 대한 여러 질문과 고민을 당사자가 아니면 이야기할 수 없는가? 타인의 문제라고 구분을 하는 것 자체가 온전히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첫 시작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내가 그 마을 안에 있어서 마을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그 상황을 외부로 전달하고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상황에 있더라도 상황과 어느 정도 거리를 갖기 전에는 그 태도를 보이기 어려워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흑인 커뮤니티의 많은 작업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거기에 백인 작가가 가서 그 커뮤니티와 지역과 관련된 작업을 할 때 너무나 또렷하게 이 커뮤니티에 속하는 사람과 속하지 않은 사람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옳으나 옳지 않으나 하는 논쟁이 있었어요. 한편으로 어떤 미술 신에서 흑인 작가들이 자신의 흑인이라는 정체성을 상품화해서 그것을 작업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당사자든 아니든 그 지역 사는 사람이든 아니든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2020 player 워크숍

저는 제 작업의 결과물의 성취도나 제 욕구를 이루었다는 지점들 그리고 같이 연대하는 당사자들과의 만족도 같은 것은 '당사자성'의 여부보다는 내가 어떠한 것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어떻게 보여 줄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통해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속해 있는 집단 내 당사자들과 작업을 하지만, 당사자들과 빼격대는 지점들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해요. 우리가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내게 이 모든 사람은 타인이고, 이 모든 사람에게 저는 타인이거든요. 당사자끼리도 이렇게 빼격대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사람들과 어떻게 연대를 할 것인가를 사전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어떻게 보여 줄 것인가에 목표를 얼마나 촘촘하게 설계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당사자성'의 여부보다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설계에 좀 더 무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0 player 워크숍

우리가 '당사자성'이란 용어를 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내 어느 지점을 건드려 연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순간 '당사자성'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술가가 할 수도 있고, 활동가가 할 수도 있고. 평범한 누군가가 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 어떤 예술가가 정말 너무나 좋은 예술작품이라고 칭송을 받는다면 그게 어떤 지속성이나 확장성 면에서 탁월하고 그런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것이 예술적인 연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당사자성'이라는 게 자꾸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것이 예전 과거 몇 년 전에는 소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공문서나 여러 정책 자료에 자주 등장했고 언젠가는 생태계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그랬잖아요. 그 자체가 우리 일상에 굉장히 선명한 공백으로 존재할 때, 그걸 자꾸만 페이지에 올리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2020 player 워크숍

사회에서 부여된 것들로 시작된 얘기가 아니라 어떤 개인의 감정ियो.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공통된 것을 다시 사회에 내보내는 방향성을 찾게 됐던 것 같아요. 당사자성은 어쩌면 사회에서 부여한 네이밍(naming)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회에서 부여된 것을 뺀다면 우리는 결국에 다 당사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당사자라는 것도 결국에는 사회문화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2020 player 워크숍

## 외부 전문가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 자체가 '사회적 예술'을 강력하게 전제하다 보니 당사자성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함과 동시에 너무 개인적인 것은 다루지 말아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 거 같아요. 그렇지만 가장 개인적인 것을 파야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얘기를 해 볼 수 있잖아요.

2020 player 워크숍

예술가들과 대화하다 보면 많은 예술가들이 결국에는 나의 얘기에서 많이들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마주하고 있는 나의 현실 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내 삶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부터 시작되는데 그게 내 안에 고여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밖으로 퍼져서 방향을 만들다가 어떻게 전환하는지가 무척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어떤 방향을 바꾸는 것들에 대해 어떻게 해오셨는지 그리고 지금의 단계들은 어디쯤에 있는지 그런 얘기들도 조금 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20 player 워크숍

사회적 예술의 대상화에 대한 비판들이 많아서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 당사자성이고,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당사자성보다는 그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결정권이라는 당사자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당사자죠. 그런데 스스로 자기 결정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신해서 어떤 일을 하고 그들이 좋은 미적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좋은 경험을 남기는 것에 대해 고민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미적 경험이라는 게 사람마다 달라서



자기 결정권에 약간 위반되는 일일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당사자성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2020 player 워크숍

저는 이게 왜 문화정책 영역에서 문제로 다루어졌냐고 생각을 하나면요. 일종의 공공예술이라는 영역에서 벽화작업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거기는 '당사자'도 없고 '당사자성'을 지닌 예술가도 없었던 것이 문제였어요. '당사자성'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예술가들이 서비스 개념으로 벽화를 그렸고 벽화는 마을 주민들의 '당사자성'도, 예술가의 '당사자성'도 없는 채로 일종의 배설행위 이후 똥처럼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공공예술 작업에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를 들어 커뮤니티 아트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게 예술가가 '당사자성'을 가지고 커뮤니티에 어떤 임팩트를 주고 떠나 버리면 그 커뮤니티 사람들이 받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냐는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저는 그게 되게 엉망인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 책임을 왜 그 예술가가 져야 하는지도 그렇고, 오히려 그 예술적 행위의 영향으로 인해서 무감각하고 그냥 살아가는 존재였던 마을 주민들에게 그 문제 제기로부터 뜨거운 논란이 생긴다거나, 담론과 차이와 균열들이 생긴다면 저는 그 예술가의 '당사자성'은 충분히 발휘했다고 보거든요. 작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칠레의 한 작가가 스웨덴의 한 마을에 가서 박물관을 만들었대요. 유튜브로 찾아보니 정말 척박한 시골 마을인데 거기에 박물관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 초대해서 개소식을 하고 불태워 버린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겠어요. 엄청 항의하면서 왜 그랬냐고 하는데, 박물관이 있다가 없어짐으로 인해 박물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그 작가의 의도였던 거죠. 그래서 이후에 마을 주민들이 박물관을 새로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마을의 몫이지 예술가의 몫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런 지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2020 player 워크숍

당사자성에 대해서는, 예술가가 환경적인 고통을 갖고 있어야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이 질문도 공감대라는 표현으로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사자성에는 공감대도 포함되거든요. 그 이슈를 얼마나 공감하고 내 문제로 느끼고 있는가?

2019 연말수다파티 포럼

## ② 변화

### 예술가·기획자

서울을 바꾸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가자들이 느끼는 일상에서의 자기 몸이 주는 낯설음은 분명한 것 같아요. 몸의 기록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처음 찍어 봐서 낯설고 당황해하다가 자기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깨닫고 나서 내 몸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충격적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자기의 몸을 낯설게 보고, 한 발 떨어져서 보고, 일상도 관찰자로서 보게 되는 계기를 얻은 것 같아요. 2020 선정단체 인터뷰

프로젝트도 방향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끊임없이 수정해 나가면서 구성원 개개인도 계속 변화하는 것을 서로가 느꼈어요. 어쩌면 이렇게 내부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게 서울을 바꾸는 예술이 원하는 사회적 변화의 시작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20 선정단체 인터뷰

‘서바예’는 쉬운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예술이 서울을 흥물스럽게 만드는 것 또한 엄밀히 말해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을 어떤 방향으로 바꿀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요. 변화의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합니다. ‘서바예’ 사업은 이, ‘어떻게’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위한 연습문제, 예술가들이 미리 풀어 보는 예제로서의 협의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을 사는 수많은 시민, 그들 각자의 서울은 저마다 모양이 다르고, 서울의 변화에 대한 기대는 서로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합일될 수 없는 ‘변화’에 대한 ‘상’을, 예술가들이 선행하여 상상해 보는 것. 상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작하는 것은 예술가의 일입니다. 짐작한 꼴을 바탕으로 생각이 닿는 데까지 밀어붙여 보는 것. 예술가의 실험을 바탕으로 ‘서울이 바뀐다’면을 짐작할 수 있다면 충분한 가치, 충분을 넘어서는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2020 선정단체 인터뷰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함께 한 시간은 짧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변화의 지점이나 깨달음을 소화해서 말로 표현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당시의 즉각적 후기보다 SNS 후기나 설문지에 쓰여 있는 말들은 훨씬 다양했거든요. 아마 저희가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보여 준 것이라면 참가자들은 그것을 천천히 자기 방식대로 받아들이고 소화하면서 비로소 자기관점화시키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이 어느 순간 어떤 방식으로 일상에서 발현된다면 정말 서울이 바뀌어 가는 거겠죠. 2020 선정단체 인터뷰

단서만 좀 제공해 줘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감각하지 못했던 것에서 감각하게 하는 그냥 그런 저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 정도 의도고 사람들이 막 변하거나 그런 것까진 기대 안 하고요.

2020 player 워크숍

## 외부 전문가

우리가 항상 본질적이고 근원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질문하는 것 중 하나가 ‘예술이 이 시대에 왜 있어야 하는가?’인데요. 그런 질문이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의 답을 내리기보다는 이 시대에 예술의 어떤 존재 가치를 예술가들이 스스로 자기 질문과 자기 철학적 관점을 가지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사업들을 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서울을 바꾸는 예술’에 가장 중요한 본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뭔가를 당장 우리가 서울을 바꾼다기보다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이 예술이 지금 이 시대 또는 동시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 그것들을 같이 질문하고 대답하고 찾아 나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이 ‘서울을 바꾸는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하는 게 제가 리뷰 예술가들과 대화를 하면서 스스로 질문하고 찾게 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0 사업 설명회

‘서울을 바꾸는 예술’은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을 바꾸는 그런 용기입니다. 실천과 용기, 생각만 해도 안 되고 굉장히 실천력을 가져야 하고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용기는 대부분 남들이 가는 길을 갈 때는 용기를 낼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길을 갈 때, 더듬거리면서 갈 때 비로소 용기가 필요한 거죠.

2020 사업 설명회

### ③ 예술적 방법론

#### 외부 전문가

'서울을 바꾸는 예술'에서 두 번째로 부족한 건 예술인 것 같아요. 눈을 씻고 찾아 봐도 예술이라는 것들을 찾아볼 수 없을 때가 정말 많은 거죠. 그래서 무엇이 예술이냐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해 줘야 되는데 그 예술이 너무 보편타당한 가치에 닿아 있어서 예술 같지 않고, 때로는 복지 같기도 하고, 뭔가 때로는 선한 캠페인 같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지나친 프로파간다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다 예술이 될 수 있지만, 무언가 고유성을 갖고 있는 목소리였으면 좋겠습니다.

2020 사업 설명회

백남준 선생이 “게임에 승리할 수 없으면 게임의 룰을 바꾸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컨템포러리(contemporary)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그거 같아요. 소수성이 있는 기존 예술의 형식에서의 수월성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술을 정하는 방식에서 용기를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20 player워크숍

예술적 방법론이 포함된다면 캠페인이지만 캠페인이 아닐 수도 있고 예술일 수도 있고 축제라고 볼 수도 있고, 저희는 그런 걸 원하는 거죠. 어느 특정한 주제나 방법을 두고 '이건 돼, 이건 안 돼'라고 '서울을 바꾸는 예술'에서 정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전형적인 캠페인 같은 프로파간다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면 뭐 충분히 재미있게, 유머러스하기도 하면서 어떤 부분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읽히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결국은 예술가들이 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 예술가들한테 바라는 것들도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2020 player워크숍

저는 '예술적 방법론'의 특성과 차이점은 건방짐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예술 신(scene)에 허용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들을 아직 잘 명확하게 자신 없어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를 들면 누군가 명확한 결과물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사실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는 관심이 없고 '예술적 방법론'이 표현되는 순간 그건 어떤 결과를 지향한다는 취지로 표출된 것인지가 관심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안 보이는 것들은 뭔가 되게 착해 보이고 평은 좋은데, 이게 예술적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2020 player워크숍



# 서울을 바꾸는 예술 안팎의 질문들

4-1. 왜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하는가? .....	031
4-2. 예술의 사회적 활동은 어떤 형태인가? .....	047
4-3. 예술의 사회적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	065
4-4.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서 변화나 성과란 무엇인가? .....	079
4-5.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어떻게 계속할 수 있는가? .....	097

\* '3.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의 주요 논제'와 '4. 서울을 바꾸는 예술 안팎의 질문들'은 현장에서의 대화를 바탕으로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이 대화에는 지원사업 참여 예술가 및 기획자, 외부 전문가, 서울문화재단 담당 실무진 등이 참여하였다.



## 4-1 / 왜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하는가?

<b>여는 글</b> 류성호   독립문화기획자 .....	031
<b>서울을 바꾸는 예술에서의 논의</b>	
① 어떻게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나 .....	037
② 사회적 이슈나 문제를 어떻게 활동의 맥락으로 연결하는가 .....	040
③ 예술이 사회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	042
④ 예술의 사회적 활동과 공공성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	043
⑤ 스스로에게는 어떤 질문을 하는가 .....	044





## 여는 글

류성효 / 독립문화기획자

홍콩에 있는 친구가 책을 출판했다며 선물처럼 보낸 것을 며칠 전에 받았다. 포장을 뜯고 책을 들춰보면서 벌써 10년 넘게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활동을 지켜보고 있는 친구들을 생각했다. 기획, 디자인, 영화, 음악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은 홍콩과 광저우를 잇는 고속철도 반대운동부터 시작해 마포포 커뮤니티 농장(Mapopo community farm 馬宝宝社区農場)을 지키는 시민행동, 홍콩의 어큐파이(occupy) 운동이었던 Occupy Central, 그리고 여러 매체를 통해 많이 알려진 노란우산혁명부터 최근의 보안법 반대집회에 이르는 짧지 않은 활동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홍콩 친구들과 인연이 시작된 곳은 부산이었다. 나는 부산의 자율적 독립문화 공간 운영자 중 한 명이었고, 그곳을 홍콩 친구들이 방문하면서 긴 인연이 시작되었다.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낯설지 않았던 홍콩 친구들은 공유했던 활동 사례에서 보여 준 강렬한 모습과 함께 홍콩의 현재를 살고 있는 고단한 청춘의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내가 애정하던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했다. 첫인상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던 이유를 빠르게 발견한 우리는 흥미와 호감을 가지고 서로의 삶과 환경과 활동을 볼 수 있는 여행을 제안하기도 하며 관계망 안에 있던 더 많은 예술가들의 현실과 조우했다.

홍콩을 비롯해 여러 나라의 친구들과 대화를 넓혀 가던 때 우리가 마주했던 큰 사건 중 하나는 일본 후쿠시마의 재앙이었다. 자연재해에 인제가 더해지며 무색무취의 공포가 일상을 위협하던 시기, 집회가 흔하지 않았던 일본 사회의 긴 침묵을 깨고 시민들이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우리는 일본의 집회 현장을 몇 차례 직접 방문하기도 하며 평범한 삶을 지켜 내기 위해 변화를 요구하던 시민들의 연대와 앞장서 있던 예술가들의 역할을 확인했다.

그리고 제안과 운영의 주요 주체였던 예술가 상당수가 여러 사회적 혜택에서 비껴나 있는 비주류 영역의 친구들이었다는 것도 알았다. 평소 기행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던 그들은 사실 적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기도 했는데 주류사회와는 다른 독특한 방법으로 각자의 현재를 긍정하는 가치와 기준을 설정하고 생활 속의 해프닝 형태로 그것을 드러내고 있었다. 마치 현실사회 안에서 생존을 위해 견디고 있던 사람들의 해방 욕구를 유쾌하게 드러내는 상징 투쟁처럼 말이다.

후쿠시마 사고는 주변 여러 나라의 반핵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그중 대만 활동이 규모나 결과에서 인상적이었다. 대만 반핵운동의 사회적 기반은 야당의 지지와 우호적인 시민사회

운동단체 중심이었는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 사회 전방위로 확대되는 변화가 뚜렷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에 예술가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다. 반핵음반이 제작되었고, 제4원전부지 인근에서 반핵을 외치는 음악 페스티벌이 열렸으며, 여러 아티스트들이 반핵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을 제작했다. 아주 다양한 문화상품이 만들어져 대만 사회 곳곳에서 퍼져 나가고 모금 활동도 진행되었다. 대만의 움직임은 주로 뉴스나 온라인을 통해 소식을 들었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지는 못했지만 이후 다른 목적으로 여행을 갔을 때 몇 년이 지났음에도 도시 곳곳에 흔하게 걸려 있던 반핵 깃발과 몇몇 친구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당시 활동가들의 제안이 얼마나 촘촘히 사회에 스며들었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방문 당시 대만 사회를 관통하던 이슈였던 동성혼과 관련된 시민활동에서도 예술가들을 볼 수 있었다. 대만의 퀴어 정치는 양안관계와도 얽혀 있는데 민진당과 젊은 세대 대부분이 성소수자 인권과 동성혼 제도화를 지지하면서 친중 세력과 스스로를 분리시켜 동시대의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서 대만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예술은 얼핏 선전의 장치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퀴어 문제와 연결된 맥락으로서 장애인, 이주민, 싱글맘, 노인, 청년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 이슈가 동시에 언급되고 있었고, 각자가 체감한 부분을 가지고 발언의 당위성과 확장된 연대의지를 구체화시키는 예술적 실천으로 읽히기도 했다.

나는 지역 기반으로 활동을 하며 경험했던 부분과 여러 외부의 움직임을 연결해 관찰하고 제안하는 것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10여 년 전부터 틈틈이 여러 나라의 다양한 현장을 여행하고 당연한 의식처럼 활동가의 정체성을 가진 예술가들과 만남을 가졌다. 현장을 선택하는 기준은 관심 영역에서 인상적인 움직임이 발견되던 곳이 많았고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거나 검색을 통해 무작정 연락을 취해 보기도 하고 대책 없이 현장으로 찾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게 만났던 많은 예술가들은 서로 다른 환경에 있었음에도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애정하던 주변의 예술가들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의도한 사회운동으로서의 예술활동이라기보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성이 스며든 결과물로 작업을 세상에 드러냈다. 세상과 만난 작업들은 예술가가 담아낸 깊이만큼 사회 구성원들과의 교차점을 밀도 있게 형성하며 사람들을 엮어 내고 있었다. 예술가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관계는 공동체처럼 활동을 구성하는 단위가 되기도 했고, 정치적 구호가 중심이 된 상황보다 삶의 실체를 담고 있는 다양한 발언이나 현상, 상징으로서의 예술이 더해졌을 때 얼마나 풍성하고 촘촘하게 사회를 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었다.

최근 정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기회도 종종 얻으며 이전보다 주의 깊게 관련 요소를 살펴보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실천의 형태에 대한 질문이 생겼다.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모델이 가지고 있는 한계, 정책의 성과로 호명되는 전략적 맞춤형

문화예술 활동(또는 예술가, 기획자)의 작위성과 위선, 정책적 선택이 필요한 상황에서 번번이 예술이 덜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지는 주변화 양상 등을 생각해 봤을 때 결국 사람과 사회를 움직이는 예술의 사회적 실천은 실체가 잘 보이지 않는 거대 담론으로 수식되는 정책사업 중심이 아니라 개별적 필요에서 촉발되어 섬세하게 고유한 방법과 교감을 대상을 확인해 가는 활동 주축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 기관의 기획사업인 ‘서울을 바꾸는 예술’의 소중함을 느끼기도 했다.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은 참여하는 예술가들에게는 지나칠 만큼 번거로운 과정을 요구하는 사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럼에도 만남을 가졌을 때 예술가들과 나는 대화에서 주어진 과정을 긍정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사업이 예술가들의 가치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상대적으로 견고하게 장착하고 있고, 관계자로 참여한 분들의 태도에서 그것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경험삼아 여러 가지 일을 해 보고 있는데 쏟아지는 경험의 양과 빈도가 버거울 정도라서 개인적으로 정말 여유 없는 시간을 보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폭발하는 일에 함몰되어 방향과 의지가 무너지기 쉬운 상황에서 ‘예술’과 만나는 기회가 ‘서울을 바꾸는 예술’을 통해 주어졌다는 것, 내가 기획자로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서울을 바꾸는 예술’ 작가들이 작업을 통해 다시 상기시켜 주었다는 것이다.

나는 시키지 않은 일을 뜨겁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 보기 위한 방법으로 기획자의 삶을 선택했다. 전략이 아닌 삶으로 예술을 선택한 사람들과 저마다의 소중한 일상에서 건져 올린 작품과 가치를 지켜 가는 기반으로 사회를 말하고 싶었다. 때로는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 예술가 스스로가 예술을 방법으로 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 사회적 활동은 예술가들에 대한 보상과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불가결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쯤에서 나는 내가 받은 질문을 되돌려 주고 싶다.

어떻게 예술이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 류성호

류성호는 미술을 전공하고 전시기획으로 일을 시작했으며, 2003년부터 10년 가까이 부산의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와 독립문화공간 아지트 예술감독으로 활동을 했다. 이후 공연, 축제, 전시 등의 기획활동을 비롯해 리서치와 컨설팅 등의 활동을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진행 중이다. 최근 테이블에 앉아서 하는 일에 익숙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언젠가 사랑과 평화와 자유를 노래하는 페스티벌 감독이 되고 싶다는 꿈은 지켜 가고 있다.



# 서울을 바꾸는 예술에서의 논의

## ① 어떻게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나?

### 예술가·기획자

개인적으로 두 아이를 공동육아와 대안학교에서 키우다 보니 다양한 직업군의 비예술가들을 오래 만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탐구할 계기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겪는 사회적 혼란과 개인의 고립이 일어나는 도심 한복판에서 사람들과 내면의 뿌리부터 단단히 하는 작업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2019년에는 제가 개인의 집(생활공간)으로 들어가 '100일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어, 참가자들과 공동의 공간에서 확장된 프로젝트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2020 선정단체 인터뷰

인테리어를 업으로 하는 팀원과 설치미술작가인 저, 이렇게 두 사람이 2019년 '피소오브피스' 활동을 진행한 것이 국제평화상사의 모태라고 할 수 있어요. 두 사람 다 물질을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 반드시 자투리를 남기게 되더라고요. 자투리 자재는 누군가 사용해 주지 않으면 곧 쓰레기가 돼요. 특히나 인테리어는 시작단계부터 전에 있던 인테리어를 뜯어내고 폐기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잔뜩 만드는 것으로 출발하죠. 우리 모두 자의든 타의든 일종의 쓰레기 유발자였던 거예요.

환경 이슈에 대해 고민하던 와중에 지역에 거점을 두고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폐기물은 버리는 것도 돈이니까 돈 써 가며 버리지 말고 남이나 주자 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려 '자투리 잡화점'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사람들이 필요한 건 가져가고, 필요 없는 것은 가져오게 해서 선순환이 되도록 하는 형태를 구축했죠. '자투리 잡화점'의 경험을 통해 '서울아까워센터'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었습니다. 2020 선정단체 인터뷰

저에게 예술은 삶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들을 예술적 실천으로 수행하고자 한다는 것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죠. 직업인으로서 예술가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존중받으며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며 작업을 확장하고 있어요. 그런 삶의 태도를 작업에 담으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나의 문제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병으로 떠나 가신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했던 생각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챙기는 것으로 연결되었고, 우리의 상태와 안부를 묻는 데까지 이르게 된 거죠. 이러한 작업의 방향은 공동의 경험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게 해 주었어요. 나의 고민으로부터 시작하여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로 포괄하여 생각을

이어 가게 된 것이고요. 저의 주된 관심사는 삶과 죽음이에요.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거죠. 콜렉티브 데스티니(collective destiny)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우리는 운명적인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 지구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잘'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묻고, 그 방법을 찾고자 하는 저만의 태도가 작업이 된 것 같아요.

2020 선정단체 인터뷰

이전에 청년예술가들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를 많이 했어요. 단순하게는 주변에 있는 예술가들이 먹고사는 걱정을 항상 해요. 알고 지낸 예술가들이 다 작업을 잘하는 사람들인데 '왜 돈을 벌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일차적으로는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팀을 만들고 싶었어요. 동시에 이제까지 했던 활동은 무엇이고 나는 어떤 상태의 예술가였는지, 정리해 보고 싶었어요. 청년예술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의 사람이고 살아왔던 삶은 어떤 것인가 갈무리해 보는 게 목표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술가에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누군가의 전시장이나 공연장에 가면 대부분 지인 관객들이 와요. 예술가 간의 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어요. 어떤 실체라도 있어야 찾아오거나 관찰을 할 수 있는데, 안개처럼 뿌연 상태가 기저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러한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상(像)을 만들고 싶었어요.

2019 선정단체 인터뷰

런던에 살면서 원하는 집에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아니었어요. 이에 따라 집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특히 이민자이다 보니 완전히 정착한 상태가 아니라서 매번 '흔들리는' 거주 상태가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도시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자주 얘기했죠. 런던, 밴쿠버, 파리,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항상 '주거'가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20~30대 나이대가 겪는 불안정성과 주거정책의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되었죠. 분명 다른 대륙의 다른 도시인데,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모습이 흥미로웠어요.

도시가 개발되는 양태가 물리적으로 좁고 높아져요. 그 모습이 재미있지 않지만, 흥미롭다고는 생각했어요. 우리는 흔히 '건물주가 되자'라는 말을 하곤 해요. 그럼에 따라 모두가 건물주가 되고 싶은 이상한 사회가 되어 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혹은 나는 모두가 건물주가 되고자 하는 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냥 무기력하게 집과 관련된 사항들을 바라볼 건지, 아니면 모두가 건물주가 되어야 하는지 서로 다른 도시끼리 이야기하면 재미있지 않을까 했어요.

2019 선정단체 인터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화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루한 예술 영화들을 보다가 '내가 이걸 왜 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설명해 낼 수 없는 나의 문제들이 있는데, 어떤 작가가 영화라는 수단을 오락이 아닌 삶의 문제로 다루고 질문했던 작업을 봤을 때 누가 나에게 대해서 공감을 해 주는 것 같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가 전혀 모르는 북유럽의 감독이 공감해 주는 것 같다는 느낌에 매혹됐던 것 같아요. '이런 게 가능하구나' 하면서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공공성이라는 개념에서 필름을 만든다는 문제는 좀 고민해 봤던 것 같아요. 영화의 형식 및 영상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공동작업이에요. 기본적으로 나 혼자 할 수 없고 찍어 주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음악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얘기 할 대상자도 있어야 해요. 다큐멘터리를 찍든 극영화를 찍든 이미 그 형식에 공감했던 거죠. 이걸 공공예술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저의 바깥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데 매혹되어서 영화라는 장르를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언어적으로 잘 설명하긴 어렵지만요. 그런데 제가 다루고자 했던 문제는 저의 문제에 닿아 있었어요. 저는 지난 10년 정도를 해외에서 계속 이동하면서 다녔어요, 사람이 떠돌이 생활을 하면 견고하게 쌓아 왔던 세계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면 여기서 통하는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떠돌다 보니 다 그게 소용이 없어지고 무너지더라고요. 현인마을에 가니 무너진 세계의 버려진 존재들이 제 자신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나 싶기는 해요. 현인마을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좀 자기 독백적인 면도 있어요. 제가 느꼈던 감정들과 내가 다시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은 마음과 같이 공동관념들이 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제 안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외부세계랑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2020 player워크숍

## 외부 전문가

여러 가지 ‘복지’며, ‘착한 예술’ 이런 표현들이 나왔는데요. 그 표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발원된 예술철학에 기반한 행위이나를 자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착한 예술’이라는 것의 대부분 그 요청이 본인들에 의해서 먼저 발생되었다기보다는 그해야지만 왠지 지원신청에서 유리할 거 같고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환상 같은 것들이 만연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본인들의 예술철학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겠다는 메시지보다는,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을 이롭게 하겠다’라는, 즉 내가 빠지고 상대를 위해서 나는 이것을 하겠다는 메시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2020 사업 설명회

목적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지향하는 바에 목적지향적인 데가 있는 거죠. 태도는 그 상황주의적인 것에 가까운 거잖아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고 일단 수행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자기가 왜 했는지를 깨닫는 거요.

2020 player워크숍



## ② 사회적 이슈나 문제를 어떻게 활동의 맥락으로 연결하는가?

### 예술가·기획자

다 다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20~60대로 나는 것도 있었다. 실제로 갓난아기를 키우는 엄마와 장성한 자녀를 둔 엄마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사회'문제에 관한 이야기, 페미니즘 이야기는 더욱 그랬다. 지금 내가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인데, 이런 세상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한다. 나도 글을 쓸 때 어떤 사회적 이슈에 관해 관심을 갖고 분노를 표현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나에게 민감한 이 사안에 대해 다른 엄마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했다. 어떤 다름이 존재하는지 파악하고 싶었다. 특히 직업적으로 다 다른 상황. 직업 안에서의 성차별 양상이 전혀 다르기에. 어떤 직종은 성차별적 상황을 거의 겪지 않고 어느 직종은 일상적으로 무수히 성차별적 발언을 듣는 상황. 또 세대에 따라 자신이 이 주제와 거리가 멀다고 느끼기도 하고. 한 문제에 대해서도 다 다른 감도가 있음을 보여 주고 싶었다.

2020 선정단체 인터뷰

이제 막 관련 서적이 번역되어 나오고 있어서 비거니즘이라는 단어 자체가 낯선 분들도 많겠지만, 비거니즘은 소재라기보다는 세계관이나 태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거니즘' 자체를 직접적으로 예술에서 다뤘다고 표현하는 것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술에서 생태, 환경, 채식, 동물권 등의 주제는 오래전부터 다루어져 왔어요. 다만 좀 더 인간 중심으로 구성된 세계에 대한 경고와 전 지구적으로 재난의 징후들이 '인류세'라는 말로 등장했고, 문화예술에서도 최근 '인류세'라는 키워드가 자주 보이기도 했어요. 작년에도 인류세와 관련된 주제의 전시들이 한국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반갑기도 했지만, 미학 철학 담론으로서 주제에 등장한 것만이 아니라 전시를 만드는 과정은 어떤 반성적 질문들이 있었을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박물관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예전엔 계급사회에 인종차별이 너무 당연했던 때에는 사람을 전시하기도 했어요. 현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게 시각이나 재현물을 대하는 태도는 계속 질문하고 변해 가는 것으로 생각해요.

2019 선정단체 인터뷰

주제를 설정해 기획이나 작업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는 주제를 설정하고자 해서 설정한 적이 없어요. 실제로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하는 곳에 가서 보면 주제와 대상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그건 저희에게 어색한 방식이죠. 자연스럽게 쌓인 시간 안에서 새로운 접근 방법이나 주제가 필요할 때 프로그램 기획을 하거나 작품을 만드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주제를 설정한 적이 없는데, 설정을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면, 대상과 기획한 사람 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 중 한 부류를 설정해서 대상화하는 접근법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충분한 이해나 당사자와의 관계, 서로가 얼마만큼 비슷한 입장에 서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소수자에 있어서는 한 번도

만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주제로 설정한다고 해서 그것과 관련된 작업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저희에게 맞는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새로운 것을 한다는 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저희는 많은 시간 주변에 종종 장애가 있는 사람들, 사회적 소수자에 속하는 빈곤청년을 마주하게 됐어요. 장애인 혹은 다른 류의 소수자들과 함께 연대했던 경험이 최소 10년씩은 된 것 같아요. 이런 맥락에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어요. 갑자기 주제를 설정한 건 아니에요.

2019 선정단체 인터뷰

### 외부 전문가

‘예술가는 사회 이슈를 어떻게 정의하나요?’ 끝까지 정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답을 달아 봤죠. ‘사회 이슈를 정의하지 말고 자신의 이슈를 정의하자. 자신의 문제를 찾는 것이 곧 시작점일 것 같다.’

2019 연말수다파티 대담

### ③ 예술이 사회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 예술가·기획자

(질문) 헌인마을의 문제가 무엇인지 혹은 그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는지 등의 입장이 실제로 있을까요, 아니면 진짜로 입장 자체를 세울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부분일까요? 어떤 상태인가요?

(답변) 제시했던 말씀처럼 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은 처음부터 없었던 거 같아요. 실천 과정에서도 없었던 거 같고요. 다만 제가 이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달라요. 다른 작가님과 저도 좀 다르구요. 논의의 중심에는 ‘우리가 하는 행위가 무엇일까?’, ‘버스정류장을 만드는 게 미미한 효과일 것 같은데 아니면 이 정류장이 하는 역할의 의미는 뭔지?’ 이런 대화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대화의 지속은 어느 정도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의미 있는지 정확히 어떤 맥락에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요. 2020 player워크숍

#### 외부 전문가

저는 예술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또는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 또는 자기에 대한 존재감?

그 부분이 뚜렷해질수록 사회에서 예술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해요. 2020 사업 설명회

#### ④ 예술의 사회적 활동과 공공성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 예술가·기획자

저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과 연관이 있는 일들을 꽤 오랫동안 해 왔어요. 청소년 센터에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랑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공공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예술가와 예술 영역에서의 작업을 할 때는 오히려 공공성에 대한 감각을 떨어내려고 했어요. 대중이 원하는 것을 해 주는 서비스 같은 게 예술이나 공공성은 아니잖아요. 예술의 사회적 역할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대중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관점을 주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활동을 통해 지질학이라는 자연과학이 전문가들만의 학문이 아니라 시민들의 학문, 공공 즉 모두의 것이 되는 것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게 이번 작업의 공공성이 아닐까요.

2020 선정단체 인터뷰

저는 ‘현인마을’에 공공시설이나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들이 사라지고 파괴되는 상황 속에서 버려진 의자와 파라솔을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시던 버스 정류장을 마을의 가구 만드시는 분들과 버스 기사님, 마을의 손님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새로운 형태로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런 논의나 관계의 과정에서 마을에 계신 모든 분이 만족할 수 없는 미묘한 요구들이 더해지는 상황이 있었어요. 저는 마을 주민분들이 원하시고 필요한 것에 대해 묻고 답하고 ‘서울의 어느 공간이든 당연히 있을 법한 것들이 왜 여기는 존재하지 않고 왜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라는 질문에서부터 작업을 저 나름대로 끌고 갔지만, 버스정류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공공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버스정류장이라는 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이 충족되기 위한 요구들에 감정이 무거워지기도 하고요. 그 요구들을 발생시키고 발화하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 의미 있다고 믿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예술의 의미로서 공공성과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공공성을 필요로 하는 요구의 순간이 서로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계속 시소처럼 왔다 갔다 했던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20 player워크숍

##### 외부 전문가

우리는 n퍼센트의 ‘당사자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에서 이 논의를 일차적으로 매듭지을 가능성이 발견됐다고 생각해요. 어찌 됐든 저희가 한 작업이 ‘공공’이라는 것은요. 대상화하지 않기 위해서 한쪽의 ‘공’에는 제가 저의 관심 분야나 이슈로 당사자로서 들어가고, 다른 ‘공’에는 같이 협력하거나 같이 만나고자 하는 분이 들어가서 ‘공공’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어요.

2020 player워크숍

## ⑤ 스스로에게는 어떤 질문을 하는가?

### 예술가·기획자

예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작업을 하느라 자아가 비대해져 있는 상황일 수 있는데, 창작 작업이 아닌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꺾고, 자기 자리로 돌아왔을 때 시야가 달라져 있는 경험을 하는 거죠. 2019 선정단체 인터뷰

저도 창작자 또는 예술가라는 예술적 생태계 안에 속해 있잖아요. 그 안에 존재하는 여러 이해관계 속에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술적 창작 능력을 증명받아야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타자가 꺾고 있는 고통을 대상화해서 나의 어떤 표현을 문화 자본으로 쌓기 위한 행위의 의미를 매순간 고민하게 돼요. 그렇다고 어떤 정답을 제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요. 삶의 공간 안에 무언가 실천행위가 들어갈 때, 이게 의미 있을 것이란 막연한 감각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행위하는 게 문제를 해결한 행위보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계속 고민이 생기는 것 같아요. 2020 player 워크숍

‘창작자 개인이 다루는 주제가 다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주제 중에는 개인사도 굉장히 많고 드러내는 게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고민이 아닌 경우들이 더 많았던 거 같아요. 저 혼자만의 문제, 물론 그 내밀한 면까지 끄집어 가다 보면 다수와 같이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일 수도 있을 거 같지만요. 저는 이런 작업을 헌인마을에서 하면서 그 당사자의 어떤 문제에서 제가 관찰자일 수도 있고 외부자일 수도 있었잖아요. 혹은 그냥 창작자의 입장에서 다수에게 보편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질문이라든가 가지 있는 것을 내가, 자만일지 모르지만, 가지 있는 것을 끄집어 낼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많이 했는데 어쩌면 그곳에서 약간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어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2020 player 워크숍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같이 살아가는데 내가 내 문제에만 갇혀 있거나 나의 특정 정체성에만 갇혀 있으면, 내 안에 혼재된 수많은 정체성들을 다 무시하고 단어 하나로 나의 인생을 일축해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지점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충분히 혼자서 토해 내듯이 충분히 갖고 있으면서 점점 더 넓혀 가는 과정을 스스로 꺾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더 많은 친구를 얻을 수 있었고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더 주위를 바라보게 되었죠. 창작하든 기획을 하든 점점 더 넓혀서 보게 돼요. 어떻게 했을 때 더 많은 사람과 닿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코너를 돈다기보다는 더 멀리 보게 돼요. 2020 player 워크숍

이제 제가 어떤 의지를 갖고 실천을 했을 때 제가 마주치는 것은 저의 민낯인 것 같아요. 내면의 민낯에 있는 원망과 같은 감정들을 현장에서 계속 부딪쳐 가는 과정에서, 제가 갖게 되는 기준은 ‘내가 입장을 갖고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나 스스로 정당화하는 부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오는 것 같아요. 내가 반드시 선하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실천에 대한 말씀은 동의해요. 실천이 곧 윤리적인 것과 맞물려 있다는 부분까지는 동의가 되지만 실천 과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낯에 대한 정당성을 어디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 갖는 신념은 사실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이 항상 남아 있는 물음인 것 같아요.

2020 player 워크숍

당사자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으로 썼던 것들은 작업하면서 저만의 포지션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예요. 어떤 얘기에 달려 가거나 매료되기도 하고 열망하게 되거나 애착이 생기기도 하면서 수개월 동안의 작업 과정 내내 줄다리기 같은 밀고 당기기가 시작돼요. 또 그럴수록 예술가적인 뭔가가 발동돼서 어떤 예술적 언어, 예술가적 자의식을 가져와 ‘이거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좋은데’ 하는 것들을 계속 투여하면서 작업을 해야 했어요. 그게 몇 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애정을 쏟아서 이분들과 같이 작업을 하자고 했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폭력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저로서는 꼭 필요한 핵심 이야기가 이분들에게는 아직 준비가 안 됐거나 보여 주고 싶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제가 압박하게 되는 부분도 생겨요. 거기에 저의 예술가적 자의식과 애정이 섞여 묘하게 틀어지기도 하고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해요. 계획이 틀어져서 공연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좋은 게 나와서 확 괜찮아진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사람들과 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또 이 과정이 실패로 끝나면 안 된다는, 미적으로도 이분들에게 좋은 경험으로 남아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힘든 시간이었지만 나중에 이것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정의를 내린 것이 있다면 ‘아, 이게 어쩌면 내가 이분들의 정체성의 자원들을 가져와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어떤 열망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020 player 워크숍

## 외부 전문가

나와 너의 관계가 나와 우리의 관계가 될 수 있는지. 그게 비로소 사회에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그 상대방이 속해 있는 어떤 영역을 이해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해요. ‘나와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 평가, 영향, 계속 무언가를 줘야 되는 입장으로 생각했는데요. 저는 공감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를 설득하거나 이해시키지 않아도 활동이나 주제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지를 찾아낸다면 충분히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다음 단계가 예술일지, 디자인일지, 혹은 사업일지는 본인한테 스스로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2019 연말수다파티 대담



## 4-2 / 예술의 사회적 활동은 어떤 형태인가?

<b>여는 글</b> 최선영   유구리최실장 대표 .....	049
<b>서울을 바꾸는 예술에서의 논의</b>	
① 활동의 목적이나 목표가 사회를 향해야 하는가? .....	053
② 장르 중심의 예술과 예술의 사회적 활동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	054
③ 예술의 사회적 활동은 다원예술인가, 사회운동인가, 서비스인가, 교육인가, 캠페인인가, 아카이빙인가? .....	055
④ 예술적 리서치는 무엇인가? .....	057
⑤ 예술의 사회적 활동도 새로운 장르가 되는 것이 아닌가? .....	059
⑥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서 기대하는 예술은 어떤 모습인가? .....	060





# 여는 글

최선영 / 유구리최실장 대표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 ‘형태’에 대한 질문은 누구에게 왜 중요할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과연 예술가나 기획자가 활동의 방향성이나 의미보다 더 우선적으로 ‘형태’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될까?

아마도 어떤 활동을 시도하거나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그 활동을 하려는 이유를 바탕으로 그것과 연결될 수 있는 방식을 상상할 것이다. 그리고 그 상상이 구체화되면서 활동도 어떤 ‘형태’를 띠게 된다. 혹은 예술가나 기획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활동은 타인에 의해 구체적인 ‘형태’로 읽힐 수 있다. 그런데 이 ‘형태’는 기존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의되어 온 개념으로 해석될 때가 많다. 그래서 예술의 사회적 활동과 관련해서도 다원예술, 사회운동, 서비스, 교육, 캠페인, 복지, 아카이빙 등으로 그 형태가 개념화되어 ‘형태’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낮설지만 과정적 변화를 확장하는 방식’이라든지 ‘아직 이름이 없는 활동’이라든지 ‘사회운동과 유사한 요소가 있으나 정의하기에는 동시대 언어가 축적되지 않은 형태’ 등과 같이, 논의를 기다리는 해석은 ‘형태’로서 얘기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은 다시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 ‘형태’에 대한 질문이 누구에게 왜 중요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되돌아간다.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보다 분명한 ‘형태’로 해석하거나 구분함으로써 형태적 차별성을 찾고자 하는 입장에서 이 질문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서울을 바꾸는 예술’이라는 사업의 경우 행정주체 입장에서는 사업의 당위성, 지원의 필요성 등을 위해 기존 장르 중심의 예술지원사업과 이번 사업의 차이점을 고민해야 했다. 그래서 행정주체는 예술의 사회적 활동이 장르 중심의 예술과 형태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살피게 되었다. 또한 예술의 사회적 활동이 갖는 시대적 특성을 연구하거나 정리하기 위한 입장에서도 캠페인, 문화복지, 커뮤니티 아트 등 기존 개념과 예술의 사회적 활동의 차이를 찾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정책 차원에서 문화다양성, 문화도시, 공공예술, 도시재생, 문화예술교육, 생활문화, 문화안전망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확산되면서 이 사업들을 예술의 사회적 활동과 구분하기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 간 내용과 의미도 혼재되거나 결합되고 있어 예술의 사회적 활동과 오히려 매칭될 수 있는 개념이 구체화, 다양화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나 필요가 ‘형태’에 대한 질문을 더욱 활발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

이때, 예술의 사회적 활동이 기존의 다른 활동과 형태적으로 유사할 경우 ‘기존의 활동과

형태적으로 무엇이 다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예술가나 기획자 입장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기존의 활동과 형태적으로 왜 달라야 하는가'라고 반문하거나 '기존의 활동과 형태적으로 유사하다고 해서 활동의 맥락이나 의미도 비슷한 것은 아닌데 다른 논의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그래서 '예술의 사회적 활동은 어떤 형태인가'라는 질문은(특히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 내에서는) 이러한 형태 구분에 있어서 작동되는 여러 관점들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어떤 형태든 그 안에 있어야 할 예술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서 기대하는 예술은 어떤 모습인가'라는 질문은 답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구성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형태'보다도 예술에 대해 각자 지향하는 특성이나 의미, 가치 등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예술의 의미를 누군가는 사회와의 밀접한 상호작용 속에서 찾고자 하였고 누군가는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자기표현이라고 이야기했으며 누군가는 자기 질문과 자기 답변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각자의 예술론을 강조했다던 것은 그 안에 전제된 각자의 가치관이나 태도가 '형태'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혹은 '형태'에 대한 논의로 나아가기 전에 그것에 영향을 주는 예술 자체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느끼거나 스스로 더 많은 질문이나 주장을 시도하고자 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관점이 결국 '형태'의 유사성을 반복시키고 그에 대한 차별성도 묻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그 차별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예술의 사회적 활동이든 낯선 시도든 보다 공식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질문이 갖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음에도 굳이 '예술의 사회적 활동은 어떤 형태인가'라는 표현으로 대질문을 구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질문은 그 자체로 다양한 논의의 가능성을 포함하지는 못하지만 사실상 '형태'를 기준으로 인식되는 현실적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고민해 보자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 의도는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다.

당신이 하고 있는 활동이 누군가에게는 예술에 대한 해석의 범위를 넓히는 대신 다원예술, 사회운동, 서비스, 교육, 캠페인, 복지, 아카이빙 등으로 쉽게 해석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그건 예술을 몰라서 그래'라는 답변도 가능하겠지만 그렇다면 예술을 아는 사람들을 향해서만 하는 활동의 의미나 당위성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이 필요할지 함께 이야기해 볼 필요도 있다. 누군가만 알아볼 수 있는 예술의 매력이나 가치도 분명히 있지만 사회와의 상호성, 타인의

삶을 향하는 파급력 등을 전제로 한 활동의 경우 보다 현실적인 질문도 필요해 보인다.  
문득 예전에 사회문화 예술교육 관련 해외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일본의 한 단체 대표를 인터뷰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곳은 카페와 게스트하우스를 함께 운영하며 지역 사람들과 오랜시간 예술의 표현 언어를 바탕으로 소통해 오고 있었는데 그 대표는 조금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카페인 척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그 단체에게 중요한 것은 ‘카페’라는 형태가 아니라 ‘카페인 척하는 이유’, ‘카페여야만 하는 필요’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도 ‘형태’에 대한 질문은, ‘형태’를 중심으로 활동을 바라보려는 상황에 대한 확인과, 각자의 활동 의미를 살펴보는 과정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아닐까. 어떤 ‘형태’로 해석되기 좋은 상황, 그 ‘형태’로 해석되는 것에 대한 활동 주체의 생각, 어떻게 해석되든 자신이 그 활동을 하는 이유 등 ‘형태’를 둘러싼 여러 질문들이 더욱 솔직한 이야기들을 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최선영

세상을 구하려다 오지라퍼가 된 문화+예술+기획자.  
유구리의 기운을 받아 오지라퍼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2019, 2020년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에 심의 및 리뷰위원으로 참여하였다.



## 서울을 바꾸는 예술에서의 논의

### ① 활동의 목적이나 목표가 사회를 향해야 하는가?

#### 외부 전문가

작년 리뷰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사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였는데, 그게 끝에 나올 얘기가 아니거든요? 과정 속에 나와야 되는데, 사회라는 것 때문에 자기의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뒤로 물러서 있는 것 같아요. 2020 사업 설명회

지금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사회에 대입하면 내가 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상대방이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그것을 타자화하고 정의하려 해요. 그래서 생기는 반목과 간극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사회라는 어떤 틀을 계속 규정하고 이런 사회가 계속 무언가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또는 공공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계속 미디어를 통해서 하다 보니 ‘나는 그래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멀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2020 player 워크숍

## ② 장르 중심의 예술과 예술의 사회적 활동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예술가·기획자

내가 어떤 액션을 할 때 거기에 마음이 담겨 있고 영감의 문을 두드리는 장치가 있다면 계속 지금처럼 나의 것을 발산하며 활동하는 것을 예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편으로는 저에게 왜 개인전 안 하나냐 주변의 말들이 많아요. 저도 화이트 큐브(white cube)에서 열리는 개인전 좋아하고 하고 싶죠. 말하자면 기를 모아서 해야 하는 예술이 있고, 어떤 것들을 순발력 있게 표출하면서 해야 하는 예술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의 프로젝트는 후자죠. 서울을 바꾸는 예술은 이런 형태의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해 준다는 점이 좋았어요. 장르에 국한되지 않아서요. 만약 이게 전시 지원사업이었다면 예술가가 아닌 다른 멤버들을 설득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2020 선정단체 인터뷰

저는 창작지원사업과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 둘 다 지원했는데 둘 사이에 결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창작지원은 표현의 방법이나 형식에서 좀 다른, 기존 예술의 형식처럼 화이트 큐브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쪽으로 생각한다면, 이 ‘서바예’ 사업은 조금 더 수행적이고 참여적인 형식인 것 같아요. 또 사회적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시작한 작업들이 사회적인 부분과 의도치 않게 자주 접촉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조금 더 수행적인 작업인데요. 조금 더 사회적인 얘기니까 나 혼자 이렇게 내 작업의 조형성이나 이런 거 말고 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얘기, 또 나만 발화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얘기를 듣고 내 얘기도 그들에게 순환되면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구조, 내 작업이 아니라 같이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회적인 작업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구조는 창작지원하고 결이 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이 작업의 어떤 부산물들이 다시 화이트 큐브로 들어올 수는 있겠죠. 형제처럼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좀 다른 것 같아요.

2020 player 워크숍

### ③ 예술의 사회적 활동은 다원예술인가, 사회운동인가, 서비스인가, 교육인가, 캠페인인가, 아카이빙인가?

#### 예술가·기획자

사실 저는 사회적 예술을 해야지, 하고 해 본 적은 없고 사회적 타이틀을 달고 하는 지원사업도 처음이에요, 이런 경험도 처음이고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에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사실 뭐라고 써야 할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까 교육 얘기를 하셨는데 한번 어떤 작업을 했을 때 의도하지 않게 너무 교육적으로 귀결된 작업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이 작업에서 사람들을 너무 가르치려는 것 같은 이상한 죄책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잘 모르겠지만 이 작업은 뭔가 잘못됐다, 내가 뭔가 놓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면서 가르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2020 player 워크숍

#### 외부 전문가

저는 ‘서울을 바꾸는 예술’이 캠페인이나 프로파간다(propaganda)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 ‘서울을 바꾸는 예술’은 실천이에요. 작가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 스탠스는 실천의 두께가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2020 player 워크숍

많이 쌓여서 가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 한데 쌓기만 하기보다는 예술가가 나의 즐거움이나 내 흥미로서 아카이빙하는 것까지는 어쨌든 개인으로서의 작업이 되잖아요. 예술가로서 이 작업을 통해 나는 ‘세상과’ 아니면 ‘내 이웃과’, ‘몇 명’과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누구와 대화하는가?’,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가?’라고 했을 때, 확장성을 가지려면 작가로서 관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은 다들 느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2020 player 워크숍

무엇을 모을 것이냐, 그것을 모으는 데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냐, 그랬을 때 컬렉션(collection)이 아니고 셀렉션(selection)이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컬렉션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것을 계속 모아요. 그럼 그게 의도적 리서치냐 하면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모여 있는 것 자체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 모여 있는 무언가가 한 단어로 얘기하면 곁이 보이는 거죠. 그 어떤 곁이 과연 맞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게 시간과 양과 범위를 넘어서면 그건 곁이 아니고 완벽한 하나의 존재가 되는 거죠. 문제는 이제 완결된 상태가 아니라 모인 과정 전체가 시간과 내용과 볼륨의 어떤 하부여야 하고 그게 아카이브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았다’의 차원을 ‘아카이브’라고 너무 단어를 쉽게 쓰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키비스트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의도적 리서치라고 하는 부분에서 모으는 역할이 아니라 버리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모아 둔 것들에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에 초점이 맞춰졌을 때 과감히 나머지를 뒤로 밀어내고 앞에 있는 것을 갖고 더 구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술가가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2020 player 워크숍

### 서울문화재단 담당부서

2019년도에 제가 처음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을 담당자로 맡을 때 좀 당황스러웠던 점은 기존 창작지원 파트에서 사회적 이슈를 갖고 와서 작업하는 팀들의 작업과 ‘서울을 바꾸는 예술’ 작업의 차이점이 뭐지 물었을 때 명확하게 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축제팀에 있을 때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나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지원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팀들도 다 사회적 이슈를 가져와서 문제를 풀고 어떻게 영향을 줄까 노력하고 있는 팀이에요. 또 어떤 예술이 사회적인 문제를 갖고 오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차이를 어디서 잡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주목했던 건 임팩트였어요. 창작지원의 결과가 더 미학적인 결과를 얻는 데로 가는 거라면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은 그런 게 아니라 각 팀에서 목표하는 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그걸 기존 사회에서 쓰고 있는 용어와 방식을 빌려 오다 보니 임팩트라는 용어를 끌어오게 된 거죠.

2020 player 워크숍

#### ④ 예술적 리서치는 무엇인가?

##### 예술가·기획자

검증이 가능한 실증적인 연구의 리서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적인 질문을 던진다가나 엉뚱한 것이 매개가 되어 확장되는 리서치의 방식이 예술적 리서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의 미술관을 상상하는 과정 같은 것은 예술적 탐색 과정이었기에 가능한 상상이지 않았을까요. 전문분야의 연구 리서치였다면 제한적인 범주 안에서 깊게 관련된 연구자만 만났을 거예요. 하지만 예술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관점으로 연구자 및 창작자분들을 엮었어요. 토크에 예정되었던 연사들은 어떤 의미로 맞닿아 있지만 이런 예술적 기획의 틀이 없었다면 또 한 번에 만나기 어려운 다른 분야의 분들이잖아요. 문화예술이라는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는 리서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제가 했던 질문들도 정답이 없는 예술이란 범주 안에서 허용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2019 선정단체 인터뷰

예술가의 리서치는 수행의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행동이 되어야 하는 리서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술가가 왜 리서치를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사회학자가 바라보는 측면과 건축가가 바라보는 측면이 달라요. 다른 감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고, 리서치를 수용하는 타깃도 다양한 감각으로 느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예술가로서 ‘내가 뭘 하지’, ‘역량을 어떻게 발휘하지’라는 문제일 것 같아요. 예술가들이 하는 리서치는 보편적인 리서치는 아니어서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예술이라는 것이 수치로 나타내고 높은 음을 낸다고 좋은 노래가 아닌 것처럼 객관화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문제죠. 학계에도 이미 퍼포먼스 자체가 리서치가 되는 연구들이 존재하는데, 제대로 정의되지 못하거나 더 많은 사람에게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듯해요.

2019 선정단체 인터뷰

예술적 리서치는 연구자 정체성을 가지고 논문을 쓰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활동을 하면서 연구를 하는 활동가와 비슷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활동가는 현장에서 대상과 어떻게 거리를 둘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지 스스로 체화하고 만들어 내는 부분이 있어요. 예술가 역시 오랫동안 관계를 맺으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2019 선정단체 인터뷰

예술적 리서치는 수치나 정량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경험치인 것 같아요. 가령 예술산행을 담당했던 최성균은 코스나 이벤트를 기획할 때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어요. 그의 개인사가 객관적인 하나의 예술방식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2019 선정단체 인터뷰

## 외부 전문가

왜 우리에게 예술적 리서치가 필요한가 그리고 예술적 리서치는 왜 필요해야만 하고 성공적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어서예요. 예술적 리서치는 신뢰할 수 없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적으로 신뢰도가 있는 리서치 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예술적 리서치는 왜 필요한가. 그런 질문들에 접근해 가기 위한 과정 중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멤버들이랑 얘기를 할 때 예술적 리서치에 대해 ‘반복되는 빨jit’이라고 해요. 그냥 한번 객기 부리는 행동을 하면 그건 일회성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고정 값을 하나 두고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위치를 고정하거나 시기를 고정하거나 주제를 고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뭘 하나 고정한 다음에 그걸 계속 반복해 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치들을 쪽 모아 보는 거죠.

2019 연말수다파티 라운드테이블

## ⑤ 예술의 사회적 활동도 새로운 장르가 되는 것이 아닌가?

### 외부 전문가

사회적 예술, 사회 관계적 예술, 사회 지향적 예술 등 뭐라고 부르든 간에 ‘서울을 바꾸는 예술’은 ‘서울’과 ‘바꾸는’과 ‘예술’ 세 가지 방점이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제가 작년에 리뷰회의 몇 개에 참여해 보고 나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도 예술가이다 보니, 선정단체의 활동에 ‘예술적 에지(edge)’가 없다고 느껴지는 게 되게 서글펐어요. 지원금을 받는 활동이더라도 예술적 에지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건데 그 부분이 너무 없는 게 좀 안타까웠달까요. 두 번째로는 ‘바꾸는’ 틀들이 너무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공미술이나 커뮤니티 아트(community art)라고 일컫는 것들도 지원제도 안에 하나의 장르로 포함되면서, 다들 지원금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예술이 착해야 하고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대부분 유사한 방법론을 갖고 있어요. ‘예술이 이렇게 뭔가 유사한 방법론으로 다 이뤄질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정단체의 활동 대부분이 서울과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굳이 서울이 아니어도 되는 활동들이예요. 그런 문제점들을 워크숍에서 토론하면서 논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들은 결국 총체적으로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닿아 있는 것 같아요.

2020 player 워크숍

### 서울문화재단 담당부서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도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서울문화재단이 지원해야 하는 대상은, 혹은 대상의 기준은 무엇인가, 주체인지, 프로젝트인지, 임팩트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활동이 산출하는 결과로 설정해야 할지 문제였어요. 예술인의 삶과 작업에서 지속적인 예술의 사회적 활동이 보이는지, 제안된 프로젝트가 예술적이며 동시에 사회적인지를 기준으로 삼을지,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임팩트를 냈는지를 기준으로 할지 말이죠.

2020 player 워크숍

## ⑥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서 기대하는 예술은 어떤 모습인가?

### 예술가·기획자

개인적으로 예술을 통해 만들어 낼 수 있는 생경한 풍경은 우리에게 익숙해진 풍경과 그 풍경 뒤에 놓인 사회적인 맥락을 새롭게 바라보게 해 주는 것 같아요. 2019 선정단체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아름다움, 편안함, 즐거움, 문제의 해결과 같은 직접적인 효과를 넘어서 부분에 예술이 존재한다고 믿어요. 효용과 효과의 측면으로 측정될 수 없고 때로는 불편한 무언가가 만들어지더라도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미약한 방식으로밖에 기능할 수 없다 해도 저는 작업이 여전히 어떤 질문으로 남아 존재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다수에게 좋은 무언가가 되어야 하는 공공이라는 단어가 갖는 속성과 관습과 제도를 넘어서 질문으로써 예술이 서로 충돌하는 그 지점에 대해 종종 생각해 보았어요. 이 지점은 다양한 윤리적 문제와 갈등, 그리고 다수의 기대와 실패들을 불러오지만 결국 나를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사람(people), 사람이 살고 있는 장소(public space), 그리고 사람들의 삶(commune)에 관한 예술은, 결국 그것의 가능성 또한 실패가 일어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2019 선정단체 인터뷰

예술은 사회와 떼어 놓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사회적인 예술이라고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하는 것이 어색하기도 해요. 얼마큼 영향을 받고, 드러내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마치 예술을 위한 예술은 따로 있고, 사회를 위한 예술이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회적인 이슈를 얘기해야 하느냐는 의문점도 생기고요. 사회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든 하지 않든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2019 선정단체 인터뷰

예술이라는 것이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담아서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는 활동 자체를 예술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원들 개개인도 예술가가 아니지만, 팀으로 봤을 때는 예술인 거죠. 아마 단원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2019 선정단체 인터뷰

### 외부 전문가

저도 작년 사업을 최근까지 리뷰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현장의 사례들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스터디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었던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랬을 때 뭘 많이 배웠느냐고 하면 이러한 활동들의 특징 및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이 전혀 아니라 저런 개별적인 사람들이 있구나, 저렇게 미련하게 현재 자신에 집중하고 있는 질문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고집이 만들어 내는 현상이 굉장히 비언어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파급되는 데에 어려움은 있으나, 이렇게 강력하게 기억될 수 있구나, 그게

우리가 모호하지만 예술이라고 부르는 것의 큰 특성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몇몇 현장들을 만났는데 결국에는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고, 흥미롭고 기억에 남았던 작업들은 결국 그것을 끌고 갔던 한 명 혹은 서너 명의 사람들에 대한 저의 궁금함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2020 사업 설명회

‘서울을 바꾸는 예술’에서 예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올려 주신 어떤 공연이나 전시 등 보수적이거나, 내지는 전통적인 예술의 형태도 예술이 될 수 있죠. 또한 모임이나 세미나 이런 것들도 왜 예술로 보지 못하겠습니까. 그 예술이라는 것들에 대한 자기 질문과 자기 답변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고유성과 독창성, 새로운 의미가 창출되고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나 복지적인 측면 역시 왜 예술이 될 수 없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여러분께서 올려 주신 모든 접근성과 그 결과들이 기존의 것들과 너무 유사한 의미로 반복되면, 그건 예술이라 부를 수 없겠죠? 그냥 저희가 예술 얘기를 할 때 가장 흔한 클리셰라고 하는 말인 거죠. 계속 반복되는 의미를 재생산하게 되고, 그런 담론들이 고이게 된다면 사실은 ‘서울을 바꾸는 예술’에 지원할 의미도 없고 거기 선정될 의미도 없을 것 같아요.

2020 사업 설명회

정당성은 일종의 중요한 명분 같은 거죠. ‘내가 의식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예술을 하는 여러 그룹 중에서 한 팀은 특별히 자기의 일을 예술이라고 의식 안 해요. 자기가 하는 게 삶이어도 좋고, 예술이어도 좋고, 시(詩)여도 좋다는 거예요.

제 취향이지만. 저렇게 의식하지 않을 수 있을까. 거기에서 또 예술이 터져 나오는 것 같고요.

2020 player워크숍

이제 일반적인 범주에서 예술가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말 예술가가 맞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술인데 저게 예술이 맞나? 오히려 철학이 잘 갖춰지지 않고 무척 반복적으로 뭔가 생산하고 찍어내는 형태의 작업과 태도가 오히려 예술인 것 같은 한데, 저걸 우리가 예술이라고 이해를 해야 하나 이런 식의 생각이 들었고요.

2020 player워크숍

저는 ‘서울을 바꾸는 예술’을 해석할 때 접근성이라는 관점으로 개념을 모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시민에게 예술이라는 게 개념부터 너무 어렵잖아요. 예술에 큰 관심이 없는 시민들은 피카소 그림이 그냥 비싸서 좋은 그림이라는 정도만 알지 누군가 큐비즘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그들에게 피카소 그림을 관람한다는 것은 굉장히 배리어가 센 환경이에요. 화이트큐브도 그렇고 무용도 그렇죠. 현대 무용은 이상한 껍기도 하고 이러는데 동작 언어나 이런 것들을 알아도 즐거기가 어렵다고 볼 때, 어떻게 보면 예술이라는

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죠. 어제 발표된 예술가의 연평균 소득도 1,200만 원 안팎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환경이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배리어에 대한 접근성의 관점으로 우리가 본 적이 없어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서울을 바꾸는 예술’이라는 게 ‘사회적 예술’이라고도 표현되고 여러 이름으로 얘기는 되지만, 사실 각각의 사회적 기획에 있어 ‘배리어프리한 환경들을 어떻게 의도하고 있는가?’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배리어프리 관점에서의 접근이 잘 드러나는가?’, ‘누구에게 배리어가 있다 생각하고 그 환경을 프리하게 만드는지가 명시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봤고 거기서 기획자가 보는 접근성의 문제라든지, 예술의 접근성 문제라든지, 예술가가 보는 예술의 접근성의 문제가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가, 다른 태도들도 가능한가, 이것도 궁금해서 수다를 떨고 싶었거든요.

2019 연말수다파티 라운드테이블

### 서울문화재단 담당부서

저는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제도화된 예술 활동들, 특히 미술관이나 극장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회의감도 있었어요. 다만 이런 건 있더라고요. 직접 ‘바꾸는’ 예술에서는 윤리성과 당사자성, 이런 이슈가 더 중요하고 정치하게 다뤄져야 하는데 반해, 사실 제도화된 예술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미학적인 제도들이, 더 담대한 실험이 이뤄질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2020 player워크숍







### 4-3 / 예술의 사회적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b>여는 글</b> 박지선   프로듀서그룹 도트 PD .....	067
<b>서울을 바꾸는 예술에서의 논의</b>	
① 누구의 어떤 역할이 필요한가? .....	069
②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는가? .....	071
③ 활동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가? .....	073
④ 예술이 도구화가 되면 안 되나? .....	074
⑤ 윤리적인 태도가 필요한가? .....	077



## 여는 글

박지선 / 프로듀서그룹 도트 PD

‘서울을 바꾸는 예술’이라는 지원 사업명을 처음 마주했을 때 즉각적인 반응은 불편함이었다. 공공기관이 대놓고 예술을 도구화하고 있다는 생각과 더불어, 예술가들이 지원기관이 부여한 어떤 미션 아래 놓여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을 바꾸는 예술’의 지원대상이 되는 예술 활동 즉 ‘사회적 예술’이라는 말도 내게는 머릿속을 떠돌며 도저히 쉽게 소화되지 않았다. 여러 질문들이 쏟아졌다. 사회적이지 않은 예술활동이 있는가? 기존 창작지원사업과는 다른 범주의 사회적 예술활동은 무엇인가? 그것은 커뮤니티 예술, 예술교육, 생활예술과는 어떤 차별성을 갖는가? 동시대를 비추고 있는 무대 연극과 무용 등 공연예술작품은 사회적 예술이라 말할 수 없는가? ‘서울을 바꾸는 예술’의 모든 과정은 질문을 던지고 많은 예술가, 기획자, 행정가들이 함께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며 또 다른 질문을 생성하는 일이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이러한 시기에 예술의 역할은 무엇인가?’, ‘예술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등 그 어느 때보다 예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중요한 시기이다. 모든 것에 전환이 필요한 때로 더 이상 심미주의에 중심을 둔 예술의 미학적 가치만을 얘기할 수는 없다. 우리는 극장에서 현실을 연습하며, 예술은 행동이 되었다. 사회적 활동으로서의 예술의 역할과 가치가 가장 중요해지는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은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다. 어쩌면 더 이상 공공기관이 나서서 세상을 바꾸라는 깃발을 나무길 필요성이 없어졌을지 모른다. 지금 예술가들과 기획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예술의 역할과 전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

예술의 사회적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 질문은 예술의 사회적 활동 과정 속에서의 예술가, 기획자, 행정가의 역할에 대하여, 기존창작 중심에서 새롭게 상상할 수 있는 예술의 다양한 형식과 예술적 방법론에 대하여, 작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술가/기획자의 태도에 대한 모든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의 문장이 떠오른다. 21세기의 시작을 기념하며 내세운 베니스건축비엔날레의 주제 ‘덜 미학적인, 더 윤리적인(less aesthetics, more ethics)’이다. 이 주제는 도시사회학자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의 도시를 바라보는 철학에서 온 것으로, 미학적인 것에서 사회적 문제와 제도의 윤리적 측면으로의 전환, 완성의 중요성에서 과정의 중요성으로의 전환을 보여 주고 있다.

21세기의 5분의1을 지나온 지금,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얘기하면서 ‘미학에서 윤리로, 완성에서 과정으로’라는 것은 주목할 만한 논점이다. 사회에서 동떨어진 독립 개체로서의 예술 활동이 아닌

사회 구조와 제도 안에서 예술 활동에 대한 논의와 예술가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대화 방식과 구조 만들기에 대한 얘기가 필요한 때이다. 예술이 어떤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할 수 있지만, 문제를 인식하기 위한 질문을 던져 줄 수 있다. 사회를 직접 변화시키지는 못할 수 있지만, 변화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시발점을 마련해 줄 수 있다.

몇 년 전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경험한 축제 ‘알토 페스트’는 도시를 예술로 오염시키기 위해 축제를 열었다. 자본주의의 견고한 세상을 가장 사적인 공간(시민의 집)에 예술을 침투시킴으로 시스템의 균열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예술로 오염되는 도시를 만난다는 것, 얼마나 멋진 일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토 페스트’의 감독은 예술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으며 다만, 변화의 틈을 만들 뿐이라고 말한다. 많은 예술가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는 거창한 작업 이유를 앞세우지 않는다. ‘서울을 바꾸는 예술’에 참여한 예술가들도 마찬가지이다. 몇몇은 자칫 예술활동이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강요하는 교육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들은 기후변화, 성소수자, 도시, 청년실업, 노동, 동물권 등 사회 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예술을 사회적 예술이라는 단어에 가두어 두지 않으려 한다. 중요한 것은 주제가 아니다. 어떻게 질문을 던지고 대화하는가이다. ‘서울을 바꾸는 예술’은 때로는 지나치게 많은 질문을 던졌다. 컨설턴트, 리뷰위원, 예술가, 기획자, 행정가 등 ‘서울을 바꾸는 예술’과 관계를 맺은 우리 모두는 각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정의하고 자신을 검열하며, 예술을 도구화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며, 때로는 동시대 예술은 당연히 도구가 되어 있지 않은가에 대해 또다시 의심하며 질문에 질문을 거듭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서울을 바꾸는 예술’ 활동 안에서 동시대 예술, 예술가, 기획자의 역할과 태도를 사유하면서 결과중심이 아닌 과정의 가치가 드러나는 지원사업으로서 의미를 만들어 내었다. 나는 예술의 내재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 예술가와 기획자의 세상에 대한 명확한 질문이 예술과 만날 때 예술은 그 자체로서 세상과 가치 있는 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럴 때 결국 미학은 윤리와 하나가 되고, 과정은 완성이 되어 갈 수 있다

## 박지선

연극, 무용, 다원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 걸쳐 활동하는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로 축제, 레지던시 기획, 공연예술 작품 제작 및 국제 네트워크(아시아 프로듀서 플랫폼/APP)를 기획,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도시, 경제, 기술과 예술, 기후 변화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예술가와 새로운 탐험을 하며 예술의 동시대성을 탐구하고 있다.

## 서울을 바꾸는 예술에서의 논의

### ① 누구의 어떤 역할이 필요한가?

#### 예술가·기획자

작가의 세계관 속에 대중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중들이 잘 따라올 수 있는 환경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했어요. 작가는 자신의 세계를 과도하게 안내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그저 보여 주고 들어올 수 있도록 리드할 뿐이죠. 물론 이것이 행동적으로 리드한다는 것은 아니고, 작가의 시선을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분위기나 아우라를 만드는 것을 말해요. 그 속에서 전부 다른 자발적인 동기와 움직임이 생겨나는 것이고 또 다른 세계관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사회적 예술’이라고 했을 때 작가들이 할 수 있는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2020 선정단체 인터뷰

처음에는 우리의 얘기를 많이 담는 것이 어떤 면에서 의미를 가질지 고민했어요. 개인의 얘기가 모여서 사회가 된다고 할 때,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다르게 만나게 하는 것이 예술가의 역할인 것 같아요. 내 얘기와 같다고 느낄 때, 개인의 문제에서 우리의 문제로 확장되는 것 같아요. 이 공연의 내용이 몸의 어떤 부분에 남아서, 관객들이 집에 대해 생각할 때, 감각이 생각날 수 있는 변화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2019 선정단체 인터뷰

곁에 있는 사람을 지지하거나 어떤 문제를 대신 폭로해 주는 존재들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예술가가 아닐까 생각해요. 예술가란 아주 섬세하잖아요. 2020 player워크숍

보통 예술 프로젝트를 위해 기획자와 예술가가 한 6대4 또는 7대3이라면 ‘서울을 바꾸는 예술’은 조금 더 기획자라는 정체성이 강했던 것 같아요. 예술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했는데 그 문제를 예술 안에서만 풀지 않고 사회 전반의 문제 내에서 풀었으니까요.

2019 연말수다파티 라운드테이블

## 외부 전문가

저는 예술가가 아니라 기획자잖아요. 예술가와 대화하는 사람이고요. 계속해서 예술가에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고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는데,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 역시 '당사자성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사회적 임팩트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기관이나 지원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이것들이 계속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또 반대로 예술가들은 그런 측면을 좀 무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술가들이 너무 조심스러워지거나 검열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검열의 예를 들어 보자면 제 지인 한 명은 정말 훌륭한데도 본인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내가 해도 될까를 고민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자기 검열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옆에서 그만 조심스러워지라고 얘기하곤 하죠. 그런데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획자들 예술가들 사회 이슈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정말 많은 관점과 질문, 지나치게 많은 프레임들이 자꾸 만들어지면서 예술가 또는 이런 작업을 하는 분들이 하나의 프레임에 자꾸 맞추려고 하면서 자기 검열을 하다 보니 예술가가 가져야 하는 거침, 무모함, 예술가들이 논쟁을 던져야 하는 그런 자세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생각도 조금은 들어요. '서울을 바꾸는 예술'을 만드는 입장에서 지원을 만드는 쪽이 있는 한편, 리뷰위원으로 가면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 전체를 이해하고 있어도 어떤 작업을 봤을 때 이게 도구화됐다고 보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적절하다고 보는 분도 있고 각자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예술가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설명에는 설득력이 좀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설득력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세상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설득력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예술가의 뿌리 깊은 세계관과 철학에는 두 손을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구나, 하면서요. 2020 player 워크숍

예술가분들의 기획서를 제가 한 20년째 검토하고 있고 기획자 그룹들의 기획서도 보고 있는데 예술가 그룹들에서 제일 큰 예술가적 접근의 한계는 접근성을 굉장히 공급자 중심으로 풀어내시려는 경향들이에요. '내가 하니까 좋은 음악이니 들려주면 모두 다 행복해질거야'라는 굉장히 단순한 로직을 설계해요. 당연히 지원서에 그런 로직을 쓰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좋은 기획은 뭐냐, 아까 누군가가 49대 51 얘기했잖아요. 사실 지금 시대에 있어 '예술가냐, 기획자냐'라는 이분법, 마치 지킬앤하이드처럼 이 정체성이냐 저 정체성이냐 물을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태극 문양처럼 역동하고 에너지를 받아들이면서 이 에너지를 풀거나 다시 감아 휘몰아치는 정체성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2019 연말수다파티 라운드테이블

## ②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는가?

### 예술가·기획자

항상 이런 문제를 얘기했을 때 제가 느낀 점이 뭐냐면요.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활동결과에 대해 언제나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상을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 잡을 것인지, 예술을 즐기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잡을지, 아니면 예술 전문 집단과 상호작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항상 결과를 보면 비슷해요. 결국은 예술단체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활동하는가인데, 단체들에게 ‘그래서 누구와 상호작용을 할 건데?’라고 물으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요’라고 대답해요. 저는 그 부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2019 연말수다파티 라운드테이블

### 외부 전문가

뭔가 작업하는 데 있어서 이 작품을 볼 사람, 이 작업을 하고 같이 내가 대화하고자 하는 사람을 두고 창작할 때,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때, 이 작품을 볼 사람들이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 그런 고민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해요. 내 작업 안에 그들은 항상 어디에 있는지, 또 만났을 때 그 차이가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창작의 작품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물어봐요. ‘관객은 어디 있어?’ 물어보면 ‘관객?’ 이럴 때가 꽤 있어요.

2020 player 워크숍

질문이라기보다 예술가들하고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지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 보면 자신의 얘기, 내가 마주하고 있는 자기 현실,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관심 등이 작품에 드러나죠. 그 상태로 다음 작품을 또 하고요. 얘기를 하다 보면 간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예술가가 그런 건 아니지만요. 예를 들어 제가 누구와 대화하고 싶은 거냐고 항상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술가들은 그 질문을 되게 싫어해요. 내가 내 얘기를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누구랑 얘기할 필요가 뭐냐고요. 그런데 기획자들에게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아니면 자기 골방에 앉아서 하면 될 일이지. 그런데 꼭 사회적인 예술까지 가지 않아도 저는 동시대에 사는 모든 예술가가 극장에서 연극을 하든 무용을 하든 뭘 하든 대화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게 꼭 수천, 수만 명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우리 동네 10명과 대화하고 싶은데, 그게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의외로 내가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그다음에 내 얘기들을 사람들과 만나게 하려면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거나 고민을 잘 안 하시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작업하실 때 개인의 당사자성 아니면 개인의 경험으로부터 많이들 작업하시잖아요. 혹시 거기에 대해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시는지, 전환의 방식을 찾기 위한 다른 고민은 없는지, 이미 나 자신에게서 벗어나 확장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어요.

2020 player 워크숍



‘예술창작 결과물은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되나?’ 이거에 대해서는 굳이 전달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속 쌓아 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쌓아 갈 의지가 있는지, 그렇게 계속 쌓아 갈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그것은 누가 판단하지 않고 내가 판단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쌓아 가며 계속하는 것.

2019 연말수다파티 대담

### 서울문화재단 담당부서

저는 누구한테 말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은 신에 있는 작가들과 함께 논의해 보고 싶어서 그 작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저 같은 일반인들에게 어떤 이슈를 알려서 공동체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하고 싶어서 작업을 하는 건지요. 그렇다면 사실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하거든요. 특정 영상만으로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배경 설명이 없으면 그 영상을 봐도 ‘분위기가 좋구나. 되게 좋은 거 하셨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서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예술적 방법론의 한 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술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쉽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서울을 바꾸는 예술’에서는 다른 예술작품 작업과는 달라야 하는 점이 아닐지 생각이 들었어요.

2020 player 워크숍

### ③ 활동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가?

#### 예술가·기획자

사회적 예술에 대해서 제가 의식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과학하고 예술하고 협업하는 곳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PT를 하러 갔을 때, 한 과학자분이 제게 뼈아픈 질문 두 개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지금 하는 일이 과학의 대중화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제가 탁막해서 내가 뭐 하려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최종목표가 뭐냐?' 라고 하시는데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하는 대부분의 작업들은 사실 저도 모르고 시작해요. 그냥 하고 싶어서 시작하는데 그 의미를 한 5년 뒤에 알게 될 때도 있더라고요. 아예 모를 수도 있고요. 그래도 일단 하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목표나 의미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론을 쌓는 작업이 저는 좀 익숙하지가 않네요. 2020 player 워크숍

논리적인 건 예측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미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하신 추상성 속에 좀 놔두고 싶다는 그 표현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구체화될 때는 구체화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추상성에 놔두고 막 놓고 싶고 즐기고 싶고 그런 마음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이 자리에 우리가 '서울을 바꾸는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을 때, 예술적으로 접근하는 자기 방식의 특수성이라고 판단이 되죠. 2020 player 워크숍

현시점에서는 결과물을 예측할 수 없는데도 무리하게 예상 결과를 최대한 선명하게 미리 그리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의미들이 납작해진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초반에 저희가 다이나믹하게 상상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오히려 휘발되는 듯한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어제 많이 했습니다. 2020 player 워크숍

#### 외부 전문가

저는 모호함이 '서울을 바꾸는 예술'의 강점이라 생각해요. 예술가나 문화기획자로 재단되지 않는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건 해석의 다양성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라고요. 비록 제가 이 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았지만 이 사업을 좋게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해석의 다양성을 갖고 갈 수 있다는 점. 다만 이 사업에 지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해석을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석의 접점을 만들어 소통할 수 있는지가 궁금했던 거였어요.

2019 연말수다파티 라운드테이블

#### ④ 예술이 도구화가 되면 안 되나?

##### 예술가·기획자

예술을 단순히 발언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술 자체를 좋아해요. 그냥 한국인이 쓰는 언어가 한국어이듯이, 예술을 하는 저는 예술의 언어를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작업을 하면서는 예술이 도구가 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양하고 있어요. 예술이 수단이 되어 버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예술 자체의 고유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예술은 예술이 지닌 추상성과 사고의 확장 가능성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열린 사고로 반응할 수 있게 해 줘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쉽게 도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계속 점검하려 하죠. ‘서울을 바꾸는 예술’을 통해 다른 참가자들과 대화하며 문득 ‘예술을 도구화하면 왜 안 되나요?’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전에는 생각해 보지 않던 부분이어서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예술을 도구화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예술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인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되기도 했죠.

2020 선정단체 인터뷰

소그룹 워크숍에서 나눌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프로와 아마추어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 입장에서 ‘아, 우리는 예술을 분명 도구로 사용하는 무리는 맞아. 그러면 안 되는 건가? 이부분이 왜 자꾸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지? 예술을 도구로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지?’라는 지점에서 굉장히 물음표가 생겼죠. 저는 오히려 반대 입장에서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지 않고 ‘순수하게 예술로 접근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간혹 예전에 순수예술이 사회적으로 옳지 않게 이용된 사례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020 player 워크숍

어쩌면 ‘예술의 도구화’는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태도라는 걸 행정적으로 말하자면 예를 들어, ‘예술의 도구화’란 ‘요리할 때 칼을 썼어’와 똑같은 건데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의 가치관, 고마움, 존중이 배제됐을 때 ‘난 이용당했어’라는 기분을 느끼게 되고 너무 비참한 거죠. 왜냐하면 예술에는 어떤 가치로 환원되지 않고는 존중받을 수 없는 어떤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절대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환가치를 공유하는 부분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존중과 이해와 공감에 필요한데 그것이 많은 부분 무시되고 진행됐을 때는 ‘이용당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마 예술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로 그 태도의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 뒤에 나는 그 일을 ‘써먹겠다’, 아니면 ‘써먹는다’로 묘사하거나 아니면 ‘같이 했다’로 느끼거나 하는 그 차이에서 ‘도구로 써먹었다’와 ‘함께 만들어 가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느낌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2020 player 워크숍

저는 한 번도 예술을 도구화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기획자로서 예술은 저한테 완벽한 도구이자 재료이자 소스예요. 다만 아까 얘기하신 대로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 예술의 도구를 어디에 쓸 거냐고 하면 사용 목적, 아니면 예술보다 더 큰 틀에서 무엇으로 사용되는지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질 것 같고요. 사회적으로 어떤 예술에 쓰일 건지, 어떤 회사에 쓰일 건지, 어떤 사업에 쓰일 건지, 어떤 브랜드에 쓰일 건지 결이 참 다를 거 같아요. 또 누가 이걸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저는 예술을 창조하지 않기 때문에 늘 써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획자로서 가장 최근에 작업했던 『자아, 예술가, 엄마』라는 책도 제가 혼자 다 쓸 수 있었겠지만 그냥 ‘그래, 난 이렇게 생각해’ 하면서 썼을 책을 굳이 도구화해서 다른 작가들의 얘기와 글까지 다 넣은 이유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 내용이 다양한 관점에서 가치가 담길 바라고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취지로 가는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다만 여기서 전제조건으로 제가 가려고 하는 그 길에 참여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 분명하게 의사 표현을 해 주시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서로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부분이 참 필요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의도적이긴 했지만 저는 표지에 제 이름을 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만 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2020 player 워크숍

단어의 의미가 기획자나 예술가나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저마다 다를 거 같고 시대별로도 굉장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술을 수단으로 쓰지 마세요’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 곳 중 하나가 외교 쪽이랑 일할 때예요. 외교관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조수미 선생님을 불러다 노래를 시키거든요. 지금은 많이 관찮아졌지만 옛날에는 그런 행사 자리에서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노래 불렀단 말이지요. 예술이 정치의 시녀처럼 쓰이고 그랬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사실 지금도 있지만요. 그럴 때 ‘예술을 수단화하지 마세요’, ‘예술을 도구화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쓰는데요. 그것 역시 시대에 따라서는 더 옛날에 고전적 의미에서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왕실 같은 곳에서 지원받던 형태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또 완전히 다른 시대라서. 도구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냥 어떤 재료 아니면 뭘 하기 위한 예술일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예술가는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죠. ‘내가 수단화되고 있다. 도구화되고 있다’라고요.

2020 player 워크숍

오랜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발전시켜 왔던 예술적 도구들이 있는데 예술가라고 해서 그 도구들을 다 잘 다루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도구 속에 자기를 갈아 넣고 자기가 소멸되어 버리는, 예술이라는 함정에 빠지는 예술가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진정한 예술가는 예술적 도구들을 자기 삶의 이슈들에 훨씬 더 잘 활용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해요. 도구는 도구일 뿐이니 잘 활용하는 것이 예술가적인 태도에 더 맞지 않을까 하고요.

2020 player 워크숍

## 외부 전문가

‘예술의 도구화’에 대해서는 예술가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술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예술가가 아니고 기획자잖아요. ‘기획자가 예술가인가?’라고 한다면, 저희도 예술활동을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예술가와 창작을 같이하고 창작적인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같이 가요. 그런데 기획자들의 관점에서 어떤 것들을 설명할 때 예술가의 관점에서는 마치 예술을 갖다 쓰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020 player 워크숍

예술은 예술을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랜 시간의 생각과 가치관, 철학 그런 것까지 같이 묶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 없이 기술만 있거나, 방법론만 따르는 것이야말로 예술을 도구화하는 게 아닐까?

2020 player 워크숍

## ⑤ 윤리적인 태도가 필요한가?

### 예술가·기획자

우리가 제도권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타자화된 나의 외부세계의 문제를 대상화할 것이냐, 내가 독식할 거냐 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라는 것은 아닌데요. 다수에게 가치 있는 질문이 던져지느냐, 이 차이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작가 입장에서 다수에게 의미 있는 질문이 던져지면 굉장히 섬세하게 정제돼요. 삶의 층위(layer)가 너무 복잡해서 한번에 저인망(底引網) 방식으로 풀어서 던졌을 때, 도리어 새로운 폭력, 작가적 범죄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 있어 다수에게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는 기술인으로서 작가의 삶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고유성과 독창성보다 가치 있는 질문인가가 더 중요한 듯해요. 물론 대부분 독창성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알고리즘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2020 player 워크숍

### 외부 전문가

어떤 사람, 어떤 이슈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때 과연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먼저 보는 시간이 많았다면 그 관점이 더 파급력도 있고 다양한 층위를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은 내가 어디 있는지보다 내가 보고 있는 관점이 얼마나 전체적으로 올바른지를 이야기하는 분이 많았어요. 특히 이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의 경우는 사회적 이슈를 다루다 보니 더 많았어요. 심사 과정에서 어려웠던 건 심사 결과가 자칫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든가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로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심사평에도 썼는데요, 질문을 하면 자신이 이 이슈를 얼마나 오랫동안 생각했고 얼마나 진지한 사람인지만 답변을 주시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그 부분이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치면 모두가 진지하거든요. 자기 집 청소만 해도 진정성 있고 진지한 건데, 뭔가 몇 개의 카테고리 안에 사회적 이슈가 대두되다 보니, 그걸 다루는 게 더 정치적으로 올바른 사람 같기도 하잖아요. 그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것이면 더 그렇고요.

2020 player 워크숍



## 4-4 /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서 변화나 성과란 무엇인가?

### 좌담회

- ① 예술의 사회적 활동은 변화를 전제해야 하는가? ..... 081
- ②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 변화나 성과 측정과 관련해 어떤 논의를 할 수 있는가? 085
- ③ 예술의 사회적 활동의 성과나 변화에 대한 측정은 왜 어려운가? ..... 087
- ④ 예술의 사회적 활동 관련 변화나 성과 측정을 위해 어떤 시도를 해 볼 수 있는가?... 091
- ⑤ 의도성과 직접성을 갖지 않는 성과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093

\* 4. 서울을 바꾸는 예술 안팎의 질문들 중 4-4.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서 변화나 성과란 무엇인가? 부분은 집중 논의를 위해 기획 좌담회를 진행한 후 그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 좌담회

\* 답론집을 편집하면서 유독 예술의 사회적 활동 관련 변화나 성과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발견하였다. 변화나 성과에 대해 정량적 평가보다는 열린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은 많았다. 하지만 질문을 보다 쪼개어 살펴보니, 변화나 성과를 과연 전제해야 하는지, 예술가나 기획자가 변화를 자기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었는지, 예술과 성과 측정 사이에서 엇갈리는 요소들은 무엇인지 등 여러 논의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이 챕터는 기록 안에서 답변을 발췌하는 대신 좌담회를 추가로 기획하여 진행하였으며 그 내용을 토대로 답변을 재구성하였다. (편집자 주)

### 토론자

---

사회 : 최선영 (유구리최실장, 이하 최)

토론 : 김정이 (비커밍컬렉티브, 이하 김)

박지선 (프로듀서그룹 도트, 이하 박)

정지연 (MYSC, 이하 정)

허미호 (위누, 이하 허)

김진환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팀, 이하 환)

기록 : 오소진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팀)

일자 : 2021년 3월

**최 :** 오늘 논의와 관련해서, 2019년에 ‘서울을 바꾸는 예술’에서 임팩트 측정 지표 설계를 시도하기는 했지만, 그 개념을 중심에 두면 더 큰 논의로 가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변화나 성과를 중심에 두고 얘기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술의 사회적 활동이 사회적 변화를 전제로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정지연 연구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2019년도에 임팩트 측정 관련 ‘서울을 바꾸는 예술’ 참여 단체들을 살펴보고서 말씀 나누신 것을 바탕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① 예술의 사회적 활동은 변화를 전제해야 하는가?

**정 :** 비즈니스 관련 섹터 같은 경우는 사회적 변화를 전제해 놓고 커뮤니케이션을 좁혀 나가는 방식이었다면 ‘서울을 바꾸는 예술’ 같은 경우는 좀 달랐어요. 결론적으로는 사회문제에 대한 변화를 전제로 시작했던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았던 분들도 계셨죠. 오히려 중요했던 건 전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닌 다른 것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예술가분들이 사회적 변화를 전제로 활동하는지를 프로젝트의 시작 부분에서 판단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었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좀 자연스럽게 인지해 나가셨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임팩트와 관련해서 정리해 나가려는 목표 의식이 있었는데 그것 자체가 다른 사회 문제나 이슈에서 영감을 얻어서 예술활동으로 풀어 나가는 분들께서는 도움이 되는 접근방식이나 커뮤니케이션은 아니라는 것을 사실 중간중간에 느꼈어요. 다만 이 활동 자체가 문화예술 섹터 외에 있는 분들에게 전달되거나 공감을 일으키기 위해 소통하는 전개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이런 활동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 사회적 성과가 있었다, 임팩트가 있었다 자체로 보는 건 이분들의 활동 자체를 협소하게 보는 것이었고요. 다만 저는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 이 활동 자체가 개인적으로 어떤 유익을 얻거나 즐거움을 얻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공익적으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가 대중들에게는 더 이해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활동들이 결국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거나 알았으면 한다는 것에 방점이 찍혔거든요. 다만 객관적으로 아쉬웠던 건 예술가분들이 즐거움을 넘어서는 파급력이나 성과, 변화 등에 있어서 직접 구체적으로 고민하거나 설계하는 역할을 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예술가들은 주로 활동의 한가운데, 즉 코어에 있었고 저는 이 프로젝트가 끝나 갈 때쯤에 그 코어 그룹들의 활동을 보게 되었어요. 임팩트라는 게 필요하다면 혹은 변화에서 의도성을 가져야 된다면 감히 제3자 입장에서 그 코어에 계신 예술가분들에게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대중이나,

모든 이해관계자가 그 안에 들어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예술가분들이 나름대로 예술 활동을 통해 변화하거나 스스로 어떻게 해야겠다고 느끼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예술가들이 모두 다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려는 건 아니더라도 분명히 주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누가 받아서 잘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의 고민은 필요해 보여요.

사실은 유명 작가들의 책 같은 경우 작가가 처음에 누가 이 책을 읽고 이렇게 변화했으면 좋겠다고 모든 변화에 대해 의도하지는 않잖아요. 그 책이 특정 그룹들에게만 읽히면서 변화가 파생되지도 않고요. 이와 같이 어떤 활동이나 작품에 대한 의도성을 설계하지는 않았더라도 그것의 영향력을 타인이나 사회가 인지하는 순간, 전달되는 과정에서 달라지는 지점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 후반부에 좀 느껴졌어요. 프로젝트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역으로 자신이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등 다양한 반응을 직접 경험하면서 느낀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프로젝트의 중간 과정에서 마찰이나 새로운 인식 등이 수용되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박 :** 앞서 정지연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위대한 작품들의 경우는 책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겠지요. 사실 작가들이 내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거잖아요. 모든 예술가들이 작업에 있어서 ‘내가 사회를 변화시키겠어’라는 의도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의도가 작업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나는 이 소설을 써요, 연극을 해요’ 등으로 표현을 하지 않을 뿐이라고요. 예술가와 대화를 하면서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얘기들은 아주 사적인 문제부터 공적인 문제까지 이 세상과 관계된 여러 맥락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 얘기를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것보다 작은 변화의 계기나 사회의 공고한 틀 안에서의 작은 틈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고자 하는 의도가 보여요. 계속 그 변화의 작은 균열들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강한 의도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로 전제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파생되는 것이고, 예술가들 또한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의 기획자들의 역할 중 하나가 예술가들의 작업 속에서 파생되는 변화와 사회적 임팩트를 드러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허 :** 순수예술 자체를 이해하는 정도는 제가 여기 중에서 제일 낮을 것 같아요. 반대로 사회적

기업, 사회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에 대한 관심과 고민은 많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소셜벤처나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개인 및 단체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의도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그 변화가 더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첫 질문에서 사회적 변화를 전제로 해야 하는가 물어보셨는데, 역사적으로 방법이나 메시지, 혹은 관점에서든 변화를 가져왔을 때 좋은 예술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연한 상황에서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지만 모든 것이 우연에 달린 건 아니니까요. 특히 공공기관에서 사회적으로, 거시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려면 한 예술가의 특정한 단발성 프로젝트보다는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의도와 가능성을 가진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변화를 시도하는 건 무수히 많은 실패가 선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해 연도의 지원사업에서 실패했다라도 결국 '의도성'을 가진 예술가들은 다음 번, 혹은 몇 년 후에라도 그것을 근성 있게 시도하고 해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변화의 의도성,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진정성 내지는 근성이 있는 작가를 찾아내는 게, 좋은 프로젝트를 찾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질문으로 돌아가서 저는 예술의 사회적 활동이 변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사회적 변화를 전제로 하는 서울문화재단의 '서울을 바꾸는 예술'과 같은 프로젝트도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다만 여기서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변화'라는 단어보다 더 고민되었어요. 사람들이 사회적이라는 단어를 너무 크게 생각하고 부담을 갖게 되는데 조금 다른 관점이 주어진다면 마음이 달라지긴 하거든요. 저의 경우도 연세대 조한혜정 교수님께 '나를 포함 3명 이상이 되면 사회'라는 말을 듣고 프로젝트의 시작이 편해졌어요. 그들에게 변화를 만들어 내고, 그들에게 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면 그것이 사회 변화의 시작이라고요. 이렇게 기관이나 우리는 지속성을 가지고 자기의 의도를 계속해서 관철해 나가는 예술가의 프로젝트를 지원해 주되 예술가가 너무 부담을 갖지 않는 선에서 사회를 인지하고 변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환 :** 자기가 생각하는 특정한 예술이라는 게 보편적인 예술이라고 가정하는 예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계를 주더라고요. 원래 가장 자체로 돌아가서 '예술은 원래 이런 거니까 그 프로젝트도 그런 성과나 임팩트가 있을 것'이라는 식으로. 거기에 대해 측정을 하고 안 하고의 단순한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전제 자체에서 '예술은 원래 이런 거니까, 이번 예술도 이런 것이었으니 이런 성과가 났을 것'이라고 하는 결론으로 손쉽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나쁜 지점에 있어서 공공행정을 비롯하여 여러 성과중심적인 부분이 자꾸 그렇게 유도하는 측면도 있지만 예술계 역시 그런 전제를 두고 곧바로 임팩트가 날

거라고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대 도시 자체가 규모 면이나 복잡성 면에서 임팩트 산출이 어려운 게, 정지연 선생님이 앞서 말하신 블랙박스 얘기에서 보여 주신 대로 어떤 산출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블랙박스에 투입된 변수 때문인가를 판단하기 어려워요. 이건 예술만이 아니라 현대 도시의 어떤 주체들이건 간에 내가 한 투입에 대해서 어떤 경로로 파악하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예술활동에서 있어서 B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바로 그걸 A라는 투입의 결과라고 또 너무 손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 ②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 변화나 성과 측정과 관련해 어떤 논의를 할 수 있는가?

**김 :** 뭔가를 할 때 변화를 전제로 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늘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 궁금해하고 예술계가 잘 풀지 못하는, 그러나 풀고 싶어 하는 것은 발생한 변화에 대한 물질적 증명,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행정은 ‘투입된 것에 대한 산출을 예측하고 산출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를 사업설계 단계에서 설정했는가? 라는 질문이 필요한 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문화예술지원의 성과관리나 평가가 유효한가?’라는 질문에서 벗어나 실제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나서 적극적으로 성과관리나 평가의 방법론을 새롭게 혁신할 것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요. 왜냐하면 문화예술 지원금의 규모를 결정하는 예술계 외부의 정책결정권자들, 즉 국회 및 시, 도, 구의원, 시장, 기재부 공무원 등은 증명을 원하기 때문에 해당 질문의 유효성이 아닌 실제 필요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변화나 성과측정이 유효한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니라 유효한 성과측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문제인 셈입니다. 현재 예술지원에서 성과측정의 유효성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것은 뚜렷하게 임팩트 혹은 변화의 지점이 나타나지 않는 것과 더불어 지원을 받는 예술가나 단체들의 저항감이 크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보는데요. 저는 우리가 잘못된 자를 측정도구로 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면 올바른 측정도구는 뭔가 할 때 예술가나 단체마다 스스로 측정도구를 설정해서 들어와야 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예를 들면 난 키를 키울 거야, 나는 뱃살을 줄일 거야, 난 근력을 키울 거야 하는 목적에 따라 다른 측정도구를 쓰듯 예술가나 단체에 따라 그 제안하는 양상이나 접근방법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평가체계, 즉 측정도구는 늘 행정에서 제시한 잣대로 재고 있는 셈인 거죠. 키를 키웠는데, 자꾸 허리둘레를 재고 있는 셈이랄까요. 그러다 보니 서로 답답해져 버린 상태에 놓인 게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다음 문제는 그럼 예술가나 단체는 자기가 뭘 키우거나 줄이려고 하는지, 그래서 필요한 측정도구를 무엇으로 써야 하는지 정확히 자각하고 있을지인데요. 저는 이제 그 자각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부터 이 문제의 올바른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해당 논의가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환 :** 이제 마지막으로 측정이나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그래서 그 효과가 큰 것들을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라는 전제는 아니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회적 문제라는 것들 각각의 중요성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그것들에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플레이어들이 없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건 성과를 잘 내니까, 투입 대비 성과를 잘 재니까 계속 이걸 더 지원하고 더 지원하고 하는 것들이 어떤 사회적 문제 자체들은 사실 또 묻혀 버리게 만드는 케이스도 나올 수 있다고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마 이 성과지표 측정문제라는 건 예술의 사회적 활동 자체에 있어서는 어워드 방식 같은 것일 때 성과에 대해 띄워 주기 등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것뿐 아니라, 앞으로도 지원사업 방식 및 다른 것에 대한 피드백을 위한 구조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사회문제 자체도 이제 이 현대 대도시 단위에서는 대단히 복잡하잖아요. 문제정의 자체도 어려운 케이스인데 내가 정의했던 문제나 그에 따른 방법론으로 삼았던 것들이 맞는가 질문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측정에 관련된 것들, 평가와 관련된 것들은 앞으로 피드백하고 재점검하기 위한 쪽에서 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요.

### ③ 예술의 사회적 활동의 성과나 변화에 대한 측정은 왜 어려운가?

**정 :** 김정이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른 생각인데요. 가장 코어에서 설계하신 분들에게 뭔가 예술활동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켜야 되나,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 하는 담론들이 이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현장이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여요.

저는 2019년에 ‘서울을 바꾸는 예술’ 임팩트 지표개발 연구를 하면서 제3자가 예술가분들의 활동 결과물을 측정할 사회성과지표를 설계하기 전에 예술가와 함께 왜 사회성과 측정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해과정이 전제되어야 하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고 있고 왜 필요한가, 밖에서 사회에서 그런 담론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등의 프로세스가 설계가 되어야겠다. 이런 내용에 대해 예술가나 기획자도 공감하거나 자각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예술가들이 사회이슈에 대해서 어떤 임팩트를 고민하고, 설계할 수 있을지 이를 돕는 사고과정 프레임이나 프로세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회문제를 정의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과 프로세스는 이미 기존에 많이 개발되어 있지만 이 방식을 그대로 예술가분들에 적용하기에는 예술의 본질적 의미와 창의성을 제한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예술활동의 임팩트를 측정하는 과정이 예술가와 예술 생태계에도 긍정적인 유익을 주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예술가들이 행정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수동적인 객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성과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만들어 나가고 측정하는 단계에서 연구자, 제3의 행정기관 담당자, 예술가가 동등하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미와 모순에 대해 고민하고 반영해야 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고요. 수고롭지만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어야 예술가들이 진정으로 사회성과에 대해 이들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현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성과 측정을 위한 변화와 임팩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와 현장을 바꾸는 임팩트가 나타나는 방식이기도 해요.

2019년에 시도한 ‘서울을 바꾸는 예술’ 임팩트 지표개발 연구사업은 예술가가 생각하는 사회변화, 임팩트, 예술이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에 대해 예술가 스스로 어떤 입장인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어떤 방향이 맞을지 등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어려운 사업일정이었는데요. 예술의 특성을 많이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지만 진행하는 동안 예술가가 스스로 이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과정과 방식이 설계되어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혹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예술의 영향력에 대해 예술가들이 열어 놓고 고민하고 실행한 결과들을 추후 분석해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최 :** 얘기를 듣다 보니, 사회적 변화나 그것의 측정과 관련한 질문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얼마나 중요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편으로 이러한 질문은 현장에서 중요한 질문일까, 혹은 지원사업 차원에서 중요한 질문일까 하는 것도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작동된 질문인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작동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외면되는 것 아닐까 싶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질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있거나 언어가 잘 공유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 :** 임팩트 측정과 관련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광고 효과를 측정하는 분야에서 저희도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광고 효과를 측정할 때 ‘광고를 통해 매출을 얼마나 상승시켰는가’는 모호한 지표라고 해요. 중요한 부분 중에 ‘이 광고 메시지를 통해 제품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도와 선호도를 높였는가, 그래서 실제 행동을 불러 일으켰는가’라는 단계적으로 구체적인 지표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 예술가의 작품 혹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작가의 의도를 인지하고 선호를 갖고 있는지, 또한 SNS에서 좋아요나 공유 버튼을 눌러 주변에 알리는 행동을 했는지와 같이 앞단에서 구체적인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지표 개발을 예술가에게 요구하거나 같이하자고 하는 건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예술가들에게 부담이 될 거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프로젝트나 사업을 할 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편 그 지표를 만들어 내라고 압박을 받았을 때 힘들었거든요.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스스로 개발하고 맞는지 계속 검증해 나가는 게 굉장한 부담이었어요. 이 임팩트 지표가 만족할 만큼 나오지 않을 때는 프로젝트나 함께하는 멤버들에게 죄책감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3의 기관이나 지원기관에서 만들어 주고 프로젝트의 예술가들이 융통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구조였으면 합니다.

**최 :** 저희가 성과나 변화를 설계할 때 자신이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가, 그걸 알 수 있는가, 그걸 측정하는 지표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가 하는 논의로 가기 이전에 그걸 예술가나 기획자가 스스로 하는 데 현재 왜 어려움이 있는가 하는 얘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걸 허미호 대표님도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주변 예술가와 작업을 하다 보면, 저는 기획자 마인드가 좀 강한 것 같은데 누가 뭘 했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막 사회적인 변화를 어떻게 일궈 낼 수 있을 것 같고 누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시작하면 어떤 예술가는 ‘그런 건 난 몰라, 그냥 직관으로 느끼기 때문에 하는 거야’라고 답변하기도 해요. 그런 주제가 이런 거를 다 언어화하고 설명을 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이 예술가의 몫인가 하는 고민들도

있는데요. 지원사업 중심으로 돌아갔던 현실적인 상황들과 같이 연결 지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원사업의 경우는 주로 기금을 받아 정산을 하고 관객 수를 기입하고 기대효과에 맞춰 페이퍼를 써서 내면 되는 걸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예술가나 기획자가 성과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기는 어렵거든요. 현장의 어려움들, 고민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박:** 기금 지원서에서 보통 성과 및 기대효과를 작성하게 되잖아요. 사업을 통한 관객 모객의 수보다는, 프로젝트를 왜 하는지 등을 서술형으로 작성하죠. 예를 들어 작년에 진행했던 ‘기후변화 레지던시’ 같은 경우는 예술가로서 기후변화에 대한 예술적 활동 및 대응을 통해 아직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예술계에 기후변화를 인지시키고 인식과 활동을 확장시킨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성과를 공유하고자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지원 기관과 대화를 할 때는 이러한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성과로도 인정되지 않은 거죠. 중요한 것은 과정 중에 시민이 몇 명 참여했는가에 대한 정량적 수치뿐이에요. 성과라는 것은 결과 안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화들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 하는 과정에서 더 중요하게 드러날 수 있는데 성과 안에 과정을 얘기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왜 성과를 질문했는데, 과정을 대답하나요?’라는 질문을 수시로 받게 돼요. 성과는 하나의 결과로만 보이는 것이라는 인식을 기관과 현장에서도 가질 수밖에 없고, 결국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냥 단순하게 참여자 수와 같은 수를 나열하게 되는데, 성과를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그 숫자가 작을 수밖에 없고 성과 측정이 안 되어서 전문가들에게 다시 성과지표를 설계를 요청하게 되고 결국 성과에 대한 논의는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이러한 구조 안에서 서로가 발목을 잡고 잡히면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서로 신뢰도 하지 않고요. 내가 충분히 이것이 성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성과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계속 설득하는 데 있어서도 별로 애쓰고 싶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김:** 전 연구자와 예술현장 그리고 행정이 맞물려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거의 모든 지원사업이 연구자들에 의해 의미망 해석, 사업의 유형화 등 다양한 분석을 거치며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유형화되어 규정되는 것이 맞는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유형화를 통해 복잡해 보이는 사업이 명시적으로 간결해서 소통의 효율성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더불어 사업별 성과관리 차원에서 지표개발도 진행되는데 해당 지표들은 사업별로 연구자들에 의해 점수화되는 구조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즉 연구자들이 지원사업의 구조를 설계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셈인데도 불구하고 현장과의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해당 연구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제 생각에는 연구자와 현장, 행정의 고리를 연결해 내는 차원에서 새롭게 절차를 재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연구자들이 지표를 개발하면, 그 지표를 가지고 일종의 체크리스트처럼 기획서를 쓸 때부터 자신들의 직관을 명시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로 변화시키는 게 어떨까 합니다. 마치 문진표처럼 본인들이 본인의 작업들을 체크하고 그 체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성과나 평가의 카테고리나 기준들을 다르게 적용시켜 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허 :** 아마 김정이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걸 다 할 수 있는 작가나 단체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그 모든 것을 요구받는 건 부담이에요. 아예 시작도 안 할 만큼 되게 부담스러워요. 박지선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서로가 원하는 걸 공유하거나 아니면 몇 가지 사례로라도 제시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신 기후변화 작업의 경우, 이 프로젝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그 공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가라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그 작가들이 그 프로젝트를 통해 만들어 내는 임팩트는 1차원적이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행정기관이나 기관의 지표에서 원하는, 몇 명이 왔다가 갔다는 것보다 어떤 영향력을 가진 관람객 혹은 관계자들이 와서 2차적 효과를 내는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박 :** 아주 오래전 얘기이지만 성과지표 기준에 있어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단체에서 직접 작성해야 했는데, 축제에 얼마나 많은 해외 관광객이 왔는지 써야 했고, 그 숫자가 점수로 환산되어 나오는 거였죠. 축제 기간 내내 앉아서 셀 수도 없고요. 그리고 사실 애매하잖아요? 안 쓰면 점수가 안 나오고, 숫자를 써넣는다 해도 증빙이 안 되면 사실 점수화도 안 돼요. 그래서 한번은 그 칸을 완전히 무시하고, 해외 언론 노출 내용과 미래 축제 인지도 제고와 파급효과에 대한 내용을 서술형으로 구구절절 작성했거든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저희가 유일하게 만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평가위원들도 성과지표의 허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지표는 이후에도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공공기관에서 성과지표를 바꾸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증빙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구조를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생각하게 되었죠.

#### ④ 예술의 사회적 활동 관련 변화나 성과 측정을 위해 어떤 시도를 해 볼 수 있는가?

**박 :** 저는 성과지표를 매우 구체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구체화하지 않고 좀 넓게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해외 기관과 작업을 했을 때, 그 기관에서 성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한 가지거든요. 어떤 레거시를 남겼느냐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가 어떤 레거시를 만들어서 무엇을 남겼는가, 그래서 그게 향후에 어떤 작업으로,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하는 거죠. 넓게 ‘당신은 이 작업을 통해서 어떤 레거시를 남겼습니까?’라고 질문한다면 그 안에 쓸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당장 어떤 보이는 성과를 냈다기보다 이후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에 주목하는 거예요. 성과지표를 구체화하면 할수록 또 어떤 틀에 갇히게 돼요. 폭넓게 얘기하면서도, 이걸 좀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야 하는가 등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연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 :** 그래서 다른 분야의 특히 지원사업 이야기를 하면 성과지표, 평가지표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서울을 바꾸는 예술’ 관련 성과지표 논의로만 집중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어떤 질문이 필요할까 이런 고민이 되기는 하네요. 저는 예술가나 기획자 입장에서는, 만약 구체적이거나 이상적인 성과지표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게 1년 단위로 알 수가 없거나 측정할 수조차 없는 것도 있고 그때는 맞았으나 지금은 틀린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작업을 통해 생겨난 관계로 인해 나중에 뭔가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 작업에서는 매우 중요한데 일반적인 성과지표 안에서 논의되기가 어려운 거 같아요. 한편으로는 성과지표라든지, 성과 등을 얘기하는 안에서 ‘의도성’이 전제되어 보여요. 사회적 변화라는 게 굉장한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의도성이 계획성을 전제로 한 의도성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좀 들어요. 예술가들은 특히 우연성이라든지 즉흥성 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술가, 기획자가 의도하지 않은 변화나 성과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싶거든요.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가 이전에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처음에 ‘서울을 바꾸는 예술’도 ‘어떤 변화를 의도하십니까’ 같은 것을 물었는데 이 질문은 사실을 굉장히 계획적인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 의도에 따라 어떤 계획성을 갖고 있는지, 그게 치밀하거나 충분한지, 이런 관점이 지원사업에서 중요해지고 있지만 과연 예술이 그렇게 계획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는 얘기도 있을 수도 있어서요. 이런 의도하지 않은 변화나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할 수 있을지, 이제 지원사업을 포함하면서도 좀 넘어가는 얘기를 같이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 :** 벅크시가 감독한 《선물가게를 지나야 출구》라는 영화를 보면 의도하지 않은 성과로 만들어진 현대미술 시장이 처한 아이러니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논의하는 성과평가란 영역과도 유사한 부분이지요. 이제 성과평가란 단어에 몽똥그려져 있는 것들을 좀 더 쪼개고 그 개념들을 좀 더 분석적으로 정리해야 할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기획단계에서의 의도하지 않은 변화는 행정이 잘 포착해서 가져가야 되는 영역이라고 봐요. 예술가 및 그 단체들의 작업에 있어서 ‘우연’, ‘창발’ 같은 것에 기인해서 의도하지 않은 변화가 따라올 가능성은 일반적인 영역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예술가 본인들조차 본인의 작업과정에서 나온 창발된 변화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효과들이 나올 때 그런 것을 빨리 포착해 해석해 내는 경로 자체를 별도로 구성해 놓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정 :** 예술의 사회 성과지표를 설계하고 측정하는 과정 안에서 예술가의 의견이 배제되지 않고 함께 포용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술의 영역이 어떻게 보면 A to Z까지 계획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처음부터 사회성과지표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발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급자의 관점에서 봐야 할 중요한 것들도 놓치게 되고 또 예술가분들도 프로세스상에서 오히려 더 유의미한 것들이 성과지표 안에 담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과에서 드러나지 않게 되거나 해서 양쪽에 좋은 건 아닌 듯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메모했던 건 2019년에도 느꼈지만 사실 성과지표를 만들고 측정한다는 게 예술가에게 예술생태계에 그리고 사회에 어떤 의미인가 계속 평가해야 되는 건데 그게 잘 되지 않았죠. 성과지표는 사실 결국에는 1년짜리 뭔가 지원사업이라면 1년의 결과물을 리뷰하거나 봐야 되는 기능으로서 존재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지 않아야 하죠. 예술가분들에게는 창발적인 것들이 1년 안에 절대로 결과적으로 담길 수 없는 것들도 무수히 많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성과지표가 그 담기지 않는 것들을 버리게 만들기도 하고요. 역으로 그 지표화될 수 있는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공모화된단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예술가? 생태계? 그리고 사회? 이 프로젝트를 성과를 기록하고 그 중간의 다양한 단체들이 이제 이 성과지표가 어떻게 가능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합의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그 결과물들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가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중간중간 그게 평가가 되면서 다시금 순기능을 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현장을 지원하는 평가체계란 말이 너무 와닿았던 것 같아요.

## ⑤ 의도성과 직접성을 갖지 않는 성과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정 :** 의도성을 가지지 않는 사회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질문을 주셨는데요. 실제로 측정과 평가를 한다는 과정에서 그 직접성과 의도성을 가지지 않는 사회성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평가한 입장에서는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걸 만들어 낸 예술가들도 수용하지 않더라고요. 저희 다른 사례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요. 다른 간담회 자리에서도요. 의도하지 않았던 사회성과에 대해서 그걸 만들어 낸 분들도 다르게 보시고 인정하지 않으시고요. 만들어 내지 않은 것들을 제3자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행정에서는 중간지원 조직이나 다양한 연구자 그룹에서 그런 것들을 포착하면서 예술가분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것들을 역지로 평가지표나 체계에 담아 수용하기보다는 창의적인 것들을 평가하고 의미를 분석하고 해석해야겠죠. 사실 그렇게 레이어가 쌓이는 게 중요할 듯해요. 의도하지 않은 결과물들을 잘 해석하고 의미를 담아내면 장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것 같아요.

사실 보는 관점도 다르고 또 언어는 사실 달라서 하나로 통합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지만 예술가분들이 프로세스 안에서 유의미하게 발견했던 것들이 평가나 행정이나 다른 수많은 지원 단체들에게 전달이 돼서 수용이 되고 다시금 또 현장을 평가하거나 지표화될 수밖에 없다면 그게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그게 선순환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 이런 의도하지 않은 성과나 변화에 대해서 제3자가 얘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술가가 작업을 할 때 사회적 파급 효과와 관련해 명확한 의도나 구체적인 목적성을 가지고 예술활동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로 누가 어떻게 이것들을 해석해 주느냐가 작업들이 계속 확장해 나갈 수 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요. 프로젝트를 할 때 외부 전문가들을 모셔 피드백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예술가의 성향과 작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의외로 낯선 분들이 발견한 것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업에서의 의도되지 않은 영향력을 인지하게 되고, 다음 작업에서 그것들을 확장해 나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실제로 평가의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성과를 해석하기 위한 리뷰단을 구성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리뷰단 구성을 보면 많은 경우 형식적으로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정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결과만 보고 인상비평 관점에서 의견을 내는 정도잖아요. 공공기관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모니터링을 넘어서는 방법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성과나 영향력을 해석, 평가하는 건 무엇인지 예술가들과 구체적으로 사전에 논의가 되는 것도 중요해요. 보통은 다음 지원사업에 이 평가가 영향을 주게 될 거야, 하는 식으로 예술가 기획자들에게 평가가 인지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술작업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같이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 공유가 된다면 좋겠어요. 실제로 제3자가 발견해 주는 이런 영향력이나 성과들은 굉장히 가치 있고 필요한 거죠.

**정 :** 아주 짧게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2019년에 같이 참여하면서 예술가분들과 소통하면서 가진 원칙은 저도 예술가 분야 전문가가 아니고 또 이분들이 다루고 있는 사회 영역이나 프로젝트 영역의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기조를 쭉 유지하면서 대화를 했던 것은 뭔가 사회이슈나 문제로부터 어떤 영감과 영향을 받아 가지고 이걸 예술로, 어떤 프로젝트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 적어도 이 사회이슈와 문제가 이 예술 프로젝트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걸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해 대화를 계속해 나갔던 것 같아요. 지표 설계를 하거나 정리를 할 때도요. 예술활동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제게는 블랙박스 영역이었던다고요. 그래서 사회적 이슈가 그 블랙박스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만 계속 대화를 했어요. 그럴 때 사회 문제나 이슈 자체도 도구화가 되지 않게끔. 이게 된다면 결과물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든 간에, 그 주제와 관련된 그 임팩트가 크다 아니다 좋다 나쁘다가 기관이나 개개인별로 관점이 다를 수는 있다고 해도 무언가 새로운,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 좌담회에서 ‘평가’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지만 사실상 발견이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볼 수 있다. 예술에 있어서 과정적 의미나 변화에 대한 자기 해석이 어려운 경우에 시도된 개별적인 고민들도 공유되었다.

그런데 예술 외 영역에서의 임팩트나 평가지표 등이 설계되었던 것은 그것을 반영해서 이후의 활동을 좀 더 발전, 확장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하지만 과연 예술은 그러한 패러다임이나 속성 안에 있는가 하는 질문도 할 수 있다. 예술가나 기획자는 외부의 피드백이나 해석을 참고해서 다음을 도약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멈추거나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안정적이었던 활동이나 커뮤니티를 해체시키거나 도망가 버리기도 한다. 그것이 어떤 순간에는 더욱 큰 사회적 임팩트를 만든다. 그것은 소수만 공감할 수도 있지만 그야말로 예술적 임팩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변화를 추구하는 목표 자체도 예술의 영역에서는 좀 다르게 모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평가지표라는 개념이나 틀, 그것을 사용하여 현실적으로 다음을 계획하는 방식은 주로 지원사업과 같은 제도 안에서 등장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많은 질문이 남겨져 있지만 사업이나 제도 개선 차원의 논의, 그리고 그 틀을 넘어서는 논의가 따로 또 같이 필요해 보인다.  
(편집자 주)





## 4-5 /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어떻게 계속할 수 있는가?

**여는 글** 김월식 | 무늬만커뮤니티 디렉터 ..... 098

### 서울을 바꾸는 예술 속 논의

① 예술가기획자가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은 어디에서 얻는가?..... 102

② 예술가기획자가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현실적 요소는 무엇인가? 103

③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공모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가?..... 104

## 여는 글

김월식 / 무늬만커뮤니티 디렉터

‘서울을 바꾸는 예술’에 애정이 있었다. 좋은 정책적 지원 방향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 그런데 중간에서 맘이 변했다. 그까짓 변덕이 죽 끓듯하는 예술가 한 명의 맘이야 언제든 변하고, 아무도 문제시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 예측 가능하고 유추 가능한 나의 변화의 움직임에는 지원사업이라는 공범이 있다. 아무리 기능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려 해도 안타깝게 신상은 없는 듯. 철 지난 이월 상품 앞에서 호객하는 상인처럼 예술가들도, 기획자들도, 그 직책의 이름이야 어떻게 불리든 멘토의 역할이나 컨설턴트의 역할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하는 자들의 개인기도 말씀씨도 모두 비슷하다. 이대로라면 서울은 또 보편타당하고 적당하게 그 자리에 머물 것이다. ‘늘 그렇듯이.’

2020 ‘서울을 바꾸는 예술’ ‘SPACE : 몸’ 인터뷰 中

서울을 바꾸는 예술의 몇 년을 함께한 연루자로서 이런 판단의 인터뷰를 한다는 것이 매우 씩씩한 심정이지만, 그렇다고 거짓을 말할 수는 없다. 하나하나 따져 보면 즐겁고 보람되고 경이로운 장면들도 분명 많았는데 이를 총체적인 판단에 준거해서 얘기하다 보니 이런 판단의 결과가 나온 것일까? 아니면 애정만큼의 실망일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 보니 질문의 끝에 달려 오는 얘기는 결국 내 스스로의 예술에 대한 질문과 닿아 있었다.

‘서울을 바꾸는 예술’에서 늘 부족한 건 예술인 것 같아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예술이라는 것들을 찾아볼 수 없을 때가 정말 많은 거죠. 그래서 무엇이 예술이냐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해 줘야 되는데 그 예술이 너무 보편타당한 가치에 닿아 있어서 예술 같지 않고, 때로는 복지같기도 하고, 뭔가 때로는 선한 캠페인 같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지나친 프로파간다 같기도하고, 뭐 이런 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다 예술이 될 수 있지만, 무언가 고유성을 갖고 있는 목소리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저도 2017년부터 이 ‘서울을 바꾸는 예술’에 대해서 조금씩 관여해서 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제가 예술가로서 안타까운 건 가슴 뛰는 그런 작품, 작업들, 프로젝트를 만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게 한 예술가의 심장을 뛰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냉정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무언가 그런 것들이 일정한 서울을 바꿔야 된다는 사회적 예술의 마치 사회적 예술은 이래야 된다는 가이드라인 안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서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된 거죠. 하여튼 올해는 무언가 용기를 갖고 위복과 위원의 상상력이 실천력이 조금 눈에 띄는 그런

사건이 되는 예술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 '서울을 바꾸는 예술: Player 워크숍' 사업 설명회 중

결과에 대한 그림을 미리 그리고 있었을까? 나는 2020년의 사업 설명회 때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다. 예술이 실종되어 가는 사회적 예술의 정책적 공모 사업을 몇 해 동안 바라보며 드는 기우와 노파심들을 나는 미리 말한 듯하다. 그리고 이제부터 사사로운 걱정과 고민 질문을 뒤로하고 정책적 고민의 답변을 내게 물어온 '서울을 바꾸는 예술'의 질문에 답할 시간일 것 같다.

### ① 예술가/기획자가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은 어디에서 얻는가?

다양한 장르 다양한 예술관과 철학을 갖고 있는 예술가들은 각자 예술활동을 위한 동력을 길어 오는 곳도 물론 다양하다. 그것이 사회적 예술 활동이라고 해도 다를 바는 없을 것이고, 그래야만 획일적이고 전체화 되지 않는 예술의 다양성과 문화, 예술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각자의 예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에서 시작해야 하며, 삶과 괴리되거나 무관한 예술이 되어서는 안 된다. 때문에 더욱 자기 삶의 경험과 철학을 통한 사회 읽기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자신의 언어로 재 설정하고 번역할 수 있는 학습력과 실천력이 필요하다. 이 수행성들은 타자에게 시의성을 갖고 강요해서는 안 되는 일종의 자기 수련이다. 그리고 때로는 질문의 답을 있고 태도의 알고리즘에 정진하는 무모한 수행일 수 있고 사회적 목적성과 이유, 타당성, 기능성, 효용성과 무관한 판타지나 신화의 영역을 횡단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상상력의 근육을 키우는 것은 어찌면 이두박근과 삼두박근 사이에 혹은 장딴지와 허벅지 사이에 생각의 근육을 만드는 것일 수 있다.

### ② 예술가/기획자가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현실적 요소는 무엇인가?

자기가 있는 곳, 거주하는 곳, 생활하는 곳이 세계의 중심임을 믿는 것, 그렇게 활동하는 것이다. 이는 컨템포러리 신에서 사회적 예술 활동을 지속하는 모든 예술가들에서 무엇보다도 실적으로 필요하고 유효한 전략이다. 정책은 오랜 시간 이들을 지켜보되 간섭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신의적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과 정부와 행정을 설득하고, 시민을 설득할 수 있는 배짱을 키워야 한다.

### ③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공모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가?

물론 적절하다. 하지만 대부분 공모사업의 프레임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일단 시간의 자율성과 예산의 자율성이 공모사업을 수행할 예술가에게 주어져야 하며, 예술과 우리 사회 모두를 믿는 신의와 신념 그리고 진정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의 예술을 새로운 예술의 영역에서 읽고 비평하고 시민의 언어로 번역해 줄 전문가의 밝은 눈과 경험이 필요하다. 예술은

작가가 용기를 갖고 수행하기도 그리 쉽지 않지만 이를 읽고 가치 있게 공유할 수 있는 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

### 김월식

고도의 압축 성장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산업화 과정을 함께한 커뮤니티의 전체주의적 목적성을 경계하며, 발전과 성장의 동력이자 조력자로서의 개인의 가치에 주목하는 작업을 해 왔다. 2010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에서는 예술보다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삶에서 발생하는 의미들을 존중하며 이를 공유하고 나누는 프로젝트인 '무늬만커뮤니티'를 진행하였고 그 외 2011년 생활문화재생레지던시 '인계시장프로젝트', 2012년 중증 장애인과의 협업극 '총체적 난극', 2014 동시대 아시아 예술가들의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 'cafe in asia'와 2016년 시흥시의 '모두를 위한 대안적 질문 A3레지던시'를 기획하였다. 2018년 미디어 아트 비엔날레 외 다수의 전시에 참여 하였다.



## 서울을 바꾸는 예술 속 논의

### ① 예술가·기획자가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은 어디에서 얻는가?

#### 외부 전문가

사실상 이 시의성, 동시대성이라는 것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나 관점, 그것을 만들어 내는 개개인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미디어가 전제하거나 얘기하고 있는 시의성보다는 예술가나 기획자가 자신의 삶에서, 바로 지금 문제라기보다는 (기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나 나와 연결되어 있는 고민이었다는 지점들을 개인의 삶에서의 시의성으로 해석하셔서 접근하신다면 어떨까, 사업적으로 풍성한 아이디어로 접근하기보다 이 활동을 장기적으로 하실 때 좀 더 자기 동력이 생기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2020 사업 설명회

## ② 예술가·기획자가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현실적 요소는 무엇인가?

### 예술가·기획자

‘서울을 바꾸는 예술’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든 생각은 예술가들이 사회적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대중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인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활동이 어느 정도의 파장이 있을 것인가’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하는데 이 논의는 생략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예술을 사회적 가치를 위해 활용한다고 했을 때 해당 예술을 활용하고 향유하는 사람들은 예술가를 넘어 시민과 대중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지원사업은 예술가에만 초점을 맞춰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예술의 사회적 가치, 사회적 예술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술에만 한정된 얘기, 예술활동을 하고 생산하는 사람들 위주만이 아닌 ‘매개자’에 대한 얘기도 필요해요. 문화예술 기관과 예술가·기획자를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자 혹은 그 역할 말이에요. 제 의견으로 문화예술 기관은 매개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좀 더 지원을 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술가가 자신의 예술활동을 사회에 알리고 싶을 때, 기관이 방법을 알려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기에 그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 연말수다파티 라운드테이블



### ③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공모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가?

#### 외부 전문가

어떤 작가분이 참여적 활동이나 사회 변화에 관한 관심이 꽤 많았는데, 그게 사업이나 기관을 통해서 구체화하기 시작한 이후로 양적 팽창은 일어났지만, 관심 가는 사업, 작업은 더 적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엔날레 같은 큰 전시회에서 전시 주제를 그런 식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많아졌지만, 인상적인 것은 잘 안 보인다고 하고요. 이런 식의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런 전반적인 현재 상황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어떤 위기감에서 이 사업이 나온 게 아닐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020 player워크숍

#### 서울문화재단 담당부서

저희도 공공기관으로서 그런 고민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런 사업을 공공기관들에서 해서는 안 되는지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다른 게 아니라 온갖 위반의 상상들을 다 저희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느냐고 할 때 자신이 없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아무리 고유한 목소리에 기반해서 말씀들을 해 주셔도 점점 착한 예술들만 낳는 데 일조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아무쪼록 올해에는 말씀하신 대로 더 가슴 뛰게 만드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 사업 설명회





# 서울을 바꾸는 예술 포럼

## 예술의 사회적 활동, 다시 질문하기

2021년 3월 29일(월) 14:00~16:30

서울문화재단 유튜브 '스팍TV' 온라인 생중계

사회 최선영 | 유구리최실장

### 1부. 서울을 바꾸는 예술, 지난 4년

발표 ① 김진환 |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팀 팀장

- 사전발제문 : 서울을 바꾸는 예술 ( ) 서울문화재단 : 사업의 추진 배경과 변화
- 발표 속기록

발표 ② 김정이 | 비커밍컬렉티브

- 사전발제문 : 서울을 바꾸는 예술이 바꾼 것 : 생태계 차원의 참조사항 정리
- 발표 속기록

### 2부. 공공지원에 질문을 던지는 예술의 사회적 활동

발표 ① 박지선 | 프로듀서그룹 도트

- 사전발제문 : 예술의 사회적 활동 현장과 공공지원
- 발표 속기록

발표 ② 김인규 | 시각예술가

- 사전발제문 : 공공지원 밖의 예술의 사회적 활동 현장 "공공지원 밖에서 하기"
- 발표 속기록

종합토론 [진행] 최선영 | 유구리최실장

김인규 | 시각예술가

박지선 | 프로듀서그룹 도트

김지영 | 플러스마이너스 1도씨

안정란 | 지질학적 베이커리

성연주 | 문화사회학 연구자

서울을 바꾸는 예술 포럼 다시보기  
QR코드 스캔



서울을 바꾸는 예술 포럼 : 예술의 사회적 활동, 다시 질문하기

---

1부 서울을 바꾸는 예술,  
지난 4년

일시 | 2021년 3월 29일 (월) 14:00 ~ 16:30

**사회자** 2021 서울을 바꾸는 예술 포럼, 예술의 사회적 활동, 다시 질문하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유구리최실장의 최선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포럼은 2시간 반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 유튜브로도 생중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먼저 문화시민본부장이신 백승우 님의 인사를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우** 반갑습니다. 서울문화재단 문화시민본부장 백승우라고 합니다. 일단 포럼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포럼에 참여해 주신 최선영 선생님을 비롯한 발제자분들, 토론자분들 모두 바쁘신 시간 쪼개서 오셨을 텐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4년간 저희 서울을 바꾸는 예술에 참여해 주신 모든 예술가분들, 기획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울리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SNS에서 본 글이 하나 있습니다. 한 드라마 작가가 방송사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어떤 드라마 작가가 되고 싶으냐는 질문에 이런 답변을 했대요.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 선택을 망설이고 있는 한 사람이 자기 드라마의 결말을 보기 위해서 나쁜 선택을 하루 이틀 미룰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쓰고 싶다고요. 이 얘기가 과연 오늘 포럼에 맞는 얘기인지 의문을 던지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예술이 가져다 주는 우리 삶에 대한 영향력, 그 가치란 실로 어마무시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실 텐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예술은 사치나 여유의 상징이 되는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술은 우리 삶 속에 녹아드는 부분이며, 특히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예술가들의 창의력, 창의성이 더 발휘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을 바꾸는 예술’은 지난 4년 동안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계속해서 담아 왔다고 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예술이 갖는 이 사회에서의 질문과 고민들을 통해서 많은 담론들을 엮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대신 이런 질문을 던져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가치 있는 사업을 왜 갑자기 일몰하느냐? 저는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일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시즌1이 종료됐다고 말씀드렸듯 이 사업은 지금까지 4년 동안 축적된 여러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재단의 다른 사업, 그리고 포럼이 이루어지는 청년예술청, 예술청 그리고 생활예술 영역의 또 다른 영역으로 녹아들어서 더 확장할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갖는 이런 고민들에 많은 분께서 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곧바로 1부 순서 들어가겠고요. 마이크를 최선영 선생님께 넘겨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그러면 1부 시작에 앞서서 포럼에 대해서 좀 더 소개와 진행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댓글로 질문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오늘 내용은 포럼이 끝난 후에 서울문화재단 유튜브 스팍TV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생중계를 보실 수 없는 분은 추후에 이 방송을 영상 콘텐츠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포럼 자체는 제목이 ‘서울을 바꾸는 예술 포럼, 예술의 사회적 활동 다시 질문하기’입니다. 예술의 사회적 활동이라는 말 자체만 가지고도 사실 논의를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 텐데요.

예술은 모두 다 사회적이지 않는가,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함께 던져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서울을 바꾸는 예술’이라는 하나의 지원 사업 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는데,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예술의 사회적 활동이라는 말은 좀 더 일시적인 개념으로써 가져왔다고 미리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개념 같은 경우에는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본부에서 2017년도에 사회적 예술활동 지원, 사회적 예술 활동과 관련해서 예술의 사회적 개입 심층 연구와 관련한 ‘예술활동의 다변화와 사회적 실천’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좀 정리된 개념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문화재단에서 지원하고 있거나 개념화하고 있는 창작 지원과는 조금 다른 활동들이 현장에서 포착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연구들이 좀 있었고요. 이러한 활동들을 좀 더 공식화하고 그리고 지원하는 것으로서 ‘서울을 바꾸는 예술’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들은 이후에 첫 번째로 발표를 해 주실 김진환 팀장님께서 자세히 해 주실 텐데요. 어쨌든 오늘 포럼의 제목 자체가 ‘예술에 비사회적인 활동이 있고 사회적인 활동이 따로 있다’는 전제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서울을 바꾸는 예술’이라는 하나의 지원 사업에서 그래도 좀 더 도드라지게 보였던 활동의 양상들을 토대로 오늘 논의를 진행하고자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 사업에 2017년도에는 참여 단체의 일원으로서 참여했고 이후에는 2년간 심의위원과 리뷰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최근까지 이 사업은 참여해 주신 많은 분과 함께 내부적인 워크숍을 하거나 혹은 외부적인 포럼들을 진행했고요. 이와 관련한 많은 논의들을 더 공유드리고 더 확장된 질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오늘 발표하실 분이 계시고 또 발제를 해 주실 분이 계신데요.

이와 관련한 발제문은 현재 서울문화재단 공지사항 게시판에 있는 이 포럼에 대한 안내 게시물에

첨부 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고, 동시에 유튜브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에서 이 게시물의 하단에 보시면 바로 발제문을 보실 수 있는 사이트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활용하셔서 발제문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는 분들은 계속 채팅창으로 질문을 남겨 주시면 1부, 2부에 이어서 저희가 같이 얘기 나눠 보고자 하고요. 이 포럼 외에도 ‘서울을 바꾸는 예술’이라는, 하나의 지원사업에서 시작됐지만 조금 더 공동의 질문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담아서 담론집을 현재 기획 제작 중입니다. 4월 말에는 담론집이 나올 예정인데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분께 공유될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후에 그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1부와 2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1부는 발표의 개념으로 두 분께서 얘기해 주실 텐데요. ‘서울을 바꾸는 예술’이라는 지원사업의 추진 배경과 변화를 중심으로 지역문화팀장인 김진환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후에는 비커밍컬렉티브의 대표이신 김정어 선생님께서 ‘서울을 바꾸는 예술이 바꾼 것, 생태계 차원의 참조사항’을 정리해서 얘기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김진환 팀장님과의 발제에서 ‘서울을 바꾸는 예술’과, ‘서울문화재단’ 사이에 괄호가 있는데요. 사업의 추진 배경, 변화에 대해서 이 사업의 지난 4년간의 흐름과 변화들을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1부 서울을 바꾸는 예술, 지난 4년

발  
제  
①

# 서울을 바꾸는 예술 ( )서울문화재단 : 사업의 추진 배경과 변화

김진환 /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팀 팀장

## 0. 들어가며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을 정리하며, 예술 ( ) 사회 사이에 들어갈 괄호 안을 채우는 것은 현장의 당사자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담론집에서는 사업 참여자들의, 포럼에서는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던 현장의 예술인들의 고민과 말을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또 하나의 당사자로서 (객관적인 사업추진내용 및 사업결과가 아닌) 정책기관/행정조직의 관점과 고민 역시, 향후 공공 정책이나 사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중요한 참조자료가 될 것이라고 본다.

한 사업이 ‘끝’을 앞두고 있을 때, 행정에서만 남길 수 있고 잘 남길 수 있고 남겨야 할 것은 사업 그 자체를 다루는 {서울 ( ) 예술} ( ) 서울문화재단 간의 (특히 두 번째의) 괄호를 무엇으로 보았을지, 행정의 입장에서 남길 수 있는 최대한을 이 글을 통해 남겨 보고자 한다.

하지만, 이 글은 다소간 ‘서울문화재단’이라는 기관의 입장과, 그 조직원 중 한명일 뿐인 (2016년말 첫 포럼과 2017년 연구 라운드테이블 담당자, 2019~2020년 담당 팀장으로서) ‘김진환’ 개인의 입장이 다소 뒤섞여 있는(어느 부분은 둘 다에 해당하고, 어떤 부분은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할 것이다) 글이라는 점은, 다소 감안하시고 읽어 주시기를 바라 본다.

## 1. 서울을 바꾸는 예술

‘서울을 바꾸는 예술’은 2016년 12월 새롭게 공공예술 포럼을 준비하며 임팩트 있는 포럼 명칭을 고민하는 와중에 처음 쓰게 된 이름이었다. ‘서울을 바꾸는 예술 : 문화기획자의 지역 생존’이라는 포럼의 전체 제목에서, ‘서울을 바꾸는 예술’에 기대했던 효과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였다.

첫째, ‘서울’이 더 이상 행정의 대상만이 아니라, 현장의 민간주체들이 더욱 직접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sup>1</sup> 둘째, 포럼의 직접적인 주제는 ‘문화기획자의 지역 생존’이지만, 이보다 더 큰 서울문화재단의 관심은 서울-변화-문화/예술 간의 관계, 더 다변화되고 확장되고 강화되는 셋 간의 관계를 보여 주는 데 있었다.

1 여담으로 포럼의 제목을 결정할 때, 서울문화재단 내의 상위 의사결정자일수록 ‘서울’이라는 단어는, 하이서울페스티벌, 서울형 어린이집, 디자인서울 등, 현장에서 받아들이기에 행정 중심적이고 ‘구린’ 단어라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하지만, 이미 많은 현장의 예술기획, 문화기획(또는 로컬 비즈니스)에서는 ‘서울’은 그 자체가 선호하는 하나의 ‘기호’로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점차 많아지는 중이라고 보았다.

포럼의 12팀이 보여 준 사례를 통해 예술 활동의 다변화와 확장성을 말하려 했고, 이를 묶는 언어로 너무 타이트하지만 ‘서울을 바꾸는 예술’을 선택했다.

‘서울을 바꾸는 예술’이 행정에서 예술에게 ‘서울을 바꾸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을 바꾸는 예술’(의 한 그룹)은 이미 서울의 동네, 동네 현장에서 생존하고 있는 문화기획자들로서 존재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이었다.<sup>1</sup> 그러나 문화예술 행정기관에서 ‘서울을 바꾸는 예술’ 정도의 어휘를 사용한다는 것이, 더 넓은 한국의 정책 환경 안에서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다음해 2017년부터 당장 7억이 넘는 규모의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을 ‘서울을 바꾸는 예술’이라는 이름을 달고 추진하면서, 행정이 예술에게 이제 ‘다른’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었다고 본다.

## 2. 서울문화재단과 사업 추진 배경

### 2-1)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에 큰 변화가 집중된 시기가 두 번 있다고 개인적으로 분석하곤 하는데, 2009~2011년의 창작지원(및 예술교육) 집중의 시기와 2017~2019년의 다변화 시기라고 생각한다. 전자는 중앙정부 창작지원(및 예술교육지원) 사업의 광역문화재단 이관 및 서울시창작공간의 대거 개소(그리고 이로 인한 재단 초기 문화사업의 대다수 폐지/이관, 후자는 서울시의 예술인플랜 및 청년예술정책, 생활문화/지역문화 정책 확산, 거버넌스 도입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과 관련해 보자면, 2004년 출범한 서울문화재단의 2009년까지의 초기 사업 포트폴리오의 경우(재단 직접 사업 중심, 파편적/분산적 사업, 정책적 효과보다는 사업적 효과 추구, 현재 보다 낮은 거버넌스 등의 한계도 있었지만), ‘서울의 문화’라고 말할 수 있는 대부분의 영역에 가닿을 수 있는 폭이 넓었다.<sup>2</sup> 하지만 2009년~2011년 예술창작지원 중심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이후에는 이외 영역의 사업이 줄어들었고, 단순히 사업의 문제를 떠나 재단이 관계하는 현장과 전문가의 폭 또한 상당히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3</sup>

1 포럼 당시 발표한 현장 기획자 : 성복신나, 동네형들, 작은따옴표, 설재우, 청년장사꾼, 9Road, 아트브릿지, 플러스마이너스 1도씨, 예술수색단, 공공공간, 옥상낙원dip, 축제항성(행화탕)

2 물론 단순히 출범 초기의 미분화된 원시적 몽땅그림으로서의 사업 포트폴리오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3 물론, 이는 예술창작지원 기관으로서의 고도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고, 실제로 해당 시기에 재단의 많은 사업들이 내적 고도화, 질적 향상을 이루기도 하였다. 단순히 재단이 다루는 영역이 더 넓어야 한다는 것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향일 수 없고, 다양한 영역의 ‘폭’이 아닌 한 영역에의 ‘깊이’가 있어야 한다는 방향 역시 요구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단순히 폭넓은 도시문화와의 접점을 가져야 한다는 당위가 아니라 2010년대 중반을 경유하며 다변화하는 예술 현장과의 접점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 의식을 낳기도 하였다.

거칠게 정리하자면 문화/예술이 닿는 영역과 가치(사회적 가치, 공공성 등) 중 서울문화재단의 ‘공백’이 상당한 수준이지 않나 하는 문제 의식이었다.

## 2-2) 외부 환경

- 서울시는 2011년 말 박원순 시장부가 출범하면서 다양한 사회혁신 정책을 펼쳤으며, 이는 사회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현장들을 가시화해 주었다. 2015~2016년 즈음 되자, 이런 현장에 많은 문화예술 주체들 역시 가시화되고 있었는데 서울문화재단과의 관계는 서울시 혁신 정책에 비해 상당히 부족해 보였고, ‘공백’의 압박을 느끼게 하는 주요인 중의 하나였다.

- ▶ 2012 : [마을] 마을공동체증합지원센터 출범
- ▶ 2013 : [지역문화] 마을예술창작소 사업 시작 (서울시 문화본부)
- ▶ 2013 : [청년] 청년허브 출범
- ▶ 2013 :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출범
- ▶ 2014 : [비영리활동] NPO지원센터 출범
- ▶ 2015 : [도시재생]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 본격화

- 문화예술계 현장에서는 포스트 공공미술, 포스트 커뮤니티아트, 포스트 복지형 문화사업에 대한 고민과, 생존을 위한 예술인들의 새로운 활동/경영 방식에 대한 고민들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다변화된 문화/예술 활동이 점점 증가하고 가시화되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 (2016년 서울시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발표 등) 국가나 서울시 모두, 문화정책에서는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사회문제 해결에 개별 예술(활동)이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거나, 문화예술의 집합적인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가 이루어졌다. 이는 실제로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등의 정책이 보다 문화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근본적 문제의식에 기반하기도 하고, 예술/문화 정책의 규모를 늘리기 위하거나 예술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나 강력히 요구된 면은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정책 차원에서 확장하고자 하는 점은, 특히 국가 문화정책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경유하여 2021년 현재는 문화도시 사업이라는 강력한 자장을 만들었다.

### 3. 서울을 바꾸는 예술을 준비하며 : 2015~2016년 공공예술센터

당시 서울문화재단 역시 (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했지만) 정책적으로는, 문화정책위원회, 문화정책연구 등을 통해 문화와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주목하였다. 이는 2010년대 국내 문화정책의 전반적인 흐름과도 연결된 (당위적이고 현실적인) 문화/예술정책의 확장성, 정당성에 대한 고민의 차원이 있었지만, 주제와 영역, 주제, 확장된 참여의 방식, 활동 지역 등 모든 면에서 다변화되고 증가하고 있던 '현장'의 예술활동/문화기획 활동에 주목하였던 측면이 있었다.(또 하나는 서울이라는 도시 현장과 만나는 사업을, 재단이 직접 추진/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장의 다양한 민간 주체들이 기획자/활동가/매개자로서 뭉칠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나 조정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이 있었다). 재단 내부적으로는 예술활동의 확대된 개념으로 가칭 '사회적 예술'에 대한 지원체계를 2015년 정책연구팀에서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는 재단 내이나 시정부나 문화 현장에서의 공감대 형성까지의 사전 작업이 부족한 채 이루어졌기에, 시민문화팀의 팀 이름을 공공예술센터로 변경하는 정도로 적용되었다.

다만, 이 제안 때 검토하였던 문체부의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기관 지정 신청하여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말까지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새롭게 운영하게 되었다. 지역문화 정책·사업의 확대 초기인 이 시기에, 재단에서는 사회적 예술의 한 분야로서 지역문화를 설정하고, 지역문화 매개자/기획자가 정책의 주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였다. 그리고 이 사업에서는 양성이 효과적이었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서울을 하나의 지역으로 보고 다양한 현장 주체들을 강사로 섭외하다 보니, 앞에서 말했던 재단의 '공백'이 더욱 강하게 다가왔다.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현장 사례 강의 참여자 목록

: 동네형들, 성북신나, 창동플랫폼61, 공유성북원탁회의, 정릉/미아리교개 예술마을, 서울와우북페스티벌, 청년장사꾼/열정도, 매개진오, 개방회로, 800/40, 이리카페, 제비다방, 서울인기, 길음예술사랑방, 플러스마이너스1도씨, 00은대학, 유알아트, 창덕궁앞열하나동네 등

그리고 이 글의 1에서 언급한 것처럼 2016년 12월에는 '서울을 바꾸는 예술'이라는 말을 처음 쓴 포럼을 진행하였다. 해당 포럼의 담당자로서, 이전까지의 추진 배경이든 무엇이든 간에, 더욱 강조한 것은 '서울'이라는 말이었다. 예술의 사회적 가치이든, 예술의 사회적 활동이든, 사회적 예술이든, 그 모든 것들은 '서울'의 문화 현장에서 있는 것, 일부라고 생각했고, 결국 '서울'이라는 '도시 현장'의 문화와 연결되고자 하는 점, 일반론으로 납작해지지 않는 '서울'의 문화 현장을

더욱 집중적으로 바라보자는 성격이 강했다.

다만 서울/사회 ( ) 예술 간의 괄호는 아직 정리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당장 사업부터 시작하였기에 이후에도 혼란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돌이켜보건데 현장에서의 합의나 논의, 조사 없이 더 명확한 정책적 어휘가 선행하는 것보다는 보다 현장 중심의 사업을 통해 후에 정책적 어휘를 만들어가는 것도 나름의 장점을 지니기도 한다.

#### 4. 서울을 바꾸는 예술 4년 : 2017~2020년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는 다른 발제나 토론에서 더 살펴볼 수 있을 것이기에, 여기서는 직접 운영한 기관의 시각에서 중요한 분기점에 대해 짚고 넘어가는 정도로 집중해 보고자 한다. 먼저 4년 간의 사업의 포트폴리오는 아래와 같다. 3~5억 원의 사업 예산으로 보기에는(2017년 제외) 구성이 복잡했고 또 매년 변화하기도 했다. 그 변화를 만든 배경이나 취지가 무엇인지 위주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 한눈에 보는 서울을 바꾸는 예술

		2016	2017	2018	2019	2020
<b>담론형성 및 공론화 포럼</b>  <b>사례발굴 및 육성 지원사업</b>	<b>문화기획자의 지역생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편 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디어 1·2차</li> <li>- 메이커스</li> <li>- 프로젝트</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IGH LIGH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말수다파티 (라운드테이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술의 사회적 활동, 다시 질문하기</li> </ul>
	<b>인력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사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셜인(사)사이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임 (모여서 만드는 임팩트)</li> <li>소셜 프로젝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리서치 · 프로젝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layer 워크숍</li> <li>프로젝트</li> </ul>
<b>기본조성</b>	<b>연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술의 사회적 게임 심층연구 (1차년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술의 사회적 게임 심층연구 (2차년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술의 사회적 활동 임팩트 측정 지표 설계 연구</li> </ul>	
	<b>출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보고서: 예술활동의 다변화와 사회적 실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보고서: 예술의 사회적 실천향상과 저변확대를 위한라운드테이블</li> <li>결과자료집: 소셜프로젝트</li> <li>결과자료집: 하이라이트 (포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과자료집: 리서치 · 프로젝트</li> <li>결과자료집:라운드테이블</li> <li>연구보고서: 임팩트 측정 지표 설계 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과자료집: player워크숍</li> <li>담론집: 4년간의 질문들(가제)</li> </ul>
<b>아카데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스케치</li> <li>인터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터뷰</li> </ul>

#### 4-1) 2017년 : 지원사업 & 연구

##### ① 서울을 바꾸는 예술 : 청년편 [Y]

청년예술지원사업의 일부 분야로서 첫 사업으로는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음.(지원금 7.7억 원) 3개 분야로 나누어 공모/지원하였으며, 총 80팀을 지원하는 대규모 사업.

(1) Y-아이디어 : 시상금 200만 원 정액 지원, 35팀 선발

(2) Y-프로젝트 : 평균 1,700만 원 지원, 28팀 선발

(3) Y-메이커스 : 평균 1,200만 원 지원, 17팀 선발

현재 시점으로 볼 때 텀블벅 스타일의 다양한 청년들의 문화기획을 중심으로 도시문화기획, (독립)출판, 청년예술인의 활동, 도시 아카이빙, 로컬 비즈니스, 특징적 생활문화 프로젝트, 다양한 플랫폼형 사업, 액티비스트 리서치 등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였으나 아이디어-프로젝트 구조 사업설계에서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대부분 실질적인 임팩트나 현장에서의 경험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닌, 단순한 개인의 아이디어/아이템 중심의 활동이 많았음. 이는 현장에 대한 탐색과 분석 없이 지원사업이 크게 시작되었던 것으로도 볼 수도 있고, 애초에 사업의 설계에서부터 첫해에는 신청을 받아 봐야 현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도.

이렇게 풍부한 지원금을 바탕으로 새로운 현장 주체들을 발굴하고 탐색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청년예술, 지역문화, 창업, 시장, 예술경영, 예술교육, 문화기획, 마을문화, (독립)출판, 커뮤니티아트, 도시(문화)플래닝, 문화정책, 축제 등 심사/평가위원<sup>1)</sup>의 영역을 다변화하는 등 사회적 예술에 집중된 의미보다도 서울문화재단의 전체 지원사업에서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이 더 컸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이전과는 달리, 다시금 생활문화, 지역문화 사업이 시작된 상황으로, 단순히 이전보다 확장된 현장, 주체를 포괄한다는 지점 외에 사회적 예술 사업의 차별점을 만들어 가야 할 필요성 또한 대두되었음. 또한 합의와 공통의 이해가 없는 사회적 예술이라는 영역에 대해 사업, 특히 공모지원사업의 경우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이후에도 지속될 고민을 처음 던져 주었음.

1 원대로(청년허브), 유다원(플러스마이너스1도씨), 김지연(레볼루션커뮤니케이션스), 김재희(신중구시장 디자인감독), 강원숙(엘베스트), 임경용(더북소사이어티), 송상훈(소셜아트플래튼), 설재우(문화기획자), 이로(유어마인드), 김민표(비전웍스) 등



## ② 연구보고서 「예술활동의 다변화와 사회적 실천」

앞의 지원사업과 관련한 여러 고민들은 당연히, 사회적 예술의 정의, 유형화, 지원근거 마련을 통해 더욱 체계화된 사업 형태나 내실에 대한 고민으로 연결되고, 그런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음. 연구 기획 과정에서 현장과 유리된 정책적으로 짜맞추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현장 주체들의 현황에 대한 탐색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하여 5개 분야(사회혁신, 예술교육/치유, 지역, 사회행동, 메이커) 50개 단체와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진행.

한번의 연구로 결론을 이끌어 내기에는 사전 논의 기반이 너무 부족하였으며 이 때문에 사업방향성 설정을 위한 근거 마련에는 실패하였음. 그러나 그만큼 사전 논의 기반, 연구·조사, 아카이빙 자체도 부족한 분야/관점이었기에 연구보고서 자체는 많은 호응을 얻음.

실제로 참여자 등 현장에서도 사례 공유, 아카이빙 및 네트워킹 관점에서의 호응은 컸으나, 이것이 이후로도 지속되기에는 서울문화재단 주도적인 호출이었다는 한계가 존재. 그리고 이는 이후에도 반복되는데, ‘예술의 사회적 활동’이나 ‘사회적 예술’이라는 식으로 묶어 내는 것은 정책의 앞선 욕망일 수 있고 현장의 자기 호명이 아니라는 점을 가시화. ‘예술활동의 다변화와 사회적 실천’이라는 연구보고서의 제목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고심 끝에 조심스레 도출한 이름. 이 이름 자체에서 ‘서울을 바꾸는 예술’의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두가지 갈래가 나오기도 함. ‘다변화’(서울 현장의 다양성-정책의 공백), 그리고 ‘사회적’(가치, 공공성).

### 4-2) 2018년 : 현장과 만나는 방식을 4개 분야로 확대

가장 다양한 실험을 해 볼 수 있던 해였으며, 이에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대부분의 방식은 시도 가능.

#### ① [지원사업] 서울을 바꾸는 예술 : 소셜 프로젝트

청년예술 지원사업의 부속사업으로서의 성격을 탈피하여, 예산은 적어졌지만 공고문에서부터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전면에 내세우는 사업으로 변경하여 보다 명확한 사업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시도.(16팀, 3.5억 원 지원)

2017년 지원사업 대비 훨씬 선정 건수가 줄어들었다 보니 아이디어 중심 사회혁신기획자 보다는 (다변화된 관점에서) ‘예술’ 활동에서부터 시작하는 의미에서의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강조. 그리고 ‘예술’에 더 주목한다는 것이 다소간 ‘사회적’ 성격보다는 서울의

‘다변화’되고 새로운 예술 신을 포괄하고자 하는 측면이 더욱 강화되기도 함. 이는 또한 애초에 사업의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보다는 2017년 대규모의 청년예술지원사업부터 시작해야 했기에, 사업의 시작부터 공모 지원사업, 예술지원사업의 자장이 강하게 박힌 결과였다고도 해석 가능.

② [연구] 예술의 사회적 실천 방향과 저변 확대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2017년 연구보고서가 현장을 폭넓게 살펴보고 기록하고 그 바탕에서 공통의 특성을 발견해 내고자 하던 것이었고 연구 이외에도 아카이빙, 네트워크에서 의미가 있었다면, 2018년에는 재단이 보다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지 살피는 정책연구 차원에서 라운드테이블을 진행.

해당 보고서에 중요 정책 제안들이 수록되었으나, 예산 및 조직 차원의 근거를 제시하는데 부족한 지점이 상존. 특히 2017~2018년 청년예술지원, 생활문화, 지역문화 정책이 대거 예산 및 조직 비중을 새롭게 차지함에 따라 당연히 정책 우선순위에서는 밀리기도 하고, 앞의 세 개의 사업 영역이 작동하면서, ‘다변화’와 ‘사회적’ 두 측면에서 ‘서울을 바꾸는 예술’의 사업 가치를 희석시키는 지점도 존재.

③ [신진 기획자 양성] 서울을 바꾸는 예술 : 소셜 인사이트

2017년의 아이디어 지원사업 분야를 해소하며(단순한 아이디어가 예술의 사회적 활동으로 연결되기는 매우 어려움),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로서 기획자 양성(교육)사업을 기획. 총 30명의 교육생이 5명의 멘토와 함께 새로운 사회적 활동 기획의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 새롭게 관심을 가지고 진입하는 주체를 위한 과정을 설계해보았다는 점, 재단 교육 중심이 아닌 현장에서 활동 중인 멘토 중심으로 과정을 설계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지점이 있음.

④ [담론/네트워크] 서울을 바꾸는 예술 : 모-임 / 하이라이트<sup>1</sup>

2017년의 연구 라운드테이블이 네트워크 자체로서도, 예술-사회 관계와 새로운 예술활동을 담론화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정책이 현장보다 먼저 나서서 호명하고 호출하는 방식의 한계 상존. 이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시도했던 것이 2018년의 ‘모-임’으로 현장 당사자 각각이 네트워크나 담론의 중심점이 되도록, 이 과정 자체도 현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1 서울을 바꾸는 예술 : 모-임’은 동시대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이슈에 예술가, 기획자, 활동가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양한 활동주체들이 함께 모여 자유로운 상상을 통해 콜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를 내고자 하는 대화프로젝트입니다. 「2018 ‘서울을 바꾸는 예술 : 하이라이트’ 안내문」에서 발췌

수 있도록, 아예 담론/네트워크 사업 자체도 8명의 기획자들에게로 분산화했던 것이 특징.

분산화된 것 외의 종합적인 담론화나 네트워크의 경우, '하이라이트'라는 포럼을 통해 '모-임'과 '인사이트'의 통합 결과공유회 형식으로 기계적으로나마 접근 시도.

#### 4-3) 2019년 : 지원사업으로 선택과 집중, 리서치와 임팩트

예산이 3억 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이전까지 많은 부분을 건드려 왔고 다양한 지점을 모색할 수 있었음에도(재단의 관점에 의한 것일 수도, 해당 지원금이 필요한 현장의 주체들이 먼저 떠올랐을 수도 있기에) 지원사업 분야로 폭을 좁히는 선택과 집중을 선택.

##### ① [지원사업] 서울을 바꾸는 예술 : 리서치 / 서울을 바꾸는 예술 : 프로젝트

12팀에게 1.9억 원을 지원했던 2019년의 지원사업에서 먼저 주목했던 부분은 다원예술 창작 지원사업이나 예술교육 지원사업과의 변별성을, '실질적인 변화' 측면. 이는 사회문제의 솔루션으로서의 성격이나 실제로 임팩트가 발생하는가를 예술활동으로서의 성격만큼이나 중요하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었음. 다만, '서울을 바꾸는 예술'이라는 사업의 유연성은, 사업 방향 기획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예술인들이나 행정이나 당사자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만나, 사업 중간 과정에서 사회문제에 대한 당사자성과 사회문제를 다루는 예술적 방법론으로 관심사를 이동시키는 것으로 작동. 이러한 예술인의 다변화된 예술활동 지원사업으로서의 내적인 고도화의 지점이 있었으며, '예술인은 왜/어떻게 사회적 예술활동을 하는가, 그리고 왜/어떻게 지속하는가?', '이 활동에서의 고유한 예술적 방법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가시화.

2019년 지원사업의 또 하나의 특징은 리서치를 강조하였고, 이를 아예 지원트랙의 하나로 독립시키기도 했다는 점(프로젝트 분야 또한 지원신청서에 사전 리서치 결과를 작성) 문제의식, 문제의 분석이 고유한 예술적 방법론과 체계적으로 연결되는 시작 자체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었으며, 이는 2020년의 사전 단계 '플레이어 워크숍'을 만드는 것으로 연결되기도 함.

또한, 2019년에는 지원사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며, 2018년까지의 다양한 분야의 세부사업 역시 지원사업 중심으로 연결. 리서치 역시 2018년의 신진기획자 양성사업의 전환 성격 또한 존재. 각각의 예술인이 장르 예술인, 기획자, 활동가, 매개자, 사회적 예술가, 사회적 예술

기획자, 지역문화기획자, 생활문화매개자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인과 예술활동이 이러한 여러 성격을 동시에 갖거나 그때의 관심사나 집중활동영역이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에 가깝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됨. 사회적 예술 관련 공공 행정은 특정한 기획자라는 호명을 하는 양성사업보다는 변화하는 활동을 준비할 수 있는 사전단계/리서치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리서치 사업이 도입된 지점이 있음. 이외에도 연구 역시 지원사업 선정 단계 대상의 프레임워크 마련, 임팩트 분석으로, 현장과의 소통, 네트워크 역시 최초로 도입한 지원사업 심사 결과의 풍부한 이슈에 대한 소개 자리인 ‘심사 이야기’를 개최하여 풀고자 했던 점,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 방향 역시 지원사업 선정 단계와 정기적 워크숍을 통해 마련하려 했던 점 등 지원사업 중심성 강화.

### ② [연구] 임팩트 측정 지표 설계 연구

지원사업과 밀접한, 사회적 예술의 성과 지표, 성과 측정에 대한 연구를 함께 추진. 소셜벤처, 사회적경제 부문의 전문가 집단 MYSC(엠와이소셜컴퍼니)과 협업하여 관점의 다변화와 연계 자원의 확장을 도모함. 사회적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언어, 프레임워크, 툴킷 등 선행 분야와 협업으로 사회적 예술 분야에 테스트(test)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으며, 지원 선정단계 각각이 목표하는 바의 달성을 위한 프로세스 설계 지원 역할을 하였음. 하지만, 당초 목표한 바처럼 불완전한 형태로라도 성과 지표를 설정하거나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사회적 예술 활동의 유동적이고 다양한 결을 포착하기에는 아직 연구나 언어의 개발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존재.

### ③ [담론/네트워크] 서울을 바꾸는 예술 : 수다 파티

2018년의 ‘모-임’의 연장선상과 포럼의 성격을 더해, 2019년 12월에 개최.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의 이슈를 훑어보는 좌담, 8명의 기획자들이 각각 운영하는 8개의 라운드테이블로 구성. ‘서울을 바꾸는 예술’이 예산 규모 등으로 인해 사업 자체로는 파급효과의 한계가 있고, 이에 대해 현장 전반에 대한 이슈 제기와 현장의 기획자들이 직접 제기하는 이슈 논의 방식으로 사업의 파급효과를 마련해 보고자 기획.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거나 사업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사업이 촉발하는 이슈를 살펴보는 자리가 부족하고 이것이 중요한 역할일 수 있다는 문제 의식이 2021년 사업의 예산 일몰에도 불구하고 이번 포럼과 담론집을 준비하게 된 계기였다고 볼 수 있음.

#### 4-4) 2020년 : 지원사업의 고도화 지속, 그리고 시즌1의 마무리를 준비하며

2019년에 이어 지원사업의 고도화가 이루어졌으며, 2020년 연중 2021년 예산 일몰이 결정됨에 따라 사업의 마무리 시점에서 현장과 정책에 남길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 위주로 사업을 구성.

지원사업에서는 10팀이 참여했던 ‘플레이어 워크숍’ 단계를 사전에 두어, 신청 단체들이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기획 방향을 사전 점검하고 리서치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 기관 입장에서 심사 준비하며 심사 기준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취지가 잘 작동하였느냐는 한계에도 불구하고<sup>1</sup> 좋은 예술의 사회적 활동이 무엇인지, 어떤 활동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재단과 전문가가 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심사 이후가 아닌 전부터 현장의 플레이어들과 공동으로 논의하고 모색해 보고자 함.

이외에는 사업의 일몰 후에도 남길 방향을 고민하였다. 활동 당사자들 중 하나인 지원사업 선정단체들의 자기 목소리를 남기는 방식으로 ‘담론집’을 만들고 있으며(2021.4월중 발간), 이번 포럼을 비롯하여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 자체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으로, 지원사업 외의 사업에서는 이와 같이 집중.

### 5. 서울을 바꾸는 예술 4년이 남긴 작은 변화

#### 5-1) 유연한 사업, 그리고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다양한 언어화 시도

새로운 개념과 언어화를 동반해야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이나 정책이 현장과 유리되거나 현장을 재단하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과 관계자의 피드백을 반영하고자 함. 단적으로 보자면 각 연도별로 예술의 사회적 활동이나 사업이 다루는 현장을 표현하는 언어 자체가 변화해 옴.

2017) 사회적 문제에 대한 청년의 문화예술적 개입

2018) 예술의 사회적 활동

2019) 사회적 이슈·솔루션 중심의 예술활동

2020) 사회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예술활동

이러한 변화는 사업의 준비 없음이나 불안정성으로 읽힐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이후에도 자신의 활동 자체를 언어화하는 방식에 대한 참고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며 각 연도별 공고문에서 담긴 고민이 각자의 활동이나 사업에 대한 도움이 되었으면 함.

<sup>1</sup> 어쨌든 이후의 지원사업 심사가 걸려 있는 논의이기에 이슈의 선택이든, 참여 플레이어들의 주체성 면에서든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예술과 서울이 만나는 다양한 방법, 그 만남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가능성을 짚어 보는 '서울을 바꾸는 예술 포럼'을 매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첫 시작인 올해에는 '문화기획자의 지역생존법'에 주목해 봅니다. 거대한 공연장이나 미술관에 머물지 않고 지역으로 파고 들어간 문화기획자들, 이들은 교육, 디자인, 게스트하우스 또는 제품개발까지, 또 청년, 상업, 마을, 도시공간을 아우르며 예술을 통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기하고, 지역과 문화계의 지형을 바꿔 가고 있습니다. 12팀의 문화기획자들이 지역에서 살아남는, 또 지역을 바꾸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2016 '서울을 바꾸는 예술 : 문화기획자의 지역생존' 포럼

혼술혼밥, N포세대 등 청년세대를 둘러싼 이슈부터 인구절벽, 환경문제, 먹거리안전 등 사회적 문제까지 서울이라는 거대도시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현안과 이슈들을 신선하게 통찰하고 풀어낼 청년세대의 창조적 시선과 액션을 기다립니다. '서울을 바꾸는 예술 : 청년편(Y)'을 통해 우리 삶과 사회에서 문화예술의 역할, 혹은 그 너머의 것을 새롭게 고민하고 만들어 갈 청년예술인, 기획자, 메이커스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목적 : 서울시 직면해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청년들의 문화예술적 개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영향력 있는 행동가로서의 청년 정체성 제고 및 청년예술인의 사회적 역할 확장 토대 마련  
 사회적 이슈/문제(예시) : 1.인구구조, 청년실업, 주거문제, 인구절벽, 환경문제, 4차산업혁명, 먹거리안전, 안전사고, 지역/골목길, 관계단절 등.(제시된 예시 외에도 가능)

2017 '서울을 바꾸는 예술 : 청년편 [Y]' 지원사업 공모

'서울을 바꾸는 예술 : 소셜 인사이트'는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찰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의 다양한 가능성과 솔루션을 함께 고민하고 발전시켜 보고자 하는 예비/신진기획자들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사람(人), 현장(site)을 이해하며 새로운 인사이트(insight)를 주고받을, 그리고 언젠가 사회변화의 키(key) 인사이트를 제공할 차세대 문화기획자, 활동가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8 '서울을 바꾸는 예술 : 소셜 인사이트' 참여자 공모

'2018 서울을 바꾸는 예술 : 소셜 프로젝트'는 지역과 사회에 관심이 있고,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기획한 경험이 있거나 새롭게 해 보고자 하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문화재단이 추진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이 직면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예술의 사회적 활동 사업을 발굴할 기획자, 예술가 단체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공모목적 : 서울이 직면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 및 예술의 사회적 활동 사업 발굴, 사회적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가 및 기획자 육성

기획주제 : 1.지역/도시재생, 2.소통/관계, 3.환경, 4.사회적 약자(노인, 이주민 등)

자유주제 : 지원자가 속해있는 지역이나 커뮤니티가 가진 문제들 중 1개를 선택하여 문화/예술적으로 풀어내는 프로젝트 기획

2018 '서울을 바꾸는 예술 : 소셜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모

예술은 사회 안에서 작동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며 사회와 동행합니다. 또한, 창조적 주체들은 스스로 진화하며 사회와 관계하는 방식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은 동시대적 삶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하는 예술가, 기획자, 활동가들을 한 자리에 모아, 예술과 우리 삶이 좀 더 가까워지도록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1부. 포럼

1부에서는 ‘예술 ( ) 사회 ; 변주와 다양성’(부제\_ 예술과 서울, 사회, 삶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실험들)이라는 주제로 포럼이 열립니다. 서울이 직면한 이슈에 대한 실천적 대응으로 서울의 크리에이터(모임리더이자 발제자)들이 지난 6~7월 ‘서울을 바꾸는 예술 : 모-임’에 참여하여 8개의 모임을 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예술적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각양각색의 방법들로 가능성을 탐색했던 시도들을 공유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다음 스텝이 무엇인지 함께 토론하고자 합니다.

※ [서울을 바꾸는 예술 : 모-임]은 동시대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이슈에 예술가, 기획자, 활동가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양한 활동주체들이 함께 모여 자유로운 상상을 통해 콜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를 내고자 하는 대화프로젝트입니다.

## 2부. 인(人)사이트 쇼케이스

.....나와 우리의 삶을 치열하게 관찰하고 되짚으면서, 작지만 새로운 예술적 임팩트를 고민했던 11팀의 인사이트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을 바꾸는 예술 : 소셜 인사이트’는 문화예술의 다양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삶의 방식에 대한 관심을 풀어내고자 하는 신진기획자와 예술가들을 위해 서울문화재단에서 올해 처음 추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입니다.

### 2018 ‘서울을 바꾸는 예술 : 하이라이트’

‘서울을 바꾸는 예술’은 다변화하는 예술의 공공성과 다양성에 주목하고 사회적 이슈/솔루션 중심의 예술활동을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서울문화재단이 추진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기존 ‘프로젝트’ 부문 뿐 아니라 ‘리서치’ 부문을 신설하여 운영합니다.

서울의 당면 문제를 발견하고 예술적 해결 방법을 함께 고민하며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활동하고자 하는 기획자/예술가 단체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공모대상 : 서울이 직면한 현안과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에서 실행하는 문화/예술적 활동  
신청자격 : 사회 이슈/솔루션 중심의 예술활동을 기획한 경험이 있는 단체

### 2019 ‘서울을 바꾸는 예술 : 프로젝트/리서치’ 지원사업 공모

서.바.예의 지난 여정을 돌아보고 ‘사회적 예술’ 신에서 활동하는 예술가/기획자의 고민과 스트레스, 그리고 서로의 스토리를 마음껏 토로하고 토론하는 연말결장 수다파티!

### 2019 ‘서울을 바꾸는 예술 : 연말수다파티’

'서울을 바꾸는 예술'은 다음과 같은 플레이어와 활동을 주목하고 지지합니다.

- 고유한 관점으로 도시·사회적 이슈를 바라보는 예술가·기획자
  - 작품으로 환원되지 않는, 예술과 사회가 소통하고 공진화 하는 구체적 방법론에 대한 탐색
  - 그 활동이 실제로 도시·사회와 어떻게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는 의지
- 2020 '서울을 바꾸는 예술 : 플레이어 워크숍' 지원사업 공모

### 5-2) 지원사업(선정단체)에 머물지 않는 현장과 연결 시도

2017년 시작부터 (2016년 포럼에서부터) 서울의 문화 현장과 그 현장에서 활동하는 플레이어에 대한 관심이 사업을 이끌어온 한 축이었다. 현실적으로 지원사업 중심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지만, 4년간 지속적으로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하는 플레이어들의 현장을 포착하거나, 현장과 맞닿을 수 있는 논의를 공유하고자 시도.

- 2017, 2018, 2019 라운드테이블 : 최대한 많은 현장의 플레이어나 현장 전체의 이슈를 담으려 했음
- 2020~2021 포럼, 담론집 발간 :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이 현장과 행정 전체에 남길 수 있는 가치 있는 텍스트 생산 및 공유
- 2019 심사 후 공개 행사 심사이야기 : 지원사업(심사)에서 촉발된 이슈의 현장 공유
- 2020 미니 포럼 형태의 사업설명회 : 지원사업에서 촉발된 이슈들을 현장 플레이어들에게 제기하는 방식으로 사업설명회 진행

### 5-3) 이후 지원사업의 변화를 선도적으로 도입

기획자에 대한 관심과 이와 상호작용하는 지원사업 규정, 구조에서, 지원사업 내 기획자의 역할의 적극적 규정 및 기획자 인건비 편성, 리뷰/아카이빙 형식의 모니터링, 리서치 지원사업 등, 이후 지원사업의 변화를 미리 볼 수 있던 사업.<sup>1</sup>

- 2017 적극적 기획자 호명, 인건비 책정 가능 (50%), 식대/다과 등의 업무추진비 편성 가능
- 2018 평가나 멘토링이 아닌, 리뷰와 아카이빙 방식으로 사업 모니터링 진행
- 2019 리서치 지원사업 분야 신설, 기록/아카이빙 측면 강화, 선정단체의 자기 점검 가능한 리뷰 강화
- 2020 플레이어 워크숍이 선행하는 2단계 지원사업 구조 도입

1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을 통해 접근하였던 기획자에 대한 여러 시도는 사업을 담당하는 문화기획팀(2019년), 지역문화팀(2020년)에서 각각 '도시플레이어 포럼', '예술인 문화기획활동 긴급지원 190시간'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바탕이 되기도 하였다.



## 6. 서울을 바꾸는 예술 시즌 2를 기대하며 : 사업의 한계와 미래

### 6-1) 2017~2020년의 한계

2-1)에서 언급했듯 2017년부터 서울문화재단에는 ‘서울시 예술인플랜’, 청년예술, 생활문화, 지역문화 정책이 영향력이 커지면서 ‘서울을 바꾸는 예술’과는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교집합이 큰 정책들로 결국 ‘서울을 바꾸는 예술’은 이러한 정책들의 여집합의 좁은 자리로 정체성을 선취하거나, 사업 자체의 취지나 효과 자체가 희석되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음.

이는 다시 말하자면 서로 결합할 수 있는 영역인 ‘서울을 바꾸는 예술’ 보다는 위의 정책들이 재단의 중요 비전으로 채택되었고, ‘서울을 바꾸는 예술’의 두가지 취지 ‘사회적(가치)’, ‘다변화(다양성)’ 측면에서 모두, 재단의 ‘공백’을 채우는 역할은 훨씬 더 큰 규모의 정책들이 보다 파괴력 있게 진행하였으며, ‘서울을 바꾸는 예술’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의 의미를 규정하는 면에서도 ‘예술인의 삶’, ‘청년예술’, ‘생활문화’, ‘지역문화’라고 보다 좁혀서 바라보는 것이 효과적인 부분 또한 존재.

이러한 외적 한계로 사업의 확장성이나 동력을 갖추기 어려웠던 점이, 사업 내적으로는 2017년 시작부터 프로젝트 공모 지원사업 중심으로 급히 구성된 한계에서 큰 도약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으로 드러나기도 함. 사회적 활동이 당사자성, 주체성이 중요하다면, 프로젝트 지원사업 방식이 아닌 이미 현장에서 충실한 활동을 보여준 사람에 대한 어워드형 사업이 필요하다거나, 공공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권하는 것이 아닌 (연말연초의 보릿고개든, 코로나로 인한 긴급 상황이든) 사회적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의 생존을 위한 기초 자금 또는 기획 단계에 대한 지원사업<sup>1</sup> 등도 검토된 적이 있고, 사회적 활동이기에 재단 중심성을 탈피하는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고 일부 도입하였지만 근본적인 도약 성격의 시도를 하지는 못함.<sup>2</sup>

### 6-2) 2021년 달라진 환경

서울문화재단은 더 이상 다변화된 예술활동에 대한 영역의 공백을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정도로 다양한 채널을 확보. 창작지원사업에서도 프로젝트 지원이 아닌, 리서치, 연구, 공간 지원 등으로 다양한 현장을 포괄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술청, 청년예술청과 같은 예술인 거버넌스의

1 2020년 코로나19 대응 사업인 ‘예술인 문화기획활동 긴급지원 190시간’ 사업으로 일회적으로 추진하기는 하였다.

2 이외에 예술가-기획자, 예술기획-문화기획, 사회적활동-사회적임팩트-사회적가치, 당사자성-임팩트, 예술단체-사회적활동그룹 등 다양한 지점의 고민과 논의를 건드리기만 하고 깊게 다루지 못한 지점도 있다.

실험은 영역이 아니라 예술인 당사자성에서 사업이 나오는 아예 달라진 사업 구조 방식으로 새로운 흐름에 대한 대응을 기대할 만하다. 이와 함께 장애인 예술창작지원에서 장애+예술 문제로 확장해 가고 있는 잠실창작스튜디오나, 프로그램 개발 차원을 넘어 예술적 실천 차원으로 접근해 가는 예술교육 분야 등 ‘서울을 바꾸는 예술’에서 가장 잘 관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플레이어들에게도 더욱 채널이 다양화됨.

서울문화재단 외에도 다양한 기관에서 보다 예술현장에 적합한 방식의 사회적 활동을 포괄하는 지원사업이 늘어 가고 있으며, 특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공예술 지원사업 대폭 개편(2020년), 다원예술 지원사업 부활(2021년)을 주목할 만함.(1억 원이 넘는 지원금이 선정된 공공예술 지원사업 선정단체의 경우 그 활동 자체가 자기 단체 만의 활동이라기보다는 현장 지원 플랫폼으로서의 성격 역시 지닌다)

또한, 공공기관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영역의 민간 단체, 재단, 모임, 플랫폼에서 또는 펀딩 플랫폼을 통해 사회적 활동 현장과 플레이어들을 더욱 고려하고 소통하는 방식의 활동과 사업을 진행하고 많은 예술활동 역시 이곳들을 통해 지원받는 중.

### 6-3) 시즌2를 기대하며

위와 같은 환경 변화와 함께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은 예산 일몰을 선택하였으며 이 사업의 여러 한계들을 극복하는 연장선 상에서의 어떤 새로운 사업이든, 사업의 여러 측면이 서울문화재단의 다양한 사업에 녹아 드는 형태든, 예산 일몰은 시즌1의 마무리라고 생각하고자 함.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을 추진했던 지역문화팀이 속해 있는 문화시민본부는, 생활예술 동아리만이 아닌 서울이라는 도시에서의 삶의 다양성, 시민의 다양성과 생활문화의 다양성으로 확장해 나가는 ‘생활문화’ 사업과 로컬 단위의 활동과 존재를 모두 포괄하기에 예술인들의 삶과 활동과 맞닿을 수 있는 ‘지역문화’ 사업이라는 커다란 두 축에서, 다시금 ‘서울을 바꾸는 예술’의 주요 이슈와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sup>3</sup>

행정에서 ‘더 좋은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선별하고 지원하는 관점이 아닌, 현장의 여러 플레이어들의 시작, 지속, 활성화, 파급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기대.

3 2021년 4월 공고 예정인 ‘도시문화 LAB’ 운영 단체 공모에도 많은 관심 바란다.

---

1부 서울을 바꾸는 예술, 지난 4년

발표  
①

# 서울을 바꾸는 예술 ( )서울문화재단 : 사업의 추진 배경과 변화

김진환 /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팀 팀장

## 발표 속기록

**김진환** 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팀장 김진환입니다.

저는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의 시작과 끝을 함께했고 1년 정도 사업 담당자로, 또 2년 정도는 옆의 직원으로, 그리고 2년은 담당 팀장으로 일해 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오늘 드릴 말씀은 재단의 공식입장이라기보다는 사업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속적으로 본 행정기관 근무자 개인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얘기입니다.

이러한 지점들이 제가 예술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풀다가보다도 진짜 그런 것들이 서울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는 어떤 배경, 위치에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후에 혹시 또 이러한 사업들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점검을 하거나 할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오늘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은 사실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여러 가지 분야들에 대해서 실제로 2017년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에도 다양한 것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은 일단 이름 때문에 기본적인 오해들도 많이 하시고, 예술과 사회 안의 관계에 대해서 서울문화재단이 정하고 '다 같이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돌이켜 보면 그 안에 괄호들을 그대로 둔 것 같아요. 그리고 괄호를 어떤 것으로 채워 갈지, 굉장히 많은 논의를 통해서 현장에서 발견해 보고자 했던 지점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서울을 바꾸는 예술'에서 서울과 예술 간의 관계 외에 사실 서울문화재단에 관련한 두 번째 괄호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처음 '서울을 바꾸는 예술'이라는 단어를 썼던 순간은 2016년 12월이었는데 성북신나, 작은따옴표, 청년장사꾼, 또 오늘 2부에서 토론해 주실 플러스마이너스1도씨 등 서울이라는 곳을 변화된 현장으로 보고 12인의 기획자들을 모셔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 보자는 차원이었습니다.

'서울을 바꾸는 예술'이라는 명칭은 맨 처음에는 포럼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끌어 볼까, 하는 차원에서 만들었다는 작명의 성격이 컸습니다. 이외에 방점을 찍고 싶었던 지점은, 서울과 예술 혹은 사회와 예술 간 관계에 대해서 서울문화재단이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현장의 이야기를 통해 풀어 나가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서울이라는 지역에 대한, 그리고 서울의 사회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싶었고, 서울에서 실제로 지금 다변화된 활동들을 하고 있는 현장의 기획자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자 하는 차원이 컸습니다. 이런 점들은 2016년 12월 포럼 당시에는 아직 현장에서든 정책에서든 많이 다뤄지지 못한 부분이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도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포럼의 명칭 정도로 썼다가, 2017년도에 바로 큰 사업으로 연결되었는데, 이러한 사업을 재단에서는 왜 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되었을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크게는 문화 정책 차원에서 2010년대 중반에 예술의 사회적 가치 혹은 문화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죠. 서울시나 국가 정책 차원에서 주목도 있었고, 서울문화재단도 그 흐름에 영향을 받은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술계 안에서도 공공미술, 커뮤니티아트나 문화복지형 사업 등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의 맥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 네모난 영역이 서울의 시민들이, 혹은 서울이라는 곳이 갖고 있는 다양한 현장이라고 한다면 그중 광범위한 문화의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제일 작게는 예술 중심적인 영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계속 변동하는 문화와 예술이 교차하는 영역이 있을 텐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식으로 제가 인위적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 그림의 크기나 모양에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여러 가지 도시문제에 있어서 다양한 영역들이 교차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프레임으로 서울문화재단의 2004년 출범부터를 돌이켜봅니다. 출범 초기에서는 사업의 고도화나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부족한 면이 많더라도 오히려 이런 영역들 전반적으로 곳곳에 펼쳐 있었던 사업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서울문화재단은 2009~2011년, 2017~2019년, 이렇게 두 시기가 가장 크고 중요한 변화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창작지원 사업들이 대거 광역문화재단으로 이관하기 시작합니다. 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예술교육사업들 역시 광역문화재단 전달체계가 구축됩니다.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서울문화재단이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서울시 창작 공간들을 9개 이상 개관하면서 예술 창작 영역의 사업이 더 체계적이고 고도화되고 질적으로 강화된 정책으로 발전합니다. 전체 현장과 관련해 서울문화재단의 사업은 초기와는 달리 특정 편 포인트 사업이 아니라, 예술창작, 예술교육 영역의 현장을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사업으로 변해 왔습니다. 반면에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서울문화재단의 다양한 문화사업이 일몰되고, 산발적인 사업이었으나 다양한 도시문화 현장을 건드리던 사업의 영역이 축소되었다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시에서는 2011년도부터 박원순 시정부 출범과 함께 다양한 사회혁신 정책의 영역 사업을 하면서 2010년대 중반까지 사회혁신 현장에서의 활동하는 여러 주체들이 대거 가시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체들에 대해 서울문화재단에서 창작지원, 예술교육 사업 영역만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다변화된 활동을 하는 서울 도시 현장의 예술가들, 문화 혁신가들과 어떻게 관계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바꾸는 예술'이라는 명칭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부터 이 중간 영역의 공백들을 메꿀 수 있는 사업이나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했는데요. 이러한 와중에 '서울을

바꾸는 예술'이 실제로 사업화된 2017년도부터는, 이 사업과 별개로 지역문화, 생활문화, 특히 서울예술인 플랜 수립을 통해 마련된 전기로서 청년예술 정책이 실행되면서 재단의 사업 포트폴리오에 기획사업의 성격은 약하더라도 전체 생태계를 건드리는 사업들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을 바꾸는 예술'이 원래 다루려 했던 영역과 지점을 교차하여 다루는 다른 정책들의 성장으로 인해, 사업 자체는 보다 핀 포인트로, 여러 영역이 교차되는 특정한 지점들에 대해 조금 더 희석되고 흐릿한 차원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사업 포트폴리오로서의 추진 배경들을 말씀드렸다면, 예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관심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문화재단 사업과 현장 사이의 공백을 중요하게 여겼고, 현장의 여러 주체들과 정책이든 사업을 같이 만들어 갈 그 지점을 어디선가 발견하고자 했으며, 그게 '서울을 바꾸는 예술'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는 원래 2015년, 2016년도에 정책연구팀에서 내부적인 정책 보고서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재편되는 문화정책 방향성 관점에서 일반적인 정책보고서처럼 연역적인 결론으로 사회적 예술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현장이나 서울시와의 사전 교감이 없었기 때문에 팀 이름을 이렇게 바꾸는 정도로만 당장 재단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2년간 진행되었는데, 이것에서 서울의 도시현장의 다양하고 새로운 주체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2016년 12월 포럼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갑자기 청년예술지원 사업이 몇 십 억 이상의 예산으로 서울문화재단에 편성됩니다. 사회적 예술 분야에 있어서도 아직은 고민이 영글지 못한 상황에서 일단은 청년예술지원사업의 일부 분야로서 대규모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업을 구성하며 아이디어 분야, 메이커스 분야, 프로젝트 분야처럼 여러 가지 분야로 나뉘어서 다양한 현장들을 포괄해 보고자 했고요. 그래서 80여 팀 정도를 지원을 했고, 이때는 텀블벅 스타일의 문화기획을 하거나, 사회적 경제, 사회혁신 등 이후 '서바예' 참여자들과는 결이 다른 분들도 많았습니다.

첫해 사업의 여러 고민들을 안고 2018년도 사업으로 넘어갔는데요. 2017년에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사업만 당장에 이렇게 가면 또 현장과 유리된 정책 쪽으로 갈 것 같아서 연구를 하나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50개 정도의 현장 단체와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정책을 연역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부터 귀납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저희 '서바예' 사업이든 이후에 저희 팀의 여러 사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자체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자료집에 자세하게 적어 놨으니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18년도 같은 경우 오히려 청년예술 지원 사업으로의 성격을 떼고 예산이 줄어들었지만, 관련 분야에서 공공기관이 해 볼

만한 것들은 이것저것 방식으로 다 해 본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예술의 사회적 활동이라는 것을 좀 더 전면에 내걸고, 진짜 새롭고 다변화된 예술 활동 자체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지원을 해 보고자 했어요.

그 외에도 신진 기획자 양성 분야나 담론 분야에 대해서도 서울문화재단이 중심이 아니라 좀 더 분산해서 현장 기획자들이 리더가 되어 만들어가는 양성과정,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결과를 공유, 공론화하는 하이라이트 포럼으로 연결되었고요. 그리고 이 검은색책의 경우 현장에 대한 리서치에서 나아가 지원정책을 본격적으로 마련해야 하겠다는 연구 차원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여러 실험들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2018년도에 서울문화재단 자체에서 지역문화, 생활문화 그리고 청년예술 정책의 비중이 급격히 커졌기 때문에, 2018년도에 여러 가지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2019년도에 더 일을 벌이고 더 큰 정책이나 비전 차원으로 가기보다는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지원사업 위주로 사업들을 다시금 재편하게 되었습니다. 다원예술 분야 지원과는 다른 차별성이나, 사회적 솔루션이나 임팩트 측면에서 접근해 보고자 했습니다. 실제로는 심사 과정 등을 거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정책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의 한계들을 조금 더 현장의 고민과 연결하고자 하였고, 그래서 예술인의 당사자성, 사회적 문제에 대한 당사자성이나 예술적 방법론 위주로 다시금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바예’ 외의 사업들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리서치 분야 지원 사업을 2019년 새로 기획하였습니다. 2020년까지 이렇게 지원사업 중심의 내적 고도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처음 2015~2016년의 고민들보다는 하나의 분야에 더욱 집중하고 고도화하는 고민들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의 주요 특징으로는, 심사 전에 플레이어 워크숍을 진행해서 이후에 심사 때 중요하게 논의할 부분에 대해서 미리 답을 정하지 않고 역시 신청한 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4년간 진행된 ‘서바예’가 남긴 것을 정리해 보자면, 서울문화재단에서 어떤 현장을 다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 넓어져 왔던 것이 있고, 이를 언어화하고 어떻게 정리하느냐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에 선정된 10, 20, 80여 팀에 대해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현장 전반과의 관계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이 현장 전체의 문제들과 접점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시도나 태도들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후 지원사업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변화의 단초들을 ‘서바예’에서 먼저 접근해 봤다는

지점이 있습니다. 17년도 초기 지원사업부터 기획자 역할이나 인건비 편성이 담겨 있었고, 이런 활동들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소요될 업무추진비 등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술적 성과에 대한 평가나 멘토링이 아닌 리뷰 위주로 모니터링을 진행한 점들. 그리고 리서치 지원 사업을 만들고 기록이나 아카이빙에 대해서 강조한 면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저희 팀에서 작년에 코로나 대응사업을 긴급하게 준비하면서도 190시간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서바예’에서 다른 질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아카이빙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즌 2를 기대하며’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희 본부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서울문화재단은 더 이상 어떤 영역에 대한 공백이 많이 있는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바예’만이 가능한 지원 대상이 있고, 이를 다룰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지만, 이전보다 다양성 차원에서 확대된 다양한 채널, 혹은 그릇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술청이나 청년예술청 등의 거버넌스 기반 플랫폼도 있고, 예술지원 사업 자체가 리서치, 공간 등 완전히 현장에서의 존재 자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풀리는 부분도 있고, 잠실창작스튜디오나 예술교육처럼 아예 사회적 실천과 관련한 주제들과 맞닿은 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문화재단 이외에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작년부터 공공예술 사업 대거 개편해서 진행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다원예술 지원사업이 부활하였고, 민간 현장의 다양한 단체들이 플랫폼의 역할을, 사회적 의제 관련한 지원 역할을 점점 더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시민본부에서는 앞으로도 아마 시민들의 삶에 맞는 더욱 확장된 영역의 의미로서의 생활문화와, 예술인들의 삶과 활동을 포괄하는 지역이라는 차원에서의 지역문화를 통해서 그동안 서울을 바꾸는 예술에서 다루어왔던 지점들을 다룰 수 있고 그때 고민했던 부분들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뭔가 이 사업을 그대로 맡는 게 아니더라도, 그간의 고민들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이나 미션을 기대합니다.

저희 지역문화팀에서는 ‘서바예’ 참여자들과 같은 분들이 20대 초중반의 후배들을 만나고 성장을 돕고자 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4월에 공고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로서 많은 정보를 쏟아내는 발표를 마치고자 하고요. 제가 잘 못 쓴 부분들은 자료집을 통해서 보완해서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자** 많은 내용을 단시간에 말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발제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지금 포럼은 현장에 계신 예술가분들도 관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유관기관 관계자분들 그리고 ‘서울을 바꾸는 예술’과 비슷한 주제나 범위의 사업들 혹은 제도나 정책을 고민하고 계신 기관 관계자분들도 시청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분들에게 함께 4년간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변화를 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말씀해 주시고자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업을 이렇게 하나씩 집중해서 살펴보는 기회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 발표를 의미 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정이 선생님께서 ‘서울을 바꾸는 예술’을 다년간 옆에서 함께 지켜봐 주시고 리뷰위원이나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주시면서 앞서 말씀하신 변화의 지점들을 같이 경험하시면서 하셨던 생각들을 나눠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1부 서울을 바꾸는 예술, 지난 4년

발제 ②

# 서울을 바꾸는 예술이 바꾼 것 : 생태계 차원의 참조사항 정리

김정이 / 비커밍컬렉티브

손재주 없는 뚱손이다. 어느날 금손들과 친해지면서 뚱손의 불편함이 싹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 뒤, 살아가는 이치를 터득한다. 하늘의 보살핌인지 천만다행 다양한 금손들과 친하다. 금손들은 주로 자기 영역의 전문적인 일을 한다. 나는 금손들을 엮어 일한다. 일이 곧 배움이다. 일할 때마다 설레고 신난다.

## 사전 발제문

발제문 작성을 위해 '서울을 바꾸는 예술'이 거쳐 온 4년(2017~2020년)의 시간을 회고하면서 그 시간 속에 축적된 '것'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축적된 '것'은 바꾼 '것'을 현실에 드러내는 데이터로서의 증거이다.

수많은 말들이 오간 사업이다. 그 안에서 말들은 쪼개지고 부서졌다. 내가 관여한 지원사업 중에 '서울을 바꾸는 예술'처럼 4년 내내 말들이 부딪히고 충돌을 일으킨 사업은 없다.

대부분의 경우 신규 사업이 세팅된 후 첫 심사 때 해당 지원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말들의 부딪힘과 충돌이 발생되고 나면 말들은 정리된다. 지원사업은 정리된 말을 바탕으로 설명되고 지속될 뿐이다.

공공영역 대부분의 말들은 '보편성'으로 뭉쳐 있다.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하는 성질'인 보편성의 언어는 공공지원 영역에서 특수성과 다양성을 누르고 억압하는 일종의 '폭력'이 되기도 한다.

'서울을 바꾸는 예술'은 사업명 자체부터 해당 사업을 인지해 가는 과정에서 저마다의 인식과 해석의 편차가 매우 큰, 한마디로 굉장히 도발적인 명칭이었다. 그 결과 매우 다양한 견해가 극적인 대조(명암)를 보이며 다양한 차원에서 드러나게 되었다. 그중 하나는 '예술이 서울을 바꾸는 도구인가? vs. 예술이 왜 도구가 되면 안 되는가?'로 예술에 대한 태도와 견해의 차이 스펙트럼이며 또 다른 하나는 바뀌야 할 대상인 '서울'에 대한 해석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의 서울 vs. 존재 개별이 서울을 구성하는 것(1/N)이므로 서울 시민 한 명의 변화는 곧 서울의 변화'라는 문제규정과 의제설정의 차이 스펙트럼이다. 마지막으로 '바꾸는'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문화복지(서비스)의 제공 vs. 당사자성에서 출발한 고유의 예술실천'이라는 접근법의 스펙트럼이 대표적이다. 여기서 스펙트럼이라 표현한 것은 'vs.'로 나뉜 대조군이 이분법적인 위상이 아니라 그 사이 무수한 사례와 디테일한 질문들이 존재했음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굉장히 많은 말들이 오고 갔다.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만들어졌다. 참여예술가·기획자, 외부전문가, 재단 담당자 등 입장과 위치에 따라 바라보는 각도가 달랐다. 앞서 제시한 세 가지 차원의 질문에 대한 태도와 관점 역시 어떤 루트로 경력을 쌓아 왔는지에 따라 혹은 개별적 경험에 근거한 맥락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차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공공영역 지원사업에서 선명하게 드러났다. 대부분의 지원사업이 이 차이를 평평하고 균일하게 다져 가며 행정의 지향에 맞추도록 강요했다면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은 이 부분을 존중하며 함께 고민해 온 사업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질문들을 곱씹게 하고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도록 했다. 생각하느라 몹시 피곤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단편적인 견해와 주장이 나열된 후 진행은 하고자 했던 ‘그대로’ 유지되는, ‘결국 이럴 거면 나를 왜 불렀나’ 싶은 견고한 다른 지원사업과는 사뭇 다르게 함께 구성해 가는 사업의 주체로서 나를 존중해 준 사업이기도 했다.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 속에서 나는 늘 생동감을 느꼈다. 이 사업은 특히 참여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얘기하기를 그리워했던 과정이었다.

다양한 ‘차이’가 말과 언어로 생성되고 영성하지만 ‘서바예’를 구성하는 언어의 집이 만들어졌다. 비록 해당 ‘서울을 바꾸는 예술’ 지원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이 언어의 집은 남아서 예술의 사회적 실천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모델하우스로 그 역할을 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언어의 집을 구경하며 집의 뼈대와 기반 구조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고, 취향에 따라 바뀌 낼 수 있는 인테리어는 무엇인지에 대한 준거틀로서 ‘서울을 바꾸는 예술’ 지원사업이 구성한 영성한 언어의 집이 그 역할을 해낼 때 점점 더 멋진 다양한 집들이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예술의 사회적 실천이라는 ‘언어의 집’의 핵심(뼈대와 골조)은 바로 참여자들이 함께 구성한 ‘과정 그 자체’라는 것이다.

기존 공공지원 영역에서 구축되는 언어의 집들은 대부분 건축설계자 한 사람이 설계하고(설계와 관련된 의견을 물어도 거주할 사람이 아닌 다른 건축설계자들과 의견을 나눈다) 난 후 시공업자에게 던져지면 최대한 싼 가격과 시공 시간의 단축만을 목표로 세워진다.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민원)가 늘 발생한다. 누구도 행복하지 않고 서로 책임을 떠넘긴다. 그리고 대부분의 집들은 비슷한 모양인데 ‘효율성’을 기반으로 세워지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이 함께 구성한 언어의 집은 영성하다. 열기설기, 구멍 송송, 바람이 여기저기 들고나고, 무너질 것 같으면 나무판자를 덧대어 보강하고. 기존의 겉으로 번듯한 집들과 비교하면 엉망진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틀 안에서 처음 시도된, 모두가 함께 시공한 집이 바로 ‘서바예’가 구축한 언어의 집이다. 해당 시공과정을 내 정서와 느낌을 중심으로 복기해 본다. 2016년 말 단체명도 세련되고 발제 제목도 뭔가 핫해 보이는 낯선 젊은 기획자들의 이름이

나열된 포럼이 눈에 들어왔다. 제목은 ‘서울을 바꾸는 예술 포럼 : 문화기획자의 지역 생존’.  
해당 포럼에 대한 현장의 호응과 관심은 매우 뜨거웠다. 그 포럼이 너무 핫하게 느껴져 속으로  
‘기획자로서 이제 설 자리는 없겠다’ 싶었다. 시대가 손바닥 뒤집듯 그렇게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새  
다른 세상에 닿아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2017년 공모사업이 시작되고 평가 단계에서 참여하기 시작했다. 엑셀표를 가득 채운 단체 목록을  
보면서 ‘응? 이건 뭐지?’라고 떠올렸던 그 느낌이 생생하다. 이전에 보던 예술분야 단체들로  
구성된 엑셀표와는 결이 달랐다. 스타트업인데 예술분야인 듯한, 사회를 주제로 한 순수예술인  
듯한, 종합사회복지관의 문화복지 서비스인 듯한, 청년도, 노인도, 전업예술가도, 기획자도,  
생활예술인들도 모두 제안에 참여한 듯한,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야 할지 막막한 뒤죽박죽의  
목록을 보았다. 함께 자리한 분들도 마찬가지로 다양했는데 서로의 평가기준과 관점도 뒤죽박죽,  
한마디로 사업에 대한 지향과 해석이 다 제각각이었다. 문화예술 언저리에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수집해 놓은 듯했다. 그런데 묘하게 그 자체가 흥미롭게 느껴졌다. 모두 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든 이 사업이 던진 메시지는 대체 무엇이기에…….

그 시기 ‘예술활동의 다변화와 사회적 실천’이라는 50개 단체 라운드테이블 내용에 바탕을 둔  
아카이빙형 연구보고서가 은갈치(책 표지가 은색이다)처럼 펄떡이며 나타났다. 예술의 사회적  
실천이라는 의제를 현장에 던지고 기록해 낸 아주 색다른 행보였다. 문화예술현장, 연구자,  
행정주체가 함께 언어의 집을 구성하기 시작했다. 해당 연구보고서도 아주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내게 ‘서울을 바꾸는 예술’은 구글이나 애플, 혹은 MIT 미디어랩처럼 느껴졌고 행정의 혁신을  
주도하는 실험적 행보로 느껴졌다. 실험랩 혹은 미디어랩의 목적은 성공에 있지 않다. 오히려  
실수와 실패를 용인하는 것, 길을 가다 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판단이 서면 그 자리에서 경로  
변경이 허용되는 것, 한마디로 운영에 있어 포용적 태도를 유지함에 있다.

2018년, 소셜 人사이트, 모-임, 라운드테이블이 제안되고 실천되었다.

2019년, 프로젝트 지원과 리서치 지원을 나누어 보기도 했고 예술의 사회적 실천에 대한 임팩트  
측정이 시도되었다.

2020년, 수다파티로 시작했으나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며 새로운 실험과 적용은 잠시 멈추었다. 사업이 종료되고 해당 사업은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체계의 재구조화와 맞물려 독자적 사업 단위로써 '전경'이 되기보다 지원체계 전체에 스며드는 '배경'으로서 새로운 차원으로 이동 중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4년의 시간에 대한 성찰과 회고는 본 포럼과 담론집 제작 과정에 담긴다. '서울을 바꾸는 예술' 지원사업은 그 자체가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의 주체이자 대상이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생태계 차원의 참조사항은 다음과 같다.

전나무 숲, 소나무 숲이라는 표현은 명사형이다. 그러나 동사형의 숲은 늘 변화한다. 그 안에는 다양한 종의 나무와 풀, 네발 동물과 두발 동물들, 무수한 벌레와 곰팡이가 서로 상호작용하며 변화해 간다. 마찬가지로 기존 공공문화 예술지원의 운영 구조가 '명사형'이었다면 '서바예'는 '동사형'으로서 지원사업의 새로운 축을 제시한 셈이다.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행정기관에서 참조할 영역이다.

해당 사업은 창작지원과 향유지원의 이분법 '사이'에 놓인 지원사업이다. 그 사이를 연결하는 건 '기획과 매개의 역할'이다. 이 사업은 기획의 역할이 배경에서 전경으로 등장한 사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전히 '기획'을 행위가 아닌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었다. 나는 '예술가'인가, '기획자'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로 귀결된 셈이다. 그러나 '나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하는 당사자성이 고유한 예술실천으로 연결되는 그 지점에 '기획'이 존재한다. 문화예술 지원사업 생태계 속 참여예술가·기획자들이 참조하면 좋겠다.

몇 십 년간 견고하게 구축되어 온 지원사업의 구조와 체계는 행정지원에 대한 비판을 대상화 시켜 버린 듯하다. 주체 혹은 당사자로서 해당 문제를 풀고자 하지만 비판의 내용에 비해 기존 행정의 한계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내재화된 자기규정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가 믿는 것 '그 자체'를 늘 의심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나에게 주로 해당되는 얘기인데, 나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조할 만한 사항이라고 본다. 대상화의 태도에서 비롯된 언어는 공감을 얻지 못하고 새로운 것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서울을 바꾸는 예술'이 바꾼 것은 누구도 정답을 제시하지 못할 엉뚱한 질문을 던져 누구나 자신이 그 얘기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양 여기

만들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경우 말하는 자들만 말한다. 그 결과 이야기와 언어는 생동감을 잃는다. 존재는 나약하다. 반면 서로가 말하는 과정에서 언어는 풍성해진다. 존재도 그러하다. 우리의 얘기가 우리의 존재이다. '서울을 바꾸는 예술'이 바꾼 것은 풍성한 언어를 생성시키고 그 결과 이전보다는 조금 더 풍성한 존재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1부 서울을 바꾸는 예술, 지난 4년

발표 ②

# 서울을 바꾸는 예술이 바꾼 것 : 생태계 차원의 참조사항 정리

김정이 / 비커밍컬렉티브

## 발표 속기록

**김정**이 안녕하세요? 저는 리뷰위원, 심사위원, 모니터링 위원 등 다양한 역할로 ‘서바예’가 진행되는 과정에 참여한 입장에서 지난 4년간의 ‘서바예’ 사업이 어땠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김진환 팀장님이 재단 내부의 입장으로 말씀하셨다면 저는 외부에서 이 사업을 지켜본 입장에서 가졌던 견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을 바꾸는 예술’이라는 사업명을 처음 접한 것은 2016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2016년 연말 정도에 포럼이 하나 개최됐는데 기존 예술 지원 영역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포럼이었어요. 제가 이쪽 영역에서 한 10여 년 넘게 일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들어 보는 단체명과 청년기획자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포럼이 뭔가 해서 들여다봤더니 ‘서울을 바꾸는 예술’이라는 명칭을 달고 있었어요. 어떤 내용일지 너무 궁금해서 신청을 했는데 참여 신청이 너무 많아서 신청이 안 되었어요. 결국 포럼을 보지 못했는데, 뭔데 이렇게 뜨거운가 하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대가 지금 확실히 변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새로운 흐름과 동적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듯했고, 젊은 기획자들의 새로운 움직임들을 지켜보면서 ‘이제 내가 설 자리가 있을까’ 하는 고민을 잠시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면서 ‘서바예’를 알게 되었고 2017년도부터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어요.

처음 ‘서바예’에서 선정 단체들의 목록을 엑셀표에서 봤을 때 굉장히 곤혹스러웠습니다. 한마디로 기존에 심사, 평가를 하면 대체로 알 만한 단체들과 알 만한 활동들이 많았는데 당시 그 엑셀표에는 일반적인 문화 복지 신부터 전문 예술가 그룹들까지 총망라된 굉장히 다채로운 제안들과 기획서가 모여 있었어요. 그렇게 다양한 분야의 분들과, 활동의 내용을 한 지원사업에서 본 것은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대체 이 사업은 뭐지?’라는 호기심을 자아내게 한 계기인데, 또 하나 제 궁금증은 도대체 이 사업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기에 이렇게 전문 예술가부터 시작해서 커뮤니티 아티스트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분들까지도 이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는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서울을 바꾸는 예술’은 그동안 창작 지원과 문화 복지, 향유 지원 측면에서 고착화되어 있던 경향성에 일종의 임팩트를 준, 분명히 영향을 끼친 사업이었는데, 왜 그런 임팩트가 발생했을까 생각해 봤 때 가장 주요했던 것이 저는 사업명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존 문화예술 지원 영역의 사업명을 PPT로 보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대부분 사업명들은 어떤 목적으로 저 사업들을 지원하고 누가 사업에 참여하게 되며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모두가 인지할 만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서울을 바꾸는 예술’이라는 사업명 자체는 사실 누구도 그 지원사업이 이런 것들을 원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을’이라고 할 때 ‘그 서울’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사는 도시임은 분명하지만 저희가 대상으로의 서울 전체를 서울시장이 아니고서야 대상으로 삼기 어렵고, ‘바꾸는’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 바꾸는 행위에 대한 해석의 모호성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술’이라는 것도 도대체 ‘서울을 바꾸는 예술’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처음 결합한 외부 전문가들조차도 모두다 이 사업의 지향점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웠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런 지점들이 ‘아, 이 사업에는 나도 지원서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방성을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제가 주목하는 것은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은 지난 4년간 일종의 유기체 생물처럼 성장의 과정을 겪으며 고도화되고 진화되었는데, 많은 외부 전문가들과 참여예술가 단체들, 그리고 재단의 실무 담당자들이 함께 이 사업을 구성해 가면서 다른 사업에서 볼 수 없었던 논의들이 전개되었다는 점입니다.

매번 진행되는 심사 자리마다 굉장히 강렬한 논쟁들이 벌어졌던 것으로 이 사업을 기억하는데, ‘서울을 바꾸는 예술’이라는 사업이 가져가야 할 지향과 태도가 무엇인가라는 지점에 대한 상이한 해석과 이해들이 늘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예술지원에 있어서 현장 중심의 지원구조는 다수가 원해 왔고, 원하고 있고,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top-down이 아닌 bottom-up의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위적으로 늘상,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였지만 실상 그렇다면 그 현장이 무엇이고, 현장은 어떤 일을 하며, 그리고 그 현장 중심의 지원을 위해서는 어떤 것에서부터 시작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까지는 들어간 본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서는 현장에 대한 해석, 즉 무엇이 현장이고, 예술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야 할 예술 현장의 대상이 무엇인가라는 논의들이 촉발된 셈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 사업이 가진 매우 중요한 의미맥락이라고 봅니다.

‘서울을 바꾸는 예술’을 해석하는 데 두 가지 양극 간의 스펙트럼들이 나타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김진환 팀장께서 언급하신 바대로 ‘예술보고 이제 서울까지 바꾸래? 너희가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예술을 도구화시키는구나?’ 이런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입장은 예술을 일종의 도구로, 수단으로 여기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자, 그 안에는 서울문화재단이 어떻게 보면 정치의 선전, 역할들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프로파간다를 보는 시각으로 이 사업명을 해석하는 면이 분명히 존재했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반해서 일부분에서는 이러한 입장도 있었습니다. ‘왜 예술은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야? 예술이 뭔데? 충분히 예술 자체가 시민들의 사유들을 변화시키는 지점에서 쓰일 수 있다면 예술은 도구여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같은 입장들도 나타났다고 봅니다. ‘서울을 바꾸는 예술’이라는 명칭에서 나타난 이 두 가지의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 자체는 매우 주목해야 할 지점입니다. 예술에 대한 관점과 태도에 있어서 정답은 없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동시대에 현존하는 인식의 수준이라는 점을 받아들이는 수용적 태도가 현장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차원은 이제 ‘서울’인데요. 그러면 서울이 무엇이나? 4년간 지원 사업들을 회고해 본 결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양극 간의 스펙트럼이 있는데 하나는 서울이라는 것을 문제의 지점으로서, 문제로서의 서울로 규정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환경오염, 쓰레기 문제나 리사이클 문제, 젠더 이슈 등 사회적 의제들을 다루는 일종의 주제로써 서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또 한 측면은 서울이란 시민 하나하나가 구성해 가는 총합으로 시민 개개인의 변화, 즉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서울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는 ‘바꾸는’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 측면에 문화복지나 서비스적 관점으로서 이 바꾸는 행위를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바꾸는’에 있어 예술가가 당사자성에 기반하여 고유의 예술실천, 미학적 지점을 달성해 내는 것이 무엇인가로 이 문제를 해석하는 흐름도 있었습니다. 당사자성이라든지 예술적 방법론에 대한 부분은 ‘서바예’ 참여기간 내내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점이었습니다. 모두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개념에 매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술’인데요. 예술의 스펙트럼도 ‘일상문화도 예술이다’라는 입장과 예술 그 자체로 접근하는 스펙트럼이 존재했습니다.

제가 vs.로 대비시키며 스펙트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둘 중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이에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른 차원의 접근들이 무수하게 많았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심사 단계나 리뷰 단계 때 그 디테일한 것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개념들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을 바꾸는 예술’이라는 사업 자체가 일종의 서울을 바꾸는 예술의 실험랩이라든지 미디어랩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미디어랩이라는 것은 사실 성공을 이끌어 내는 개념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미디어랩 안에서 다양한 실패들이 허용되고 실패 시 그것들을 수정, 보완해 가는 과정 중심의 입장들을 채택하는 게 그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진환 팀장님이 발표한 4년간의 행보를 보면 사업의 형태와 형식, 내용들이 굉장히 다변화되어서 전개되어 온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다변화되어 온 까닭은 바로 현장에서, 현장 중심의 예술 지원은 이래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청취와 수용을 통해 다음 연도에 그 내용을 반영한 지원사업의 형태로 변형하며 사업을 구축해 온 표식일 것입니다.

그 결과 현장 중심의 bottom-up 예술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위적인 담론에서 조금 더 한 발 나아가 아주 다양한 개념들과 언어들이 수집되었고 그 얘기들은 아카이빙되어 담론집으로 사업의 마무리를 장식할 계획입니다.

하이데거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말한 바처럼 지난 4년간 ‘서바예’ 사업이 남긴 가장 의미 있는 것, 혹은 바꾼 것은 바로 동시대의 예술 지원이 무엇인가라는 문화 행정기관들이 질문해야 할,

어떻게 보면 철학이자 본질에 대한 얘기들을 현장에 계신 분들과 나누며 그 얘기들을 수집하고 비록 열기설기할지라도 ‘서바예’ 사업 고유의 ‘언어의 집’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으로 생태계 차원에서 이 사업에 대한 참조사항을 사업에 참여한 3개 주체별로 나누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기관처럼 공공 지원을 하는 섹터에서 참조할 부분입니다. 기존 지원사업들은 모두 다 명사형의 지원사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사는 완성형을 의미하고요. 예를 들어 숲이라는 메타포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전나무 숲, 소나무 숲 같은 것은 일종의 전나무, 소나무만 남아야 하는 명사형의 숲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사형의 숲은 그 안에 있는 유기체들의 다양성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하는 과정으로서의 시스템인 숲을 의미합니다. 저는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이 이러한 동사형의 숲이라는 시스템으로 이 사업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지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동사형의 행정지원에 대한 준거들을 맛보기식으로 보여 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후 공공기관과 서울문화재단의 ‘서바예’ 시즌2는 현장 중심의 태도와 방법론으로 동사형의 다양한 구성체를 인정하는 지점을 참조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기획자, 예술가 단체들이 참조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사이를 지원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기존의 문화예술지원은 보통 창작 중심의 지원 체계와 향유자 중심 지원 체계로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이들의 예술 지원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2017년에 저를 당황하게 했던 그 엑셀표에 들어온 단체들의 명단 데이터 그 자체가 이를 입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 기획이란 ‘창작을 촉진하기 위한 기획, 또는 향유를 촉진하기 위한 기획’이라는 배경적 입장에 놓인 일이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 비로소 기획 그 자체가 전경으로 드러나는 사업이 전개된 셈입니다. 제 생각에는 바로 그 지점에서 기존 지원사업에 없었던 사이와 틈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서바예’는 기획자들이 기획자의 이름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유일한 사업이 된 셈입니다.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성이란 개념인데 기획에서 당사자성이 제거될 경우 서비스 제공과 문화 복지 영역으로만 축소되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헛갈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사자와 당사자성은 다른 것이라는 점입니다. 당사자성은 뒤에 붙은 ‘성’이 중요하네요, 성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거주 문제로 보면 우리 모두가 집에서 거주하는 당사자이지만 당사자성은 집에 대한 일종의 입장 같은 것으로 거주=경제적 가치로 보는지, 아니면 거주=삶의 질의 가치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획자 고유의 해석, 예술적 접근과 실천 방법론들은 이 당사자성에 따라 각기 다르게 발현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기획자 예술가 단체들이 지원사업 공모 시 참조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끝으로 저의 입장에 놓인, 예를 들면 외부조력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참조하면 좋을 내용입니다.

사실 현장 중심 지원의 필요성과 관련한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이와 관련한 행정을 비판하는 얘기도 굉장히 오랜 기간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서바예’에 참여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 모두 알게 모르게 고착화된 행정지원시스템 속에 갇혀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상자 밖에서 행정지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4년간 ‘서바예’를 통해서 구축된 수많은 의제들과 개념들은 영성할지언정 동시대 예술 지원은 무엇이고 그 안에서 기획자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일종의 메시지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영성한 언어의 집이지만 구성된 설계를 바탕으로 서울문화재단 전체의 사업 영역에서 이런 문제의식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서바예’ 시즌 2에서는 현장 중심의 예술 지원이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나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두 분께서 ‘서울을 바꾸는 예술’에 대해서 다른 입장과 각도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시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오늘은 이 하나의 사업을 여러 각도에서 보면서 공공지원 안에 머무르는 논의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을 텐데 앞으로 2부에서 관점에 따라서는 하나의 사업을 매개로, 혹은 이것을 시작으로 공공지원에 대해서 더 많은 질문을 던지는 예술의 사회적 활동 자체를 놓고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 역시 이 사업에 결합해서 같이해 봤던 입장에서 흥미로웠던 것은 이 사업을 같이 고민해 달라고 재단이 요청하는 자리가 다른 지원사업에 비해서 많았던 것 같다는 점입니다. 생각해 보면 재단은 완성된 지원사업을 하나 설계해서 그냥 오픈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달라졌으면 좋겠는지, 어떻게 달라지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현장에게 많이 물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그 질문을 던지는 자리의 연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했다기보다는 갑자기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늘어나서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기도 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공감을 잃어서 다른 방법들을 시도해 보기도 했다, 이런 얘기들을 오늘 해 주신 것으로 이해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어서 2부는 3시에 바로 시작할 예정인데요. 좀 더 현장에서 실제로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해 오고 계시거나 고민해 보신 분들과 함께 발제와 토론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8분 정도 휴식 시간 이후에 3시에 다시 포럼 시작할 텐데, 3시에는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을 채팅창으로 많이 남겨 주시면 포럼 후반부 질의응답 시간에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을 바꾸는 예술 포럼 : 예술의 사회적 활동, 다시 질문하기

---

2부 공공지원에 질문을 던지는  
예술의 사회적 활동

**사회자** '서울을 바꾸는 예술' 포럼 사회적 활동 다시 질문하기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부에서도 이어서 진행을 맡고 있는 최선영이라고 합니다. 2부에서는 '공공지원에 질문을 던지는 예술의 사회적 활동'이라는 주제로 두 분께서 발제, 세 분께서 함께 토론을 하면서 얘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1부에서는 두 분의 선생님께서 '서울을 바꾸는 예술'이라는 사업에 좀 더 집중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2부에서는 공공지원에 질문을 던지는 예술의 사회적 활동과 관련해서 두 분의 발제를 듣고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에 직접 참여, 관여하거나 혹은 '서울을 바꾸는 예술'에 참여하지는 않으셨지만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해 온 분들과 함께 여러 논의들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2부는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2부에서 첫 번째 발제로 프로듀서그룹 도트의 박지선 님께서 예술의 사회적 활동 현장과 공공지원의 연결에 대해 얘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2부 공공지원에 질문을 던지는 예술의 사회적 활동

발제 ①

# 예술의 사회적 활동 현장과 공공지원

박지선 / 프로듀서그룹 도트

연극, 무용, 다원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 걸쳐 활동하는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로 축제, 레지던시 기획, 공연예술작품 제작 및 국제 네트워크(아시아 프로듀서 플랫폼/APP)를 기획,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도시, 경제, 기술과 예술, 기후 변화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예술가와 새로운 탐험을 하며 예술의 동시대성을 탐구하고 있다.

## 사전 발제문

지난 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전 세계 곳곳의 봉쇄와 격리 소식이 들려오고, 진행하고 있던 국제 공동제작 및 프로젝트들은 줄줄이 취소되었고, 해외 동료들의 상황과 고민을 공유하기 위해 6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대화를 나누었다. 개인의 삶의 변화, 예술계의 새로운 화두, 국제 이동성의 새로운 가능성과 한계 등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결국 ‘이 시대의 예술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되었다.

*우리에게 예술의 역할이란 과거에 그랬듯이 언제나 그리스극과 연결되어 있다. 사회적 이벤트이다. 우리에게 있어 예술의 역할이 사회성을 띠어야 한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당연히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작업은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거기서 사람들이 이를 위해 인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 알토페스트 지오바니 예술감독 -*

*예술이 궁극적 해답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해답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필수적 방법이라고 생각해 왔다. 자신만의 공간에 갇혀 있다면 똑같은 질문과 접근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스스로의 사각지대를 발견하지 못해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예술은 이와 정반대의 작용을 한다. 제안을 하고, 연구를 하며,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대화나 문제의 구조를 세우고, 새로운 논의를 불러일으킨다. 과학적 연구처럼 점점 좁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정을 통해 다수의 가능성 중 해답이 아닌 것을 제해 나가며 궁극적 답을 찾는다. 하지만 예술은 복합적인 것을 다루어 나가면서 더 단순해 보이도록 만든다. 새로운 조명을 비추는 것이다. 예술은 사회적 변화, 희망, 인류의 발전을 위한 노력의 촉매제이다. - 이안 홍콩 아트센터 프로듀서 -*

작년 화천 텃밭에서 기후변화 레지던시를 기획, 운영하였다. 함께한 예술가, 기획자와 많은 토론과 작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우리의 반복적인 질문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고 소통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활동가가 아니고, 예술가이다. 예술가의 방법론은 무엇인가?’였다. 우리는 스스로 활동가가 아님을 반복적으로 되뇌었다. 이 거대한 이슈에 대해 예술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대기과학자 조천호 박사는 “사람들이 과학자가 제시하는 논리적인 데이터만 가지고서는 변화하기 힘들다. 일상에 균열을 일으키고 새로운 것을 보여 주는 예술의 강렬함과 상징성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다”라며 예술의 힘을 지지해 주었다. 예술가는 자신의 예술적 언어로 동시대에 직면한 사회적 문제들을 사람들 사이에 드러내고 불편함을 만들어 문제를 인지하게 하고 확장한다. 그렇다면 예술가는 또 다른 종류의 활동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코로나 이전에 우리에게 세월호와 블랙리스트가 있었고, 이 사건들은 예술 생태계의 변화와 함께 많은 예술의 사회적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물론, 예술가들과 기획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예술 작업을 해 나갈 뿐, 불현듯, 사회적 예술을 하고 있다고 발언하지 않는다. 잠시 생각해 보면, 창작그룹 노니의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한 퍼포먼스 ‘구명조끼 304’,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어진 안산순례길개척위원회의 ‘안산순례길’, ‘세월호연극제’, 노동, 개발, 인권, 장애, 위안부, 기지촌 할머니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슈들을 드러내고 지속적인 질문을 던진 ‘변방연극제’ 등 사회적 활동으로서의 많은 예술 작업들이 떠오른다. 물론 지금 언급한 작업들 외에도 동시대의 많은 예술가들은 장애, 인권, 도시, 개발, 실업, 노동, 젠더, 여성, 혐오, 차별, 기후변화, 정의, 불평등 등의 이슈들을 탐색하며 예술 작업을 해 오고 있다. 어찌 보면 지금 시대에 사회적 활동이 아닌 예술을 찾아보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 아닐까. 오히려 지금은 어떤 주제를 다루느냐가 아니라, 예술가와 기획자의 질문을 던지는 구도와 방식이 중요할지 모른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발제 주제는 ‘예술의 사회적 현장에서 공공지원의 한계 및 시사점’이었다.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획자로서 공공지원을 바라보는 관점을 얘기해 달라는 요청이다. 공공지원은 예술가와 기획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 나가는데 큰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공공지원제도가 지나치게 예술 현장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예술 생태계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여 년 동안 지원제도와 더불어 새롭게 발명된 언어(다원예술, 커뮤니티예술, 청년예술, 생활예술 등과 같은)는 마치 그 이전에 그런 예술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제도의 화려한 틀을 만들어 내기 위해 애써 왔다.

‘서울을 바꾸는 예술’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을 때도 ‘사회적 예술’이라는 언어 앞에 지금과는 다른 예술로 사회적 예술을 정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사회적 주제를 다루고 있다 하더라도 기존 예술 작업과는 다른 형식의 예술을 찾아야 하는 압박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른다. 연극, 시각, 다원예술 분야에서 창작지원을 받는 예술가들의 작업과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새로운 지원제도가 존속될 수 있는 당위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원제도가 발표되면, 현장은 지원의 수혜를 받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과 작업의 성격을 고민하고, 때로는 제도의 틀에 작업을 맞추는 지원제도 맞춤형 프로젝트를 기획하기도 한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기존에 현장에 존재하고 있으나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 작업들을 지원의 틀 안으로 수용하기 위해 새로운 가지의 제도를 만들어 낸다고 볼 수 있으나 다른 면에서 바라보면 지나치게 형식화함에 따라 현장의 작업들을 하나의 틀 안에서 평평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한다.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쩌면 기존의 장르, 형식, 행위자, 결과물을 넘어선 상상력을 펼쳐야 하는 것일지 모른다. 아니면 기존의 다른 지원 영역에 놓여 있는 많은 예술 작업들을 포함하여 지원대상으로 삼아야 할 수도 있다. 모두 수용하든지, 철저히 차별화하든지. 따라서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 안에서는 ‘이 작업은 예술 교육의 프로그램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이 작업은 다원예술 창작 지원 사업의 범주에 적합한 사업 아닐까? 이것은 예술 작업으로 수용할 수 있을까? 커뮤니티 예술로 봐야 하지 않을까?’ 등 ‘서울을 바꾸는 예술’ 지원에 적합한 프로젝트란 어떤 작업인지에 대한 수많은 질문과 고민, 토론이 있었다. 물론 현장과 지원기관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지원사업의 의미와 가치, 방향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고 가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지원사업 안에서 끝없이 사회적 예술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 내며, 기존 예술과의 선긋기를 통해 예술의 사회적 활동의 범주를 만들어 내고, 마치 다원예술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회적 예술 또한 하나의 장르화가 될 수 있는 곳에 다다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은 2020년을 끝으로 사라진다. 지난 몇 년간 어떤 지원사업보다 현장과 기관이 함께 많은 논의를 거치고 매년 새로운 시도를 하며 기존의 지원제도와는 다른 길을 걸어왔던 사업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원이 존속될 수 있는 당위가 만들어지지 못한 것일까? 이제야 예술가들과 기획자들은 ‘서울을 바꾸는 예술’이 지향하는 예술의 사회적 활동과 관련한 언어를 습득했는지 모른다.

다음으로는 지원사업의 성과지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해 보고자 한다. 지난 해 진행했던 기후변화 레지던시는 ‘기후변화’에 대한 예술적 대응에 대한 예술가/기획자들의 탐구와 실천 프로젝트였다. 코로나로 지역민들과 많은 접점을 찾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공간을 오가며 6개월 동안 깊이 있는 토론과 리서치가 진행되었고, 예술가들의 작업 결과물들은 온오프라인으로 발표되고, 온라인 포럼과 웹사이트를 통해 작업의 모든 과정이 공유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사업의 평가는 두 차례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오픈 스튜디오 현장 평가였고, 두 번째는 온라인을 통한 성과 공유였다. 그러나 6개월간 쌓아 온 과정의 가치와 성과들을 공유한 뒤 돌아온 피드백은 결국 ‘몇 명의 지역민이 참여했는가?’로 우리의 모든 과정을 순간 납작하게 만들어 버렸다. 공공지원의 성과지표는 대부분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지원기관의 관점에서 효율성을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으로 성과지표가 만들어지고 평가되는 구조이다 보니 계량적 수치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관계를 맺어 나가는가이다. 결과적으로 무엇을 만들어

내었는지, ‘완성’에 집중하기 보다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 나갔는지, 불편함을 어떻게 이끌고 나갔는지 등에 대한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

과정 중심의 예술 프로젝트는 그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 과정을 성과의 중요한 지표로 삼고 평가하는 것은 지원기관의 노력이 배로 드는 일일 것이다. 과정에 귀 기울이고, 이 작업이 어떤 레거시를 만들어 내었는지 총체적 관점에서 사업을 입체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에서는 기존의 계량적 수치만을 기준으로 하는 성과방식에서 벗어나 각 예술 프로젝트의 사회적 가치와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을 시도해 보기도 했다. 예술가들에게도 낯선 접근이다. 간혹 예술가가 의도하지 않은 영향력을 제시하는 경우 작업이 왜곡 해석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보이기도 한다. 어느새 현장에서도 기관이 요구하는 성과지표에 내 몸을 맞추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 형식적인 숫자로 결과 보고서를 수월하게 채운다. 예술의 사회적 활동이 완성이 아닌 과정에 중심을 둔다면, 예술 활동이 다각적인 관점에서 해석되고 비평될 수 있도록 입체적인 시선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서울을 바꾸는 예술’ 지원사업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공공기관이 대놓고 예술을 도구화하고 있고, 예술가들이 지원기관이 부여한 어떤 미션 아래 놓여 있다는 비판적 시선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동안 이 사업은 기존 지원사업과는 다른 길을 걸어왔다. 현장의 기획자, 예술가들과 함께 사회적 예술에 대한 담론을 만들고, 같은 지향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예술가들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했으며, 사회적 가치와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평가 방식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서울을 바꾸는 예술’ 지원사업은 사라진다. 어쩌면 이름을 달리한 유사한 사업이 다시 만들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다시 ‘그 사업에 맞는 예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부터 다시 시작하게 될지도 모른다. 예술 생태계의 구석구석을 잘 살펴본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작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예술작업을 위해서 지원제도가 공표하듯이 만들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탑다운(top-down)의 방식이 아닌,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지원제도가 설계되기를 바란다.



2부 공공지원에 질문을 던지는 예술의 사회적 활동

발표 ① 예술의 사회적 활동 현장과 공공지원

박지선 / 프로듀서그룹 도트

**박지선**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 받은 프로듀서그룹 도트의 박지선입니다. 제가 오늘 발제를 맡은 내용의 제목은 예술의 사회적 활동 현장과 공공지원인데요. 사실 예술의 사회적 활동이라는 단어도 다소 무겁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서 발제문을 작성을 하는 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평소 생각하던 것을 여러분과 함께 질문도 나누고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2020년 모두 다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들게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곳곳에 봉쇄와 격리 소식이 계속 들려오더니 진행하고 있던 국제 제작이나 프로젝트들이 모두 취소되었고, 그러다 보니 해외 동료들의 상황과 고민들도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해외 동료들과 온라인 대화를 나눴는데요. 개인의 삶의 변화, 예술계의 새로운 화두, 그리고 국제이동성의 새로운 가능성 등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저희가 가장 근본적으로 돌아왔던 질문은 결국 이 시대의 예술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우리의 삶 전체를 어떻게 전환할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그러다 보니까 예술 활동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결국 우리는 앞으로 어떤 예술을 해야 할 것인가, 예술은 동시대에 어떤 역할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두 명의 예술가, 그리고 프로듀서가 대답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먼저 공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은 이탈리아의 나폴리에서 하는 알토페스트의 지오바니 예술감독이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예술의 역할이란 과거에 그랬듯이 언제나 그리스극과 연결되어 있다. 사회적 이벤트다. 우리에게 있어 예술의 역할이 사회성을 띠어야 한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당연히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은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거기서 사람들이 이를 위해 인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는 홍콩 아트 센터에서 프로듀서로 활동 중인 이안이라는 분이 예술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술이 궁극적 해답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해답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필수적 방법이라고 생각해 왔다. 자신만의 공간에 갇혀 있다면 똑같은 질문과 접근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스스로의 사각지대를 발견하지 못해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예술은 이와 정반대의 작용을 한다. 제안을 하고, 연구를 하며,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대화나 문제의 구조를 세우고, 새로운 논의를 불러일으킨다. 과학적 연구처럼 점점 좁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정을 통해 다수의 가능성 중 해답이 아닌 것을 제해 나가며 궁극적 답을 찾는다. 하지만 예술은 복합적인 것을 다루어 나가면서 더 단순해 보이도록 만든다. 새로운 조명을 비추는 것이다.



예술은 사회적 변화, 희망, 인류의 발전을 위한 노력의 촉매제이다.

제가 해외의 15명의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것은 결국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술의 역할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분이 얘기한 것처럼 예술은 원래부터 사회적인 활동의 하나로 우리 삶 안에 존재했고 지금이 더욱, 하나의 궁극적인 해답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 해답을 찾아가는 데 필수적 방법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진행했던 작업 중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화천에서 한 기후 변화 레지던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예술터밭 예술가 레지던시-기후변화 웹사이트를 보실 수 있는데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웹사이트에 가시면 작년에 저희가 한 활동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레지던시 활동을 하면서 함께한 예술가, 기획자와 많은 토론을 진행했고, 그 안에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요. 기후변화와 관련한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고 소통해야 하는가? 우리는 활동가가 아니라 예술가인데 예술가로서 방법론은 활동가와 무엇이 달라야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는 활동가가 아니라 예술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되뇌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거대한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술가나 기획자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희와 워크숍을 같이 했던 대기과학자 조천호 박사님께서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자가 제시하는 논리적인 데이터만 가지고서는 변화하긴 힘들다. 일상에 균열을 일으키고, 새로운 것을 보여 주는 예술의 강렬함과 상징성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다”라면서 예술의 힘을 보여 주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예술가는 자신의 예술적 언어로 동시대에 직면한 사회적 문제들을 사람들 사이에 드러내고, 불편함을 만들어서 문제를 인지하게 하고 확장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해 왔던 ‘예술가는 활동가가 아니다, 활동가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를 고민했던 점을 다시 생각한다면 결국에 예술가는 또 다른 종류의, 예술을 통해서 사회에서 활동을 하는 또 다른 활동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 우리에게 세월호와 블랙리스트가 있었고 이 사건들은 예술 생태계의 변화와 함께 많은 사회적 활동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물론 예술가들과 기획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예술작업을 해내고 있을 뿐이고, 갑자기 사회적 예술을 하고 있다고 발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면 창작그룹 노니가 광화문 광장에서 실시한 세월호 진실 규명을 위한 퍼포먼스 ‘구명조끼304’,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어진 안산순례길 개척위원회의 ‘안산순례길’. 그리고 세월호 연극제, 노동, 개발, 인권, 장애, 위안부, 기지촌 할머니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이슈들을 드러내며 지속적인 질문을 던졌던 ‘변방연극제’ 등 사회적 활동으로서의 많은 예술작업들이 떠오릅니다. 물론 지금 언급한 작업들 외에도 동시대 많은 예술가들은 장애, 인권, 도시, 개발, 실업, 노동, 젠더, 여성, 혐오, 차별, 기후변화, 정의, 불평등 등 이런 많은 이슈를 탐색하며

예술작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시점에 따라서는 지금 시대에 사회적 활동이 아닌 예술을 찾아보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 아닐까 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어떤 주제를 다루느냐가 아니라 예술가와 기획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구도와 방식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한테 처음에 주어진 발제 주제는 ‘예술의 사회적 현장에서의 공공지원의 한계 및 시작점’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공공지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획자에게 공공지원을 바라보는 관점을 얘기해 달라는 요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공공지원은 예술가와 기획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가는 데 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공공지원 제도가 지나치게 예술 현장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예술 생태계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10여 년 동안 지원제도와 더불어 새롭게 나온 언어들, 즉 다원예술, 커뮤니티 예술, 청년예술, 생활예술 등과 같은 이런 언어는 마치 그 이전에 그 예술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서 제도의 화려한 틀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애써 왔습니다. ‘서울을 바꾸는 예술’ 지원사업이 시작됐을 때도 사회적 예술 언어 앞에 지금과는 다른 예술로 사회적 예술을 정의하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사회적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예술작업과는 다른 형식의 예술을 찾아야 하는 압박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보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연극이나 시각, 그리고 다원예술 분야에서 창작지원을 받는 예술가들과 작업과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할 새로운 지원제도가 존속되어야 할 당위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지원제도가 발표가 되면 현장은 지원의 수혜를 받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과 작업의 성격을 고민하고, 때로는 제도의 틀에 작업을 맞추는 지원제도 맞춤형 프로젝트를 기획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기존 현장에 존재했지만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작업들을 지원의 틀 안으로 수용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지나치게 형식화하면서 현장의 작업들을 하나의 틀 안으로 들여와 오히려 평평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우려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는 어쩌면 기존 장르와 형식, 행위자, 결과물을 넘어선 상상력을 펼쳐야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기존 다른 지원 영역에 놓여 있는 많은 예술작업들을 포함하여 지원대상으로 삼아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지금 현재 모든 예술 활동들을 수용하든지 아니면 철저히 차별해야 하는 그런 두 가지의 기로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저도 ‘서울을 바꾸는 예술’의 심사와 리뷰위원으로 작년 한 해 참여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논의 안에서 ‘이 작업은 예술 교육의 프로그램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또는 ‘이 작업은 다원예술 창작지원사업의 범주에 적합한 사업은 아닐까?’, ‘이것은 과연 예술인가?’, ‘이것을 우리가

예술이라고 수용할 수 있을까?’, ‘이 작업은 예술교육 또는 커뮤니티예술로 봐야 하지 않을까?’ 등 ‘서울을 바꾸는 예술’에 적합한 프로젝트란 어떤 작업인지에 대한 수많은 질문과 고민, 토론이 있었습니다.

물론 현장과 지원기관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지원사업의 의미와 가치, 방향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고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지원 사업 안에서 끝없이 사회적 예술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 가며 기존 예술과의 선긋기를 통해서 예술의 사회적 활동의 범주를 만들어 내고, 마치 다원예술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회적 예술 또한 하나의 장르화가 될 수 있는 곳에 다다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서울을 바꾸는 예술’ 시즌1은 앞에 1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을 끝으로 사라집니다. 시즌1이 사라지고 시즌2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 몇 년간 다른 지원사업들보다 현장과 기관이 함께 많은 논의를 거치고, 매년 새로운 시도를 하며 기존의 지원제도와는 다른 길을 걸어온 사업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원이 존속될 수 있는 당위가 만들어지지 못한 것인지 하는 질문이 듭니다. 사실 이제야 예술가들과 기획자들이 ‘서울을 바꾸는 예술’이 지향하는, 예술의 사회적 활동과 관련한 언어를 습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지원사업의 성과지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난해 제가 진행한 기후변화 레지던시는 기후변화에 대한 예술적 대응에 대한 예술과 기획자들의 탐구와 실천 프로젝트였습니다. 코로나 지역민들과 많은 접점을 찾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었으나,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을 오가며 6개월간 깊이 있는 토론과 리서치가 진행되었습니다. 예술가들의 작업 결과물은 온, 오프라인으로 발표되고 온라인 포럼과 웹사이트를 통해서 작업의 모든 과정이 공유되고 확장되었습니다.

사업의 평가가 두 차례 진행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오픈스튜디오 현장평가였고, 두 번째는 온라인을 통한 성과공유였습니다. 그러나 6개월간 쌓아 온 과정의 가치와 성과들을 공유한 뒤 돌아온 피드백은 결국 몇 명의 지역민이 참여했는가였고, 우리의 모든 과정을 순간 납작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국의 공공지원 성과지표는 대부분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원기관의 관점에서 효율성을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으로 성과지표가 만들어지고 평가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계량적 수치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관계를 맺어 나가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을 만들어 냈는지 ‘완성’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 나갔는지, 불편함을 어떻게 이끌어 나갔는지 등에 대한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정 중심의 예술 프로젝트는 그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 과정을 성과의 중요한 지표로 삼고

평가하는 것은 지원기관의 노력이 아마 지금보다 두 배로 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정에 귀 기울이고 이 작업이 어떤 레거시를 만들어 냈는지 총체적 관점에서 사업을 입체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에서는 기존 계량적 수치만을 기준으로 하는 성과 방식에서 벗어나서 각 예술 프로젝트의 사회적 가치와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을 시도해 봤습니다.

이것은 예술가들에게도 굉장히 낮은 접근인데요. 가령 예술가가 의도하지 않은 영향력을 제시하는 경우에 작업이 왜곡되고 해석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느새 현장에서도 기관이 요구하는 성과지표에 내 몸을 맞추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서 형식적인 숫자로 결과보고서를 수월하게 채우기도 합니다. 예술의 사회적 활동이 ‘완성’이 아닌 ‘과정’에 중심을 두기 위해서는 예술 활동이 다각적인 관점에서 해석되고 비평될 수 있도록 입체적인 시선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을 바꾸는 예술’ 지원사업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일부에서도 계속 나온 이야기인데요. 공공기관이 대놓고 예술을 도구화하고, 예술가들은 지원기관이 부여하는 미션 아래 놓여 있다는 비판적 시선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동안 이 사업은 기존 지원사업과는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현장의 기획자, 예술가들과 함께 사회적 예술에 대한 담론을 만들고 같은 지향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예술가들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와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평가 방식을 도입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사업은 사라집니다. 어쩌면 이름을 달리한 유사 사업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맞는 예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부터 또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예술 생태계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작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예술 작업을 위해서 지원제도가 만들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탑다운(top-down)의 방식이 아닌 현장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지원제도가 설계되기를 바라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2부 첫 번째로 박지선 선생님께서 예술의 사회적 활동 현장과 공공지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1부의 내용과 좀 더 연결해서 생각을 해 보자면 1부에서는 현장과 소통하면서 사업을 개선하거나, 목소리를 반영해서 사업들을 변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나 실험들, 그러면서 어려움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2부에서는 그런 노력들을 알고 있음에도 또 지원사업이나 정책들이 고도화되면서 이미 있던 활동들에 사회적인 이름이 부여되지 않았을 때 혹은 부여되었을 때 어떤 양상으로 갈 수 있다는 지점들을 짚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원사업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현장의 필요성이나 예술의 시대적 질문이 중요해지기보다는 어떤 활동들이 얼마나 이 사업에 적합한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러한 방향성들로 현장도 활동들이 경직되거나 그것에 맞추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굉장히 넓은 얘기들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사실은 예술의 사회적 활동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토론자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함께 생각한 것은 어떤 범위나 영역에서의 활동들에만 함축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공공지원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질문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오늘 2부에서는 이와 연결해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이어서 시각예술가이신 김인규 작가님께서 ‘공공지원 밖에서의 예술의 사회적 활동 현장’을 얘기해 주실 텐데요. 앞서 박지선 선생님께서 공공지원이 현장과 엇갈리거나 혹은 만나는 가능성이나 어려움들, 이러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다면 김인규 선생님께서는 직접 공공지원 밖에서 혹은 안에서 이러한 활동을 해 보시면서 들었던 고민과 실천을 바탕으로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부탁드립니다.



2부 공공지원에 질문을 던지는 예술의 사회적 활동

발  
제  
②

# 공공지원 밖의 예술의 사회적 활동 현장 “공공지원 밖에서 하기”

김인규 / 시각예술가

충남에서 오랜 세월 미술교사를 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예술활동을 해 왔다.

현재는 개인작업을 하면서 예술교육과 발달장애인 예술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 사전 발제문

발제 요청을 받고 망설였다. 그날, 바로 오늘이 내가 유치원에 가서 수업을 하기로 한 날이기 때문이다. 아이들과 약속을 어기는 것이 망설여졌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나는 오랜 세월 현직 교사로 일해 왔고, 지금은 연금이 있어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공공지원 밖에서 일을 해 왔다면 그나마 그것이 배경이 될 수 있겠다. 그게 많은 작가들에게는 특별한 상황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나의 얘기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고 나오게 되었는데, 내가 살아온 얘기를 하게 된다는 점 또한 좀 쑥스럽다.

나는 2000년 초반 대학원에서 공공미술을 공부했는데, 이때 수전 레이시의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지형그리기(Mapping the terrain new genre public art)』와 권미원의 『장소 특정적 미술(One place after another)』, 이 두 권의 책을 번역했다. 나는 이즈음에 본격적으로 미술교육을 ‘공동체 기반의 미술실천’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나의 실천은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었다. 매우 적극적으로 실천을 했고 그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아마도 맨 처음 공공지원을 받은 것은 아르떼가 설립되기 직전 문광부에서 시행했던 학교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이었다. 그 기획에는 교육을 학교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로 확장하는 원대한 포부가 담겨 있었다. 당시 공모 주체는 서천문화원이었는데, 내가 사업을 기획했고, 기획자로서 사업의 전체를 총괄하였다. 3년차 사업이었고 총 예산 3억6000만 원으로 당시로서는 큰 금액이었다. 물론 나에게서는 인건비가 없었고 약간의 업무추진비를 지급받는 정도의 봉사활동이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시선은 달랐다. 그들은 ‘왜 현직교사가 학교 밖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하였다. 사업의 내용보다는 사업비라는 돈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그것은 몇몇 사람들에게 시빗거리가 되었고 그게 원활한 사업 수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1년쯤 하고 나서 나는 그만두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 뒤로 직접 기금을 신청하는 일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몇몇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초청받아 참여하였다. 주로 지역사회 안에서의 아이들의 삶과 일상에 참여하는 활동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느낀 한계는 사업 기간 안에 모든 게 시작되고 끝난다는 것이었다. 사업 기간은 길어야 몇 개월에 불과했는데, 주당 1회씩 하다 보니 일시적인 체험을 넘어서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현직교사로서 주말 활동만 할 수밖에 없으니 더욱 그랬다. 활동이 끝나고 나면 이게 기만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그렇게 나는 공모사업이나 지원 시스템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을 스스로 내려놓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차라리 학교 울타리 안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후 학교 밖에서 벌인 일 중의 하나가 지역의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 미술활동을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시작할 당시 어떠한 지원과 공모사업과 연계 짓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가능한 그것을 일상적인 활동으로 자리잡게 하려 하였다. 2011년부터 시작했으니 현재까지 10년 넘게 지속하고 있다. 애초에 이리 오래 하게 될지 예상하지 못했으나 그렇게 되었다. 나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지역에 살고 있으니 말이다. 그게 진짜 일상이 되었는데, 아마도 지원 없이 출발을 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다. 애초에 아무런 지원이 없었으니 순전히 자발성에 기반하게 된다. 상황에 따라 약간의 기금을 받기도 하였지만, 그것은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았다. 스스로 지속할 내적 욕구가 있으면 그것으로 일단 충분한 것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제약이 없이 기획자로서 강사로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다. 성과에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활동을 편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것은 스스로를 만족하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그만둘 수 없게 만드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되었다.

최근에는 이 활동을 지역의 복지관이 떠안으면서 공공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인건비를 받지 않는 자원봉사 기획자, 혹은 보조강사로 일을 하고 있다. 금년부터 한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미술수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그것도 인건비 없는 자원활동이다. 중등교사로 평생 살아온 나에게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새로운 탐구의 장이다. 아이들을 관찰하는 일은 흥미롭기 그지없다.

나는 내가 스스로 기획하여 하는 활동에서는 가능한 한 지원사업 혹은 인건비와 연결 짓지 않으려 한다. 그래야 순전히 나의 의지에만 종속시킬 수 있는 자유로움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어떤 성과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또한 하고 싶으면 하고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둘 수 있다. 그것은 나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획자로서 혹은 프로그램 운영자, 교사 혹은 연구자로서 나의 주체성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것이다. 주체성이란 종종 특정한 지위나 목적에 귀속되지 않고 그때 그때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 사업에 얽매이지 않으면 주체를 그렇게 이름짓지 않고 떠돌게 놔둘 수 있다. 비용을 받게 되면 그 순간 그것은 쉽지 않게 된다. 무엇보다 특정한 성과를 드러내고 보여 줘야만 한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의 소비자로 변질되는 상황을 목격하게 된다.

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특정한 형식을 요구받고 그것에 맞게 제한당해야 한다. 그러면 재미가 없어진다.

지원 시스템과 관련 없이 하는 일의 강점 중에 큰 것은 지속성인 것 같다. 나는 20년 넘게 현재까지 전국적인 미술교사 공동체에 참여하여 지속하고 있다. 그 공동체는 순전히 자발적인 에너지와 스스로 조성한 기금에 의존하여 유지된다. 그것은 어찌 보면 특별한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일상이다. 그래서 그게 인생이 되었다. 또한 지속한 세월만큼이나 그 성과도 깊다.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몇 권의 집필은 그 성과를 눈으로 보여 준다.

예술의 사회적 활동이란 당연히 함께하는 당사자와 마주하고 있고 그것이 그 목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것을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동시에 예술가 자신에게 있으며 그것을 성취할 수 있어야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나에게는 별도의 생계가 있었고 그 조건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예술 실천의 공간으로서 학교 또한 철저한 종속 관계가 자리한다. 국가사회적 요구에 복무해야만 하고, 학생과 학부모라고 하는 당사자의 욕망을 따라야만 한다. 그것은 때때로 아주 많이 걸림돌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그것은 긴긴 시간의 지속성을 보장해 준다는 면에서 여느 프로젝트와는 다른 차별성이 있다. 이때 내가 선택한 생존 전략은 5:5였다.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절반은 저쪽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제는 학교에 속한 직을 떠나 인건비 없이 아이들을 다시 만나게 되니 훨씬 자유롭다는 것을 느낀다.

2부 공공지원에 질문을 던지는 예술의 사회적 활동

발표 ② 공공지원 밖의 예술의 사회적 활동 현장  
“공공지원 밖에서 하기”

김인규 / 시각예술가

**김인규** 저는 오늘 발제로 공공지원 밖에서 해 왔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많이 망설인 이유 중 하나가 저는 오랫동안 현직 교사로서 일을 해 왔고 그래서 과연 이 자리에 내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저는 학교의 현직 미술 교사로 있으면서 사회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왔습니다. 물론 예술 교육 자체가 이미 예술이 사회적 활동이구요. 그리고 학교 밖의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그러지는 않았지만, 점차 지원체계 밖에서 이러한 활동들을 진행해 왔다는 것이죠.

아마도 제가 지원체계 밖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현직 교사라고 하는 위치 때문에, 특히 경제적인 부분이 일정 정도 해결되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예술가들이 보기에 과연 이게 참조가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망설였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회적 활동을 했다는 거죠. 학교 밖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을 해 왔던, 그것이 또한 참조점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쩌면 안 해도 되는 일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학교를 떠난 지 4년째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은 자원봉사로 한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을 빼고 오느라고 아이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예술교육 또는 예술활동을 사회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게 됐던 것은 2000년 초반대학원에서 공공예술을 공부하면서, 여기 보이는 이 두 권의 책을 번역하면서 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미술을 가르치는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 기반으로 하는 미술 실천으로서 적극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학교 내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행위가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학생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미술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했고 그러한 활동으로 전개를 하면서 어쨌든 예술교육뿐만 아니라 예술활동을 사회적 실천으로 적극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는데요. 2004년도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아르떼가 만들어지면서 처음 했던 건데 그 사업에 제가 기획서를 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단체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 지역의 사천문화원을 통해서 기획을 했고 이 사업이 그때 선정되었습니다. 3년 사업이었고, 총 3억 6000만 원,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비용을 지급받았죠. 물론 저는 현직 교사가 때문에 인건비를 받지 않았고, 업무 추진비 정도만 받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큰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이 지역 사회 안에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현직 교사가 왜 학교 밖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느냐 하는 의혹을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그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지원으로 일어나는 지원금과 시스템과 관련되어 지역사회의 정치적 틀 속에서 해석되면서 그 효과가 오히려 매우 축소되고 반감되는 측면들을 목격하면서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크게 경험했어요.

그 뒤로는 제가 직접 공공기금을 신청하는 사업을 하지는 않았으나 몇몇 공공예술 같은 곳에 초청을 받아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주로 지역사회 안에서 아이들의 삶과 일상에 참여하는 그런 활동들이었는데, 이게 해 보면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사업이 시작이 되면 시작이 되고 사업 기간이 끝나면 끝난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하는 그런 활동들이 결국에는 이벤트성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참여하는 아이들한테 상당히 기간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실제로 그 내용이 확보되기보다는 그것의 제한 사항 때문에 오히려 자꾸 이벤트로 귀결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목격하면서 저는 점점 공공지원이나 이런 시스템 또는 인건비가 지급되는 사업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게 되었죠.

아마도 제가 그후 본격적으로 학교 밖에서 벌인 일 중 하나가 지역의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들과 함께 미술 활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마음먹은 것은 어떠한 지원, 공모사업과도 이것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것이 그냥 일상 활동이어야 한다는 것 때문이었죠. 어떠한 특정 사업기관, 혹은 특정 사업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가 현재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활동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까지 오래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때 함께했던 친구들이 현재 저하고 같이 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일상적인 생활로써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이것을 지원사업과 연계하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로써 시작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고자 하는 저의 내적 요구와 그다음에 이것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유지가 된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이 활동을 지역의 복지관에서 떠안으면서 공공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인건비를 받지 않는 자원봉사 기획자, 보조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부터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미술 수업을 하게 됐는데요.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고 그냥 자원봉사 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기획해서 하는 활동을 가능한 한 지원사업과 인건비와 연결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저의 의지를 그냥 순수하고 자유롭게 보장받고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 이것이 성과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하고 싶으면 하고 그만두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순전히 저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획자 또는 등등 이 활동의 주체로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처음 시작할 때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제가 진행하면서 그런 것들이 자유롭게 변화할 가능성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원사업과 연결되는 순간 그게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특정한 성과를 드러내고 보여 줘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어떠한 지원금과 연결될 때는 거기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당사자가 아니라 소비자로서 변질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뭔가 프로그램을 베풀어 줘야 하는 서비스맨이 되고 또 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친구들은 소비자로서 저한테 서비스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변질된다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지원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거죠.

지원시스템하고 연결되지 않았을 때 가장 큰 강점 중 하나가 지속성인 것 같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현재까지 전국적인 미술교사 공동체에 참여해서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는데요. 그 공동체는 순전히 자발적인 에너지와 스스로 조성된 기금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이 특정 사업과 연결되지 않고 그냥 일상이 되는 것인데요. 일상이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20년 넘게 지속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세월만큼이나 성과가 매우 크고 깊습니다. 이 책들은 그 활동에서 집필한 다음 현장에 배포되어 사용하고 있는 도서들입니다. 미술교사 혹은 학생들을 상대로 제작되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요구된 성과나 사업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일상 활동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과들이 나오고 우리를 만족시켜 주고 있어요. 예술의 사회적 활동은 당연히 함께하는 당사자와 마주하고 있고, 그 당사자와 마주하는 것이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왜 하려 하는가인데요. 그 이유는 예술가 자신에게 있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어야만 스스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가능한 한 지원사업과 연결 짓지 않고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현직 교사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학교와 철저한 종속관계에 있죠. 국가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해야 하고 학생과 학부모라고 하는 당사자의 욕망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제가 하고자 하는 것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 하나는 아주 오랜 세월 계속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지속함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하나의 사회적 활동으로서 예술 활동으로서, 저 스스로 의식해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친구들과 유치원 친구들과 학교에서 새롭게 만나서 미술 수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제가 현직 교사가 아닌 자유로운 신분으로서 인건비 없이 아이들을 만나니까 제가 훨씬 더 편안하고 더 자유롭게 의무감 없이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아마 더 많은 얘기를 해 주고 싶으실 텐데요. 저희가 토론에서 이제부터 좀 더 질문도 하고 소감도 나누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으면서 자발성을 스스로 지켜 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앞서 저희는 특정 지원사업에 대한 고도화된 변화들, 그리고 그렇게 고민했던 사회 문화적인, 혹은 현실적인 이유들도 많이 살펴보고, 그러한 공공지원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나 관점들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공공지원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공공지원 때문에 다시 지원 밖으로 나가 보려는 한 예술가의 실천이나 시도도 있다는 게 지금 저희에게 가장 큰 질문을 주고 있는데요. 예술의 사회적 활동이라는 것은 더욱 예술가나 기획자라고 하는 그 활동을 하는 주체의 자발성, 주체성 그리고 자율성 같은 게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앞서 발제하신 내용들이 저희에게 많은 질문거리를 던져 주는 것 같습니다.





## 2부 공공지원에 질문을 던지는 예술의 사회적 활동

### 토론

# 종합토론

일시 | 2021년 3월 29일 (월) 14:00 ~ 16:30

### 사회

#### 최선영 / 유구리최실장

세상을 구하려다 오지라퍼가 된 문화+예술+기획자. 유구리의 기운을 받아 오지라퍼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2019, 2020년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에 심의 및 리뷰위원으로 참여하였다.

### 토론자

#### 김인규 / 시각예술가

충남에서 오랜 세월 미술교사를 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예술활동을 해 왔다. 현재는 개인작업을 하면서 예술교육과 발달장애인 예술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 김지영 / 플러스마이너스 1도씨

주민.기획자.예술가 다중의 정체성을 지닌 한 개인. 예술적 삶을 살아내고자 목2동이라는 지역 깊숙한 곳에 자리잡고 자잘한 실천을 행하며 살아가는 중이다. 플러스마이너스1도씨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 박지선 / 프로듀서그룹 도트

연극, 무용, 다원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 걸쳐 활동하는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로 축제, 레지던시 기획, 공연예술작품 제작 및 국제 네트워크(아시아 프로듀서 플랫폼/APP)를 기획,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도시, 경제, 기술과 예술, 기후 변화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예술가와 새로운 탐험을 하며 예술의 동시대성을 탐구하고 있다.

#### 성연주 / 문화사회학 연구자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수로. 문화사회학적으로 접근한 문화정책 연구를 여러 분야에서 수행 중이다. 문화정책연구모임 '행간'의 멤버이며, 20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안정란 / 지질학적 베이커리

안데스는 퍼포먼스, 워크숍 등 시각예술기반 예술가이다. 베이킹의 원리로 산의 형성과정을 추적하는 '지질학적 베이커리'(2019) 작업과, 빵을 매개로 수행적이고 참여적인 지질학적 등산 프로그램 '빵산별원정대'(2020)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

**사회자** 사업이 아니라 일상이 되고 인생이 되는 이런 활동의 의미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이러한 현장에서의 부분과, 그리고 앞서 들은 공공지원과 관련한 좀 더 많은 논의들을 합쳐서 이제부터 토론을 진행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토론자로 세 분이 나오셨는데 사실 다 각각 다른 입장이나 관점들을 가지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앞선 발제들을 들으셨는지 그리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지 여쭙보고 싶어요. 플러스마이너스1도씨 김지영 대표님 먼저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김지영** 안녕하세요? 플러스마이너스1도씨의 김지영입니다. 앞서서 발제를 들으며 격하게 공감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앞으로 지원사업이 이런 방향과 철학, 태도를 가지고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점들을 많이 짚어 주신 것 같아요. 저 역시 현장에서 있으면서 겪었던 부분은, 앞서 박지선 선생님의 발제 내용처럼 새로운 예술지평을 열어 가고 있었던 예술가와 기획자들이 이미 현장 안에 존재해 왔다는 건데요. 공공기관과 정책들이 현장에서의 필요와 동기, 흐름들, 시대적 필요와 움직임들을 감지한 순간 주도해 버리는 현상들이 자주 발견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산과 인력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술의 흐름을 주도하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기획과 창작의 기회도 공공기관이 더 많이 가져가 버리는 건 아닌지, 압도당하는 순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의 시작을 연 예술가나 기획자들이 결국에는 수혜 대상에 머물러 버리게 되고, 정책에서 제시된 정의와 가치성들을 끊임없이 찾고 쫓아가는 술래의 위치에 놓여 버리는 것 같아요. 예술가들이 어떻게, 어떠한 주도성들을 회복해 와야 하는지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작해야 하고 스스로가 어떤 흐름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누군가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이 종료되나요?”라는 질문을 하셨고 ‘사업이 종료되었다’라는 답을 들으셨어요. 그 답에 ‘네’라고 수긍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사업이 ‘왜 사라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종료되었고 다음을 어떻게 재구성하려 하는지’, 사라지는 예술 지원사업의 결정권 또한 되돌려 올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 의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예술가/기획자들이 주도성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해야 할지, 어떤 실천부터 해 봐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박지선 선생님께 드려 봅니다.

김인규 선생님의 발제문에, 공공지원 사업이 가야 할 철학과 태도들이 담겨 있었다고 보는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가들에게 성과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것, 그리고 자율성을 갖게끔 해 주는 것, 지속과 멈춤의 결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게 해 주는 것에 지원의 체계와 구조가 마련되어야 결국 삶으로서의 예술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인규 선생님은 공공지원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있다고 하셨는데 앞서 제기해 주신 대로 자율성, 유연성,

자기 주도권을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사업들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같은 예술가들이 공공지원 사업에 기대어 가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 듯하고요.

그래서 만약 김인규 선생님이 다시 공공지원사업에 뛰어드신다면, 어떤 지원제도나 구조가 설정되고 어떤 태도와 가치들이 녹아 있을 때 충분히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자** 박지선 선생님 먼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박지선** 저도 항상 고민하는 지점인데요. 저는 독립적으로 활동하지만 사실 공공은 저에게 좋은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공공과 어떻게 좋은 파트너로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재작년에 광저우를 갔을 때 거기에 중국에 있는 기획자와 예술가와 굉장히 열띤 토론을 벌인 적이 있었어요.

저를 소개할 때 나는 인디펜던트(independent) 프로듀서라고 했더니, 그 의미를 가지고 중국에서는 인디펜던트가 아니라 프리랜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인 독립상황에서 일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인디펜던트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경제적 관점에서 ‘독립성’을 바라보는 거였죠. 그 친구는 공공기관 또는 학교와 일을 하거나, 의뢰받아 기금을 사용할 때 철저하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맞춰서 일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한다며, 제가 사용한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공공에서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공공과 파트너로 일을 할 때에도 독립프로듀서에서 중요한 인디펜던트란 다른 독립성보다 내가 하고자 하는 예술적 철학이나 기획의 방향성에서 그것이 독립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인디펜던트 프로듀서로서 중요한 지점이다, 하는 논점으로 함께 토론을 했습니다. 어떻게 주도성을 만들어 가고 흐름을 만들어 가는가에 있어서 말씀인데요, 방금 선생님 말씀처럼 지금 저희가 ‘서바예’ 사업이 없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요. 이게 저희에게 익숙해진 거죠. 언제부터인가 작업 계획을 세울 때 한 해의 공공지원 스케줄에 따라서 그 계획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계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년엔 그 사업이 사라지면 잡자기 못 하게 되기도 하는데 어느새 우리에게 익숙해진 이런 감각들을 계속 깨고 여기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원예술도 몇 년 전에 사라졌잖아요. 굉장히 조용히 사라졌고 그 많은 다원예술 하는 예술가와 기획자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크게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인 듯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블랙리스트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라지고 나서 다시 부활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공공에 기대지 않고, 좋은 파트너십을 가져가면서, 익숙해지는 것을 스스로 계속 조심하면서 나의 감각을 깨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 이어서 김인규 선생님 얘기 듣기 전에 문득 든 생각이 저희가 공공지원 없이도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차원으로만 만약에 얘기를 하면 물론 창작 활동이라든지 개인적인 창작 활동도 모두 포함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술의 사회적 활동과 관련해서 더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앞서 김인규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누군가와 관계를 맺거나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 자체가 일상으로서나 그 사람과의 관계성으로서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지원사업들이 1년 단위라든지 혹은 성과를 원하는 틀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러한 속성들을 갖기 때문에 오히려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줬던 것 같아요.

오늘의 논의는 모든 사업, 활동을 포함하여 모두 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술의 사회적 활동이 갖는 특성이라든지 현실적인 상황도 반영해서 들어주시면 좀 더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인규 선생님께서 김지영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 어떤 지원체계가 있다면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기대하시는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인규** 제가 오랫동안 교사를 해 와서 아이들과의 만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수업을 시작할 때 보통 학교에서는 이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뭘 배우는지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업을 해 보면 정말 재미가 없고 그리고 아이들이 실제로도 뭔가를 배우지 못합니다. 교실에서 아이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일단 그 만나는 지점이 일단 시작할 때의 전부인 거죠. 그리고 만나고 난 이후에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만나고 난 다음에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늘 그 만남이 어떻게 전개되어 어떻게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로드맵을 미리 그려 낼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막상 그 로드맵을 그려 놓아 보면 수업은 실제로 절대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 때,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해서 예기치 못하게 갔을 때 그 수업은 정말 신나고 정말 성과 있는 수업이 됩니다. 그러면 애초에 제시한 로드맵과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균열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라고 하는 형태가 자꾸 저를 서비스맨으로 귀결시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으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저는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제공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당사자들이 활동의 주체고 당사자들에서 시작해서 당사자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저는 거기서

그들과의 만남 속에서 뭔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그런데 당사자들이 내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당신이 프로그램을 제공해 줘, 우리는 받아먹을게’라고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서 가지고 가야 하는, 그런 관계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아마 많은 예술가가 겪겠지만 비용 처리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일들이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를 소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정말 나의 상상력과 당사자와 만나는 순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게 되는 때는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다.

**사회자** 많은 예술가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현장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도 말씀해 주셨고 ‘서울을 바꾸는 예술’ 안에서도 이런 질문이 많았어요. 김인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술이 계획적일 수 있는가’, ‘예술이 계획해서 할 수 있는 일인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을 바꾸는 예술’도 어쨌든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계획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선정해야 하고 지원도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하지만 단지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고도화된 논의를 하자는 것보다는 예술 자체에 집중을 한다면 정말 ‘예술이 계획적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오늘 우리가 같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사회학 연구자이신 성연주님께 들은 소감과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성연주** 저는 박지선 선생님께서 중요한 화두를 던지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어떤 주제를 다루느냐보다는 예술가와 기획자가 질문을 던지는 구도와 방식이 중요하다고 예술적 언어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우리가 흔히 예술의 사회적 활동이라고 하면 오늘 발표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그 맥락상 사회적 목적을 위한 펀드레이징 공연이나 복지관을 찾아가서 하는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음악회처럼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익숙한 예술의 사회적 활동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개념화하자면 저는 분명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회적 예술’이 ‘사회를 위한 예술’과는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회를 위한 예술과 사회적 예술을 구별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예술적 언어로, 기술과 기능을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현장에 많이 계셨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예술가와 기획자들이 예술적 언어를 더 길어 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많은 사례를 통해서 그런 것이 대체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면 이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김인규 선생님 발제에서도 인상 깊었던 건 선생님이 당사자들과 마주하는 그런 동등한 시선에서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가 흔히 예술의 사회적 활동이라고 하면 수혜자 아니면 대상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봐 왔던 것 같아요. 그것이 방금 말씀하신 서비스맨 정신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예술가들이 사실 그런 교육을 받거나 당사자와 직접 마주하는 경험을 해 볼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태도와 경험을 기를 수 있을지, 어떻게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게 바로 당사자와 내가 동등하게 마주하는 거구나, 서로 주체와 주체가 만났구나.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서 기본 출발선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경험을 하셨다면 거기에 대해 좀 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사회자** 박지선 선생님 먼저 답변 가능하실까요?

**박지선** 사회를 위한 예술과 사회적 예술의 차이점을 제가 정의 내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지금은 어떤 주제를 다루느냐보다 예술가와 기획자에 질문을 던지는 구도와 방식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하는 모든 활동이 '서바예'에서 말하는 사회적 예술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또한 세상을 구하기 위해, 서울을 바꾸기 위해 예술 활동을 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러한 예술 활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통해서 다 같이 불편함이나 갈등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 안에서 조금씩 변화의 틈과 균열을 만들어 내는 일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삶들이 존재한다는 것들을 예술을 통해서 보여 주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해 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럴 때 예술가뿐만 아니라 기획자도 포함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구도와 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 질문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는 것 말이에요. 공공기관에서 주도해서 던지는 주제와 질문을 따라가거나, 사회적 이슈들을 마치 피자의 토핑처럼 예술 작업을 통해서 보여 주거나,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외된 계층들을 위한 음악회처럼 목적이 뚜렷한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을 서비스처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질문 자체가 예술가로부터 나오는 질문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는 앞서 1부에서 김정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당사자성과 맞닿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술가와 기획자가 스스로 질문들을 찾아내고 그 질문들이 사회에, 관객, 시민, 대중에게 던져지기 이전에 자기 자신에게 먼저 던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술가와 기획자 안에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고, 소화된 다음에 누구와 대화를 할 것인가 하는, 내가 소통을 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명확성들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그들과 소통할 것인가, 즉 예술적 방법론인데요. 기후 변화 레지던시에 대해 말씀드릴 때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질문 중 하나가 우리는 예술가인데, 기후변화라는 문제를 말하기 위해서 활동가처럼 지금 당장 시급히 목소리를 내야 하는가였습니다. 우리가 피켓을 들고 국회 앞에 설 것이 아니라면,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지역주민, 내 친구,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예술가로서 조금 더 수월하게 대화하는 그런 예술적 방법론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술가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어라는 것이 연극을 하시는 분들은 연극일 테고 무용을 하시는 분들은 무용, 그림을 그리시는 분은 그림이겠지만, 그것이 단순히 기능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들은 소통하고 질문을 잘 던지기 위해서 새로운 자기만의 방법론들을 찾는 거라고 봐요. 이것은 기획자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예술가에 대한 확신이자 믿음인 듯하고요.

**김인규**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 경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나는 왜 그것을 하고자 하는가?’ 하는 요구가 제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의제가 정해져 있고, 이 의제에 과제가 있어서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이라면 이걸 요구가 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밖에 있는 요구를 내가 수행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대체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해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당사자가 저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함께 있는 당사자들과 ‘나는 이것을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나는 거죠. 거기서는 그 친구들이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저의 요구가 이미 거기 자리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제가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잘 살아 낸다는 거잖아요. 잘 살아 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 만남과 대화 속에서 그것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일의 중심은 그들과 내가 함께 서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거기서는 제가 뭔가 해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의 단계가 설정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 김인규 선생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죠. 의제가 내 밖에 먼저 던져져 있었을 때 거기에 뭔가 응답하듯이 활동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이 ‘서울을 바꾸는 예술’ 안에서도 많이 고민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어떻게 보면 예술이 서울을 바꿔라, 이런 식의 타이틀로 외부에 보이기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참여하신 많은 단체, 특히 선정되어서

활동한 단체들은 원래 예술로 서울을 바꾸려고 그런 의도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고 싶었던 게 있었거나 혹은 고민을 하다가 이 사업을 통해서 ‘서울을 바꾸는 예술’이라는 맥락으로 좀 더 연결하고자 노력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혹은 과연 그럴까 하는 질문들을 리뷰위원이든 다른 참여자들도 해 봤던 것 같습니다.

‘서울을 바꾸는 예술’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이 특히 요즘 예술에게 ‘지역의 문화도 활성화시켜라’, ‘커뮤니티도 공동체도 더 따뜻하게 활성화시켜라’, ‘선한 영향력을 미쳐라’와 같은 구호들을 직간접적으로 내비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들이 내 안에서 먼저 의제로 작동되지 않을 때에 대한 고민들을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론자로 작년 이 사업에 참여해 주셨던 지질학 베이커리의 안정란 작가님 나와 주셨는데요.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질문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안정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고요. 저는 작년에 이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에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김인규 선생님이 말씀하신 문제들, 즉 자유도를 보장받지 못하고 성과에 얽매인다는 부분, 지속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부분, 그리고 시작할 때 확정을 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부분 등 문제점들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사업을 지원할 때 ‘이 사업은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원했거든요. 저도 보통 사회적 예술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고착화된 이미지 같은 게 있었어요. 시대가 요구하는 이슈들, 환경이라든지 젠더라든지 그런 문제를 꼭 다루어야만 사회적 예술을 할 수 있는 건가? 꼭 참여적 예술만 사회적 예술인가 하는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업의 사업설명회를 유튜브로 보면서 그런 것들 말고 다른 걸 원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인규 선생님 말씀처럼 내 안에서 개인적이고 자기 의지에서 출발한 것들이 사회와 만났을 때 고유한 특성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좀 더 많이 지원해 주기 원한다고 그렇게 읽혔어요.

당시 제가 하려고 했던 기획은 사실 젠더 이슈나 사회가 요구하는 특정 이슈가 아니었고, 사회를 바꿔서 바로 효과가 드러나는 종류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망설였지만 유튜브 사업 설명회를 보고 ‘서울을 바꾸는 예술’은 사업의 형식 자체를 바꾸려고 하나 보다, 조금 더 실험적인 것 같다 해서 지원서를 넣었어요. 지원조차도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없이 어떤 단서만 있어도 지원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뭐가 많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많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에 반가운 마음도 있었어요.

사업하는 과정에서도 주제는 지속되었지만 형식이 바뀌는 팀들도 많았는데 그런 부분도 수용해 주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유연성이 이 사업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말씀하셨던 문제들을 이 사업 자체가 바꾸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물론 단점이나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요. 1년 단위로 지원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지속성과 같은 부분들은 저도 아쉽긴 하지만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도 작년에 사업을 하고 또 올해 다시 지원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바예’가 없어진다고 하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유연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참여자들과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구조를 상상하면서 앞으로 작업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사업이 없어져 버리면 저는 어떤 사업에서 이걸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비용이 드는 사업이라 김인규 선생님처럼 자발적으로 하기에는 여력이 부족하고, 그렇다면 다른 지원금을 생각해 봤을 때 제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창작지원 같은 경우 완성형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힘들고요. 그리고 다른 사회적 사업은 기관이나 수혜자가 너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그것도 저희 사업과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존의 지원사업 틈 사이에 이 ‘서바예’라는 사업이 존재했던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이 없어진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서바예’ 시즌 2에서는 이 사업이 바뀌려는 노력이나 관점들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더 화끈하게 자유도를 보장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하게 될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니고 소감이었습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완성형 사업이라는 표현이 기억에 남는데요. 분명히 현장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까 김인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 자유도의 흐름에 맡겨야만 뭔가 더 재미있고 의미 있게 확장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이러한 유연성과 자율성이 중요한 활동들이 결국 일반적인 틀을 가지고 완성형 사업 안에 들어와야 하는 현실적인 상황이 있을 때에는 방금 안정란 작가님 말씀하신 것 같은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로 의견을 주신 분이 계신데요. “결국 우리는 공공이라는 틀 아래에서 교묘하게 사회적 서비스를 조장하거나 예측 가능한 안정성 안에서의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술의 불확정적인 길과 동시대의 사회적 윤리성과 대척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 예술에 예술이 없어지는 것, 없는 것을 모른 척하고 정책적 판단하고 일몰하는 것에 대한 일말의 결과를 ‘서바예’와 관련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김월식 선생님께서 댓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작년에도 리뷰와 심의에 참여해 주셨던 정말 ‘서바예’와 관련된 분이시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셨는데요. 김월식 작가님도 많은 자리에서 예술이 사라지는 것 같다, 이 사업으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했으나 자유롭거나 즉흥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불확정적인 예술의 속성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의견도 주셨어요. 그렇지만 오늘 그런 영역들이 앞으로 더 늘어나야 한다는 얘기들은 많이들 공감하신 듯하고요.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여기에 누구든 자유롭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서울을 바꾸는 예술’ 안에서 많이 등장해 왔습니다. 1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 좀 나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관점이 적지 않았어요. 예술이 도구로 이용되는 듯한 지원사업이나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의견을 주실 분이 계실까요? 예술이 도구화되면 안 되는가? 이런 논의도 사실은 ‘서울을 바꾸는 예술’ 지원사업 안의 논의 테이블에서도 있었습니다. 도구화될 수도 있지, 하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도구화라는 것을 동시대적으로 다시 봐야 한다, 그리고 도구화를 하든 뭘 하든 목적성이 중요하다, 이런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지금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 중 답변을 같이 해 주실 분 계실까요?

김인규 선생님? 마이크를 드셨는데요.

**김인규** 오히려 예술이 도구성에서 벗어나는 일이거든요. 이게 참 애매하죠. 옛그제 다른 포럼에서도 말했는데, 저는 발달장애 친구들과하고 함께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최근에 새로 자조모임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는데, 보통 자조모임이라고 하면 일상 활동 훈련이라는 이름하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 활동을 훈련시키는 목적으로 자조모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상을 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조모임에서 일상 활동 훈련이라는 것을 빼 버리면 그냥 자조모임만 하는 거예요. 목적을 빼 거죠. 그러면 그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예측하기 어렵고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그 무언가 가능한 사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건 분명 사회적 활동이 맞잖아요. 그렇지만 도구성을 가진 것이 아니죠. 저는 이게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적당한 답이 뭘 모르겠습니다.

**사회자** 김지영 선생님은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김지영**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도구라는 단어가 우리가 나름의 편견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논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도구라는 단어만 두고 봤을 때는 부정적인 의미만 있지는 않고 도구 자체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도구라는 의미 안에 이미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사회적 맥락들, 아카이빙, 편견과 선입견 등이 들어가는 순간 도구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비판적인 의미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사회적 이슈로부터의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계속 얘기 나왔듯이 본인의 이야기, 본인의 문제의식, 본인과 함께 놓여 있는 질문에 대해 집중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술을 도구로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얘기하는 점은 어떻게 보면 정책이 요구하는 사업들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공성에서의 타당성, 그리고 이 사업의 지속가능함과 존속을 위해서 타 사업과의 차이점들을 발산해야 하다 보니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특별한 이슈를 가진 지원사업들이 진행된다고 하면 기존의 지원사업들과 달리 ‘어떤 예술을 지향하고 있는데?’, ‘어떤 차이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런 질문이 되돌아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성과에 대한 압박 앞에 놓이는 거죠. 대대적인 임팩트, 대대적인 성과, 가시화된 성과와 이슈를 도출해야 하는 그 압박들 앞에 놓이게 되는 듯해요. 그러다 보니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끊임없이 체험 공간으로 만들고 이벤트적 예술로 놓이게 하며 예술을 도구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지원 및 정책들에 변화되어야 할 관점과 태도인데요, 예술가, 기획자들이 도시와 지역 안에서 그들의 고민과 얘기, 경험이 축적되고 쌓일 수 있도록 전환해야 예술이 비판적 의미에서의 도구로 쓰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정책과 방식이 예술가들과 기획자들의 변화의 시간성을 고려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변화되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회자** 들으면서 보니 도구화된다는 것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이야기 안에 혹은 다른 질문들 안에서도 예술이라는 것은 도구화가 되면 안 될 것 같은, 위치가 좀 더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그동안 질문에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논의들이 예술의 위계성 부분하고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에서도 역시 예술이, 예술가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어떤 것을 다루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들, 그리고 예술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들도 좀 많았던 것 같은데 혹시 이와 관련한 의견을 같이 나눠 주실 분이 계시지 궁금하거든요. 안정란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정란** 예술의 도구화는 잘 모르겠고 예술가가 도구적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있죠. 그럴 때는 참담한 기분이 들곤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술가가 다재다능하다 보니까 예술가를 자기 주도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주제가 주어져도 무언가를 창의적으로 막 만들어 내는 존재로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본인의 관심 주제도 아닌 작업을 의뢰받게 되거나 하면 제 자신도 생계형으로 작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힘을 빼다고 그래야 하나? 그러면서 진짜 그 작업을 제가 도구로 삼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작가한테 어떻게 좀 더 창의적으로, 도구적이지 않게 그 작업에 임하게 할까 하는 질문이 드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제 작업만으로는 살 수가 없고

생계형으로 뭔가 필요한데 생계형으로 할 때 제가 도구적으로 쓰이지 않다는 느낌을 받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됩니다.

**사회자** 예술에 대해서나 예술가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회적, 현실적인 관점들하고도 연결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또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도 뭔가 충돌하면서도 연결이 되는데 결국 예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한, 그리고 예술가를 동시대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러한 관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댓글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연결된 질문 같아요. 진윤희님께서 방금 댓글로 얘기해 주신 내용입니다. 예술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실 제대로 활동조차 할 수 없는 예술가들이 예술에 대한 활동비마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생각한다고, 이러한 생계비, 활동비 지원을 받기 위한 도구로서 오히려 행정과 함께하는 사업들을 이용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신다면서 위에 좀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예술가가 직접 하고 싶은 걸 먼저 가지고 와서 거기서 시작한다기보다는 문화재단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예술가들이 현장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기를 바라거나 혹은 필요가 있을 때 연결해 줄 수 있는지, 서울문화재단이 혹시 이런 연결을 구체적으로 컨설팅이나 매칭해 주실 수 있는지, 질문과 함께 앞서 이런 의견들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들이 어떤 식으로 현장에서 진행되고 사업이라는 것과 연결되는가에 따라서 방금 안정란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피드백이나 의견과도 충분히 만날 수 있다는 지점에서, 저희가 함께 현실적인 제도나 사업들과 같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진윤희님이 주신 의견 관련해서 서울문화재단의 1부에서 발표해 주신 김진환 팀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하고 계신 예술가분들과 재단이 연결이나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진환** 연결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진짜로 저희 팀 쪽에도 연락주시면 할 수 있고요. 일단 저희도 가장 크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저희는 지역문화팀이라 특정 프로젝트형 지원사업 외에도 25개구의 문화재단이나 지역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심점이 되는 단체들과 함께 해당 지역에서의 진짜 예술인, 기획자 한 분 한 분과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을 짜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사실 서울이라는 곳이 워낙 볼륨,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서울문화재단에서 예술인들을 다 리스트업해 오면 좋기는 하겠지만 이들을 적절한 데 다 배치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행정에서 여러 기회들을 그렇게 짜는 게 그렇게 옹지도 않죠. 그래서

지역적 차원으로는 특별한 지역적 바운더리가 있을 경우 해당 지역의 문화재단 혹은 다른 민간단체와 상의해서 연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발표할 때 마지막에 급히 정리하기는 했지만, 사실 좀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민간 그룹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연결, 매개 등의 역할들 역시 민간의 여러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 여러 가지 공공예술 사업들을 하는 자체적 모임, 김정이 대표님의 마을예술창작소 운영위원회 같은 식의 모임도 있고요. 그런 모임 하나하나에도 재단이 어떠한 권한이나 조금 더 파트너십을 가지고 같이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예술창작소와 연결된 제안이라면 마을창작소운영위원회와 저희가 연결해서 해 본다거나 할 수 있겠죠.

이런 그룹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 말씀하신 부분에서 활동비, 생계비를 위해 문화예술 분야 영역이 아닌 곳에서 제안을 받았을 때, 그쪽에 예술인들과 함께 활동하려면 기획에 대한 시간을 어떻게 주셔야 하고, 활동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정이 되어야 하고 저작권도 이렇게 미리 논의를 하셔야 하고, 이런 부분은 중간에서 저희 같은 문화재단이라든지 아니면 구심점이 되는 그룹들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 하지 않을까 합니다. 서울의 수많은 예술가가 할 수 있는 일들의 좋은 연결을 위해서 저희도 앞으로 더 책임감을 느끼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야기가 이어졌는데요. 앞서서 진윤희님께서 댓글로 주신 의견은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가 있는데 이용해 보시면 어떠냐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러한 기회가 필요하다, 반갑다는 입장도 있을 수 있고 동시에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그것이 가진 일정한 틀 때문에 자율성을 확보하거나 일상적인 활동을 고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공공지원 밖에서의 활동도 실천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의지들도 오늘 포럼에서 모두 같이 살펴봤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술의 사회적 활동이 어떤 지원사업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혹은 공공지원 밖에서 해야지만 좀 더 자유로울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아니고요. 우리가 현실적인 방안도 함께 모색하면서 계속 공공지원이 따라가기 좀 어렵거나 포섭하기 어려운 현장의 목소리나 의지도 존재한다는 것을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고민들은 ‘서울을 바꾸는 예술’ 담론집에서 같이 엮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책을 함께 기획하고 만드는 입장에서 고민이 들었던 것은 거기에 등장하는 질문들을 바꿔야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우리가 책 안에서 동시대의 예술의 역할이나 위치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려움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공감하신다면 이후 4월 말에 나올 담론집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내용을 유튜브 스팍TV에서 계속 영상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와 발제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그리고 댓글로 의견과 질문을 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의견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같이 이야기를 들어 주시고 생각들을 나눠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서울을 바꾸는 예술' 포럼, 예술의 사회적 활동과 다시 질문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사업 연혁 및 연도별 참가자

## 2016 - 2020



## 제1회 서울을 바꾸는 예술: 문화기획자의 지역 생존

2016.12.21(수) 14:00-18:30 |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대회의실

세션	구분	발제명	발제자
1. 청년	사회 및 발문	(발문) 아포리즘으로 풀어보는 '청년' 이야기	심한기   청소년문화공동체 품 대표
	[정 령] 성복신나	구술이 서 말이라도 껴야 신나	오창민
	[수 유] 동네형들	내년에도 문닫지 않고 잘 버티겠습니다.	박도빈
	[신 립] ' '(작은따옴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한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장서영
2. 상업	사회 및 발문	(발문) 청년 창업: 시장 생존의 길	이선철   감자꽃스튜디오 대표
	[서 촌] 옥인오락실 등	주민에서 주인으로	설재우
	[용 산] 청년장사꾼(열정도)	지역 생존법	김연석
	[이태원] 9Road	하나의 삶, 여러 개의 길, 수많은 인연	황윤호
3. 마을	사회 및 발문	(발문) 예술과 지역의 결합에 관한 세 사례의 답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창 신] 아트브릿지	창신동에서 세상을 꿈꾸다	신현길
	[목 동] 플러스마이너스1도씨	지역을 향한 예술 & 나를 위한 예술	김지영
	[수 색] 예술수색단	예술, 마을 관계맺기	정현식
4. 도시공간	사회 및 발문	(발문) 지역에서 생존하는 도시기획자들의 히치하이킹을 위한 저렴한 안내서	조광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창 신] 공공공간	낭비 없는 도시를 위한 'Zero-Design'	홍성재
	[동대문] 옥상낙원 DRP	도시의 공백, 빈곳의 상상력	김현승
	[아 현] 축제행성(행화탕)	예술로 목욕합니다	서상혁

## 자료집

행사 포스터



포럼 자료집 바로가기



## 서울문화재단 담당부서

공공예술센터	본부장	오진이
	팀장	김희영
	기획·운영	김진환, 김영은
	코디네이터	정장희

## 지원사업

## 서울을 바꾸는 예술 : 청년편 Y

## 청년편 Y : 아이디어 (1차)

선정사업명	선정단체/개인	대표자
가져가는 미술관	클로즈드블와이	유동훈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건축잡지 '매거진 파노라마 6호'	매거진 파노라마	윤미리
『계간 젊은이』 - 청년 삶 아카이빙 프로젝트	스테레오타입	이상현
둔촌주공아파트 길고양이 생태적 이주를 위한 사전 연구	개인	김경진
혼밥족들의 색다른 라이프 실험실, 주소없는 연구소	개인	김다은
서울 레지던시	개인	김병덕
어쩌다 마주친 2017 우리동네	개인	김혜원
우리의 지금을 변화시킬 예술적 참견	개인	백교회
여기, 초록이 있어요	개인	손민지
식물도시_우리가 살 곳은	개인	여인혁
지원사업 없어도 자생할 수 있다! 청년예술가 DIY공연 프로젝트	개인	옥민아
자전거 자가수리를 위한 친절한 설명서	개인	이행석
프로젝트 '복도'	개인	임정수
사라지는 아파트, 개포 주공1단지 투어 프로그램	개인	전혜주
보이는, 보이지 않는	개인	황진주

## 청년편 Y : 아이디어 (2차)

선정사업명	선정단체/개인	대표자
직접 만드는 바이오에너지 (웜박스)	남산전골	박세연
JJ프로젝트	JJ 프로젝트	이주영
부정적으로 표현되는 감정들을 재평가하는 토크콘서트	눈사리	권민경
부비적프로젝트	서울미디어로그	이강소
웰컴 투 조이랜드	세컨드필름매거진	곽민해
게이트볼 새싹집 제작 (설명서 제작)	신호탄(예술단체)	신동혁
청년이 찢고 청년이 말하는 無박 二일 청년 영화제	씨네클럽 포프	석지은
[이주의 지혜] 남남이주 (맛있는 이주이야기)	이삭줍는 사람들 the gleaners	정연빈
우리 그냥 만나요	임시협회	이동연
열정과 페이지 사이	주식회사 만류인력	김민지
지속가능 녹색공간	지속가능 갤러리	박지원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 단편독립영화 제작	창작집단 사이에서	강보령
소우줄 (소소한 우리동네 즐길거리)	팝302	한강희
서울스타일-무용 플래시 몹	개인	김유리
비말 (비 맞지 말아요)	개인	송소희
우리들이 있었다.	개인	신용희
할머니 축제	개인	이남희
화해를 위한 체조 매뉴얼 Exercise for Reconciliation (가제)	개인	이예지
혼자도 모여도 맛있고 건강한 먹거리 '식구의 탄생'	개인	차해영
서울 청년들을 위한 송 캠프 (Song Camp)	개인	황자양

## 서울을 바꾸는 예술 : 청년편 Y

## 청년편 Y : 프로젝트

선정사업명	선정단체/개인	대표자
프로젝트 옹문시장	개인	강유미
청년 미혼모 수공예 아티스트 인큐베이팅 프로젝트	주식회사 크래프트링크	고귀현
Sing Sing 지하철 프로젝트, "너의 목소리가 들려"	제이크루 음악커뮤니티	고윤정
취미가2017	취미가	권순우
[산출거물 밤놀이], [기인한 점심]	라이프매뉴얼스튜디오	김세진
이화동 청년 문화축제	아트앤웨어	김영기
몸의 대화	몸의대화	김예은
숲에서 만나자! 숲에서 놀자!	개인	김우진
이야기 들어주는 집	이야기청	김재상
제2회 아티스트 전	에이드런	김지민
위클리 아티스트	알피니티	김지우
기업과 서울의 청년 디자이너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	(주)디피플랫폼	김형준
Bfree(비프리) 프로젝트	류인수	류인수
휴양가	네츄럴데코스	박대현
내 집이 없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문화예술커뮤니티 동네형들	박도빈
잠깐만팜	무소속연구소	박상권
Let's 고전탐험대!	게임학습공방 비따비	송용우
그래도 잘 살고 싶은 청년 캠페인	개인	송현우
보라보라 프로젝트	개인	이소정
그 많던 디자이너는 어디로 갔을까?	창창창	이정인
장애 아동들이 그리는 따뜻한 세상 '꿈꾸는 휠체어'	그림플레이	이준상
건강양극화 해결, 모바일 운동 처방전 '득근득근'	마이리얼짐	이준우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원 '버리지마 씨'	개인	이진규
SNS공유만 해도 후원되는 예술/디자인 분야 크라우드 펀딩	세븐픽처스	전희재
청소년 음악 창작 프로그램 '우리는 별별 스튜디오'	무궁무진스튜디오	정연재
1인 가구의 삶을 건강하게! 1인 가구 전문 웨어마켓 '프로혼장'	타래	정장희
사당 예술인마을을 기반을 한 '사랑방예술제'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개인	조일신
소파 시즌즈 서울	프로튜어먼트	최인구

## 청년편 Y : 메이커스

### 선정사업명

desk Factory, 전자얼굴 in 세운  
 makers' maker (ma'ma)  
 One Free Biohack, Bar 25  
 Simulation, Brain Wave & AI (씨물레이션, 뇌파 그리고 AI)  
 기술로 말하고 놀이하는 시민 워크숍  
 디자인을 통한 무단횡단 방지솔루션  
 메이커 교육용 컴퓨터 - 파이컴(piCom)  
 서울 순례자 상자와 명상 앱  
 서울 주 굿메이커 (Seoul Zoo Good Maker)  
 서울, 정원으로 채우다  
 숨정화기 playing Zine & Kit 제작  
 시민코딩프로젝트  
 여과생활  
 여성을 위한 오픈 기술랩 (가칭)  
 우리학교 운동장을 부탁해/ 우리가족입체사진  
 을지로 르네쌍쓰 -대림상가-  
 청년1인가구들을 위한 키덜트 메이커스 교육 프로그램

### 선정단체/개인

프래그  
 스튜디오 음머  
 Bar 25 (바이오)  
 개인  
 릴리쿰  
 WMB  
 (주) 서클러스  
 개인  
 조울  
 어딜가든  
 비기자  
 디아트렉처  
 개인  
 여성기술랩  
 테크트리스페이스  
 을지로 르네쌍쓰  
 위세임

### 대표자

조민정  
 차재용  
 김예슬  
 조은우  
 선윤아  
 안주형  
 박종건  
 김순영  
 송용남  
 유재열  
 최선영  
 김재익  
 노정주  
 전유진  
 심영대  
 유희수  
 김은총

### 심사위원

**아이디어(1차)** 김재화 미디어아티스트  
 김지연 레볼루션커뮤니케이션즈 본부장  
 원대로 청년허브 기획실장  
 유다원 플러스마이너스1도씨 대표  
 이채관 와우책문화예술센터 대표

**아이디어(2차)** 류병학 미술평론가  
 원대로 청년허브 기획실장  
 유다원 플러스마이너스1도씨 대표  
 이로 유어마인드 대표  
 조주연 티팟 대표

**메이커스** 김명호 성수메이커스페이스 대표  
 백영선 카카오 스토리펀딩파트 제휴셀 PD  
 유원준 미디어웍진 엘리스 온 편집장  
 정해경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 교수  
 한창민 미디어 아트그룹 하이브(HYBE)

**프로젝트** 강원숙 엘베스트 제작본부 디렉터  
 류병학 미술평론가  
 백령 경희대 문화예술연구소 연구위원  
 이선철 감자꽃스튜디오 대표  
 장대철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

### 평가위원

**아이디어** 이채관 와우책문화예술센터 대표  
 원대로 청년허브 기획실장  
 유다원 플러스마이너스1도씨 대표  
 송상훈 청년예술가네트워크 대표  
 임경용 더북사이어티 대표

**프로젝트** 장대철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  
 이선철 감자꽃스튜디오 대표  
 김정이 前 제주문화기획학교 교장  
 김월식 예술가  
 김민표 비전웍스 대표  
 조주연 시민문화네트워크 (주)티팟 대표  
 설재우 지역문화연구소 씨리얼 대표  
 조광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메이커스** 강원재 OO은대학연구소 소장  
 황지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광수 동아방송예술대 겸임교수  
 류은진 한성대학교 교육혁신원 초빙교수  
 김환준 (주)신도리코 R&D 본부 책임연구원  
 유원준 미디어웍진 엘리스 온 편집장  
 이지선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 예술활동의 다변화와 사회적 실천 - 예술의 사회적 활동 실태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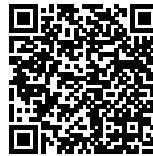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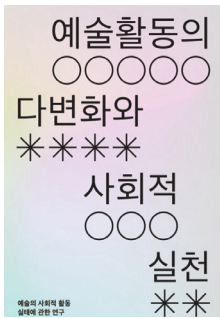
### 연구참여자

책임연구자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더레이터	안영노	문화기획자, 안녕소사이어티 대표
공동연구자	장대철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공동연구자	이병민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백선혜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종길	미술평론가

### 연구결과보고서

예술활동의 다변화와 사회적 실천(2018)

연구결과보고서 바로가기



### 서울문화재단 담당부서

지역문화팀	본부장	한지연
	팀장	이현아
	청년편 Y 기획 · 운영	박현주, 오인경, 유민성
	청년편 Y 코디네이터	백규돈, 허찬미
	연구	김진환, 김효진

김꽃	공간 사일삼	
김지영	플러스마이너스1도씨	
김현승	동대문 옥상낙원 DRP	
이지연	동대문 옥상낙원 DRP	
나기석	구로문화재단(거리봉봉 아트)	
박도빈	동네형들 공동대표	지역활동
신윤선	유쾌한 아이디어 성수동공작 대표	
임성연	무소속연구소 공동대표	
정문식	홍대앞에서 시작해서 우주로 뻗어나갈 문화예술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조하연	문화예술협동조합 곁에 대표	
최서영	더 페이퍼(골목잡지 사이드) 대표	
홍주석	아반플레이 대표	
김성수	무규칙이종결합공작터 옹도변경 대표	
김혜경	큰언니네 부엌 대표	
남윤호	수리수리협동조합 이사	
선윤아	릴리쿰 대표	일상창작
신윤예	OOO간 공동대표	
신지예	오늘공작소 대표	
한광현	오늘공작소 연구원	
이재준	리마크프레스(이문238) 대표	
정길수	공도창공 수동 대표	
최현정	일상예술창작센터 대표	
함승호	적정기술공방 대표	
신현길	아트브릿지 대표	사회혁신
심규환	캔파운데이션 기획실장	
우승주	극단 날은자동차 단장	
윤홍조	마리몬드 대표	
장서영	' ' (작은따옴표) 대표	
조재호	베네핏 대표	
조하연	곁에 대표	
허미호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위누 대표	
홍성재	OOO간 공동대표	
황운기	문화프로덕션 도모 예술감독	
김근	6.9작가선언	사회행동
노순택	세월호 사진 아카이브/아이들의 빈 방 작가	
박은선	리슨투데이(내성천의 친구들, 옥바라지 골목 보존운동) 디렉터	
성효숙	클트클탁+문화행동 작가	
송상훈	청년예술가네트워크(한일협성무호 수요 예술행동) 대표	
신유아	용산참사 파견미술 활동가	
유재림	두리반 51 + 작가	
이경희	보리출판사(평화발자국) 편집부 과장	
전미영	용산참사 파견미술 작가	
강미해	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	
김현정	역압받는 사람들의 연극공간 해 공동대표	
김현주	아티스트 커뮤니티 클리나멘 대표	
김효진	응용연극단체 문 대표	
김희연	그림미움연구소 대표	
엄정순	우리들의 눈 대표	
오지민	예술에 기대다, 린 협동조합 총괄프로듀서	
이동근	자바르떼 대표	
최규성	달꽃창작소 대표	
최선영	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 지원사업

## 서울을 바꾸는 예술 : 소셜 프로젝트

선정사업명	선정단체/개인	대표자
NOT ENOUGH TIME	낫 인어프 타임	김가람
헌인마을 뉴스테이 플랫폼 프로젝트	드르르르	정재경
내안의 블라섬	로로브레인 주식회사	여지연
DD238 Little Maker Fair	리마크프레스	이재준
무궁무진 웨딩송라이터	무궁무진 스튜디오	정연재
할머니들의 움직이는 방	선잠52	정기황
#꼭두되기 (부제:서울 위한 안녕의 시간)	소셜씨어터	김은영
공유 공간과 시간의 교차로	스페이스 원	여인영
손으로 만드는 노래	시각	임정수
철의골목을 찾아서	R3028	고대웅
2018 우리마을 탐구생활_해방촌,후암동편	우리마을 탐구생활	심수림
오직 당신을 위한 가구	을지로 르네상스	유화수
유진상상	임팩트스테이션	송상훈
폭풍공감프로젝트	지보이스	박익석
창덕궁 앞 열하나 동네 축제	창덕궁 앞 열하나 동네	김승모
10am to 3pm (가제)	컨템포컬	윤주희

## 심사위원

김월식	무늬만커뮤니티 디렉터
김정이	前 제주문화기획학교 교장
임경용	더북소사이어터 대표
조광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허미호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위누 대표

## 리뷰위원

김월식	무늬만커뮤니티 디렉터
김정이	前 제주문화기획학교 교장
류병학	평론가
박주로	사회혁신기업 (주)로모 대표
원대로	前 청년허브 기획실장
임경용	더북소사이어터 대표
허미호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위누 대표

## 자료집

서울을 바꾸는 예술 : 소셜프로젝트(2018)



포럼 자료집 바로가기



## 역량강화

## 서울을 바꾸는 예술 : 소셜 인(人)사이트

기획자 역량강화 사업

## 참여자

강영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손혜지	극단아리랑
구령근	강남장애인복지관	송윤지	환경재단
권령아	중앙대학교 연극학과	엄아롱	조각가
김남령	나무령	오승진	봉봉심부름센터
김동찬	원주문화재단	오승하	한양대학교대학원 연극영화학과
김미레		유슬기	(주)여성신문사, (사)여성문화네트워크
김수영		이유년	
김유리	의정부예술의전당	이현지	
김종석	극단행	임정서	유방랜드
김해다	주식회사 마인드디자인	장지혜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졸)
박민정	광고대행사 AE	최샘이	엠비규어스/관객행동
박세린	아티슈머	최영미	문화예술협동조합 아이야
박세미		홍민지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박수연	홍익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홍유정	
박종원	장위도시재생지원센터		
박진덕	픽처스스토리		
변영건	한국예술종합학교대학원		

사회혁신 캠프: 변화를 만드는 예술 | 2018. 6. 22(금) ~ 6. 23(토) | 도봉숲속마을

인사이트 클래스 | 2018. 6.28(목) ~ 9.6(목) 매주 목요일, 총 10회 | 지식방앗간 B빌

## 코치

이재준	리마크프레스 대표	좋은 기획을 위한 3가지 원칙, 6가지 질문, 12가지 과제
오호진	명랑캠페인 대표	사회를 바꾸는 문화예술, '기획부터 입법까지'
홍성재	前 공공공간 대표	새로운 예술가 모델의 탄생
임성연	무소속연구소 대표	이슈를 '예술적으로' 이슈화하기
백영선	카카오 소셜인팩트팀 부장	인정받는 기획자는 누구와 무엇을 고민하며 어떻게 소통하는가

## 성과발표

[서울을 바꾸는 예술:하이라이트] 2부:인사이트 쇼케이스 | 2018.10.18(목) 17:30-20:20 | 블루스퀘어 카오스홀



쇼케이스 영상 바로가기





## 예술의 사회적 실천 방향과 저변 확대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 연구참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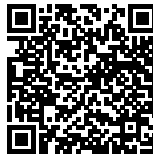
모더레이터	안영노	안녕소사이어티 대표	김새미	보조연구원
기록	한아타	드림워커 대표	김진주	보조연구원/기초조사
자문	강원재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정수희	보조연구원
	김정이	前 제주문화기획학교 교장	최혁규	보조연구원/설문조사·분석

### 자료집

예술의 사회적 실천 방향과 저변 확대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연구 결과보고서 바로가기



### 연구 라운드테이블 참여

김유진	독립기획자, 前 별일사무소	정현식	예술수색단
김현호	보스토크매거진	신현길	아트브릿지
이동근	자바르떼	정문식	홍우주 사회적 협동조합
임경용	더복소사이어티	최규성	달꽃창작소
정연재	무궁무진스튜디오	홍보라	갤러리팩토리
안상미	무궁무진스튜디오	홍주석	어반플레이
송상훈	청년예술가네트워크	황윤호	나인로드
신유아	문화연대 파견미술팀		
신윤예	OOO간		
이로	유어마인드		
전희재	세븐픽처스		
한광현	오늘공작소		
김월식	무늬만커뮤니티		
성효숙	예술가, 문화예술행동		
윤성진	한국문화기획학교		
이재준	리마크프레스		

## 2018 서울을 바꾸는 예술 : 모-임(모여서 만드는 임팩트)

### 모-임 : 예술적 삶을 위한 여덟가지 상상

모임명	모임유형	모임대표(리더)
서울을 바꾸는 예술을 바꾸는 예술 AROUND TABLE : 변방(인들)의 테이블 소다살롱(소셜다이닝X살롱)	라운드테이블 워크숍 소셜다이닝, 라운드테이블	박도빈 (문화예술커뮤니티 동네형들 공동대표) 김지영 (플러스마이너스1도씨 공동대표) 김경서 (아트버스킹 대표) 황윤호 (9road 공동대표)
예술을 통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슈 맵핑 및 확산하기 흩어진 낱알들 de-collective R 파이를 먹는 동안에는 화가 날 수 없다 반려예술 선언(the companion art manifesto) 어차피 우아한 일이란 없으니	세미나, 워크숍 리서치, 공유파티 소셜다이닝 연구(스터디), 공유파티 살롱, 대담	허미호 (위누 대표) 신윤선 (유쾌한 아이디어 성수동공장 대표) 남윤호 (문화예술 활동가) 임성연 (무소속연구소 대표) 전미정 (기억발전소 공동대표) 한광현 (오늘공작소 선임연구원)

### 성과발표

[서울을 바꾸는 예술:하이라이트]1부:포럼 '예술( )사회;변주와 다양성'

2018.10.18(목) 13:30-17:20 | 블루스퀘어 카오스홀

예술 ( ) 사회; 변주와 다양성(2018)

포럼 자료집 바로가기



### 서울문화재단 담당부서

지역문화팀	본부장	김홍남
	팀장	장재환
	기획·운영	김효진, 박현주, 유민성
	소셜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윤지하, 백규돈, 허찬미
	연구·모-임 코디네이터	김성현
	인(人)사이트 코디네이터	홍지연

## 지원사업

## 서울을 바꾸는 예술 : 리서치 · 프로젝트

## 리서치

선정사업명	선정단체명	대표자
서울여성베테랑	WSW	윤여준
도시와 예술의 비거니즘 지형도	가옥	김화용
서울생 : 청년예술가의 방	공공연희	옥민아
이대로, 고풍	이사각	박현주
해방된 관객과 자유로운 예술가를 위한 피드백 메소드 개발	이행성 극장	동이향
PlanB 2020	인차스페이스	황혜인
숨세권-관악산	컨템포컬	윤주희

## 프로젝트

선정사업명	선정단체명	대표자
여기 살아요 : How Much Space Do We Need For Living?	국악뮤지컬집단 타루	정종임
퍼레이드 진진진	다이나나랩	신원정
'현인' 창작프로젝트	드르르르(BRRRT)	정재경
잘 못 보이고 잘 못 말해진	을지로르네상스	유화수
#선계이서울	친구사이	김찬영

## 심사위원

김정이	비커밍콜렉티브 대표
안영노	안녕소사이어티 대표
이재준	리마크프레스 대표
최선영	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허미호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위누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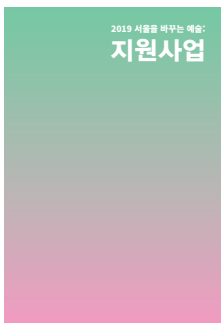
## 리뷰위원

김월식	무늬만커뮤니티 디렉터
김정이	비커밍콜렉티브 대표
박지선	프로듀서그룹 도트 프로듀서
이재준	리마크프레스 대표
최선영	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허미호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위누 대표
정지연	MYSC 수석컨설턴트

## 자료집

2019 서울을 바꾸는 예술 : 지원사업

자료집 바로가기 (2021년 8월 말 공개 예정)



## 아카이빙

**코디네이터** 공을채

**사업안내** 2019 선정단체 소개 서울을 바꾸는 예술, 예술은 사회와 어떻게 만날까?  
 2019 심사 과정 및 내용 공유 서울을 바꾸는 예술 심사이야기  
 2019 선정단체 활동 갈무리 서울을 바꾸는 예술 리서치 · 프로젝트 갈무리

## 단체 인터뷰

**리서치** WSW vol.1 파동을 일으킬 이야기들  
 vol.2 여성과 베테랑  
 가옥 vol.1 식습관 이상의 비거니즘을 이야기하다  
 vol.2 외면하고 있던 비거니즘에 관하여  
 공공연희 vol.1 청년 예술가에 의한, 청년 예술가를 위한 브랜드를 꿈꾸다  
 vol.2 정체성을 버리는 청년 예술가들  
 이사각 vol.1 이사각이 바라본 현장 혹은 장면  
 vol.2 예술작품과 굿즈  
 이행성극장 vol.1 관객과 대화하는 방법을 탐구하다  
 vol.2 연극 과정 속 관객  
 인치스페이스 vol.1 뿔레야 뿔 수 없는 환경에 관하여  
 vol.2 공원일몰제를 대비하는 방법

## 프로젝트

타루 vol.1 판소리, 관객참여형 연극과 만나다  
 vol.2 본격 주거생활 탐구  
 다이애나랩 vol.1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는 사람들  
 vol.2 나를 표현하는 방법, 진(zine)  
 드르르륵(BRRRT) vol.1 개발의 논리 속 남겨진 것들  
 vol.2 한인마을의 삶과 기억  
 을지로르네쌍스 vol.1 수동적이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작가들  
 vol.2 장애예술의 확장  
 친구사이 vol.1 성소수자의 공간을 노래하다

## 프로젝트 현장스케치

타루 집을 이야기하다, 국악뮤지컬집단 타루  
 다이애나랩 거리에서 마주하는 구별의 시선과 이를 느끼는 공존의 퍼레이드, 다이애나랩  
 드르르륵(BRRRT) 한인마을을 이야기하는, 드르르륵  
 을지로르네쌍스 장애예술을 확장해 가는, 을지로르네쌍스  
 친구사이 인권운동계의 아이돌 국내유일의 게이합창단, 지보이스

## 블로그

[https://blog.naver.com/sfac\\_social](https://blog.naver.com/sfac_social)

블로그 바로가기



## 서울을 바꾸는 예술 : 모-임(모여서 만드는 임팩트)

## 구분

## 주제

사업설명회	예술의 사회적 활동 사례 및 개념 공유
심사이야기	예술의 사회적 활동 주요 논쟁 지점 공개 토론
선정단체워크숍 1	2019년 선정사업 소개 및 활동 내용 공유
선정단체워크숍 2	예술의 사회적 활동 임팩트 측정 가능성 논의를 위한 디자인씽킹 워크숍
선정단체워크숍 3	예술의 사회적 활동 관점에서 본 선정단체 활동 분석 및 예술적 방법론 논의

## 연구

## 서울을 바꾸는 예술 : 임팩트 측정 지표 설계 연구

연구기관 : MYSC(엠와이소셜컴퍼니) | 연구총괄 : 정지연 (MYSC 수석 컨설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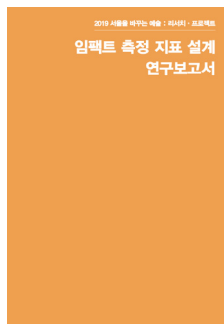
## 참여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지연	연구총괄
공동연구원	강예나	프로젝트 선정단체 연구
	김세은	
	배정환	
	하윤지	
보조연구원	김원희	리서치 선정단체 연구
보조원	최서윤	일정 및 자료정리

## 연구결과보고서

2019 서울을 바꾸는 예술 : 연구보고서

자료집 바로가기 (2021년 8월 말 공개 예정)



## 답론형성

# 연말수다파티

### 발표

서바에가 걸여온 길 : 2015- 2019 김진환 서울문화재단 문화기획팀 팀장  
 서바에의 질문 : 임팩트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정지연 MYSC 수석컨설턴트

### 대담

김진환 서울문화재단 문화기획팀 팀장  
 허미호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위누 대표  
 이재준 리마크프레스 대표  
 임경웅 더북소사이어티 대표  
 정지연 MYSC 수석컨설턴트

### 라운드테이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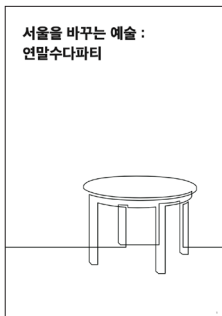
서울을 바꾸는 예술의 태도 : 기획자인가 예술가인가	김정미	비커밍컬렉티브 대표
부동산도 예술하듯	원대로	前청년허브 기획실장
서울을 바꾸는 예술 : 을 바꾸는 예술	박도빈	문화예술커뮤니티 동네형들 대표
예술로운 리서치	임성연	무소속연구소 대표
내 예술 어떻게 팔 것인가	정연재	무궁무진스튜디오 대표
후달리지마 : 예술가의 생존방식	고대웅	R3028 대표
달음을 위한 다음	황윤호	9Road 대표
나를 찾아줘 : 예술가의 삶과 변화	신윤선	유쾌한 대표

### 대담

우리의 고민이 고문이 되지 않으려면 안영노 모더레이터 | 안녕소사이어티 대표

### 핸드아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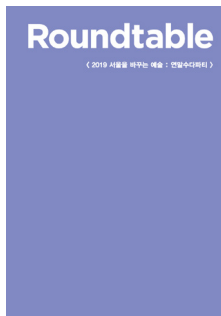
2019 서울을 바꾸는 예술 : 연말수다파티



자료집 바로가기

### 자료집

2019 서울을 바꾸는 예술 : 포럼



자료집 바로가기  
 (2021년 8월 말  
 공개 예정)

### 서울문화재단 담당부서

문화기획팀	본부장	박승현
	팀장	김진환
	기획·운영	강민정
	코디네이터	오소진

## 지원사업

## 서울을 바꾸는 예술 : 1단계 Player 워크숍

## 퍼실리테이터

김월식	무늬만커뮤니티 디렉터
김정이	비커밍콜렉티브 대표
류성호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이사
박도빈	동네형들 공동대표
박주로	사회혁신기업 로모 대표
박지선	독립프로듀서
이재준	리마크프레스 대표
최선영	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 선정자 | 개인 (7명 선정)

김다은  
김민경  
박수진  
신동혁  
안정란  
임정서  
임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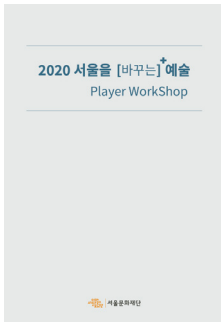
## 선정자 | 단체 (5개 단체, 14명 선정)

천근성 국제평화상사  
박현주 국제평화상사  
이석희 국제평화상사  
정재경 드르르륵  
임수진 드르르륵  
박채희 드르르륵  
임금님 생태움직임연구소 소행성  
고현 생태움직임연구소 소행성  
정소은 정소년원  
조진영 정소년원  
김다은 정소년원  
정대진 지보이스  
박진석 지보이스  
정예준 지보이스

## 연구결과보고서

2020 서울을 바꾸는 예술 : player 워크숍

자료집 바로가기 (2021년 8월 말 공개 예정)



## 지원사업

## 서울을 바꾸는 예술 : 2단계 프로젝트

## 프로젝트

## 선정사업명

가면무도회  
서울아까워센터  
가슴친구, 한강의 정서  
뽕산별 원정대  
서울의 엄마들  
2050생존사전: 기후위기편  
여인천하  
상실공간  
100일의 프로젝트

## 선정단체명

지보이스  
국제평화상사  
유방랜드  
지질학적베이커리  
다단조  
정소년원  
예술행동플랫폼 3층 501호  
생태움직임연구소 소행성  
SPACE : 몸

## 대표자명

전재우  
천근성  
임정서  
안정란  
김다은  
정소은  
김민경  
임금님  
박수진

## 심사위원

류성호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이사  
박도빈 동네형들 공동 대표  
박주로 로모 대표  
박지선 독립기획자 / 프로듀서그룹 도트 PD  
최선영 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 리뷰위원

김월식 무늬만커뮤니티 디렉터  
김정이 비커밍콜렉티브 대표  
류성호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이사  
박도빈 동네형들 공동 대표  
박주로 로모 대표  
이재준 리마크프레스 대표  
최선영 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 인터뷰

## 인터뷰어

김월식 무늬만커뮤니티 디렉터  
김정이 비커밍콜렉티브 대표  
류성호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이사  
박도빈 동네형들 공동 대표  
박주로 로모 대표  
이재준 리마크프레스 대표  
최선영 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옥민아 공공연희 대표  
임현진 독립 프로듀서  
강소영 후미니타스 편집자

## 인터뷰

지질학적 베이커리 2020 서울을 바꾸는 예술 인터뷰: 지질학적 베이커리  
유방랜드 2020 서울을 바꾸는 예술 인터뷰: 유방랜드  
국제평화상사 2020 서울을 바꾸는 예술 인터뷰: 국제평화상사  
다단조 2020 서울을 바꾸는 예술 인터뷰: 다단조  
SPACE : 몸 2020 서울을 바꾸는 예술 인터뷰: SPACE 몸  
생태움직임연구소 소행성 2020 서울을 바꾸는 예술 인터뷰: 생태움직임연구소 소행성

## 블로그

[https://blog.naver.com/sfac\\_social](https://blog.naver.com/sfac_social)

블로그 바로가기





## 서울을 바꾸는 예술 4년간의 질문들

## 담론집

구분	질문	작성자
1. 서문		최선영 유구리최실장
2.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의 흐름		김진환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팀 팀장
3.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의 주요 논제	당사자성 · 변화 · 예술적 방법론	김정이 비커밍컬렉티브
4. 서울을 바꾸는 예술 인력의 질문들	1) 왜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하는가 2) 예술의 사회적 활동은 어떤 형태인가 3) 예술의 사회적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4)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서 변화나 성과란 무엇인가 5)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어떻게 계속할 수 있는가	류성효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최선영 유구리최실장 박지선 프로듀서그룹 도트 PD 좌담회 김월식 무늬만커뮤니티

포럼 예술의 사회적 활동, 다시 질문하기

## 포럼

## 1부 서울을 바꾸는 예술, 지난 4년

사회 : 최선영 | 유구리최실장

발표1 서울을 바꾸는 예술 ( ) 서울문화재단 : 사업의 추진 배경과 변화

김진환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팀 팀장

발표2 서울을 바꾸는 예술이 바꾼 것 : 생태계 차원의 참조사항 정리

김정이 비커밍컬렉티브

## 2부 공공자원에 질문을 던지는 예술의 사회적 활동

발표1 예술의 사회적 활동 현장과 공공지원

박지선 프로듀서그룹 도트

발표2 공공지원 밖의 예술의 사회적 활동 현장 "공공지원 밖에서 하기"

김인규 시각예술가

## 종합토론

김인규 시각예술가

박지선 프로듀서그룹 도트

김지영 플러스마이너스1도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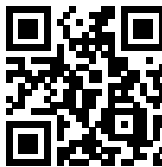
안정란 지질학적베이커리

성연주 문화사회학 연구자

## 서울문화재단 담당부서

지역문화팀	본부장	백승우
	팀장	김진환
	기획 · 운영	강민정, 오소진

## 포럼 영상 다시보기





# 서울을 바꾸는 예술 4년간의 질문들

2017-2020 답론집

**발행처** 서울문화재단

**총괄** 백승우(서울문화재단 문화시민본부장)

**기획·제작**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팀 | 김진환, 강민정, 오소진 | 최선영(유구리최실장)

**디자인** 스튜디오로드

## 답론집 원고 기고

김월식(무늬만커뮤니티)

김인규(시각예술가)

김정이(비커밍컬렉티브)

김진환(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팀)

류성호(독립문화 기획자)

박지선(프로듀서그룹 도트)

최선영(유구리최실장)

## 답론집 대화

서울을 바꾸는 예술\* 참여자

\*지원사업, 워크숍, 좌담회, 라운드테이블, 포럼

##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팀

03084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122

[www.sfac.or.kr](http://www.sfac.or.kr)

ISBN 979-11-86489-40-6

본 답론집은 무단전재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 서울문화재단





이 책은 2017-2020년 4년 동안 운영된 서울문화재단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에서 논의되었던 '예술의 사회적 활동' 관련 주요 담론을 정리, 확장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